

연구보고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

- 종합보고서 -

연구책임자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청소년 정책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함.
- 따라서 청소년지표(youth indicators)는 청소년들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주제임.
- 주요 연구 목적은 첫째, 2006년부터 진행되어온 청소년 발달지표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기 개발된 각 부문지표의 분류항목을 재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사회적·정책적으로 중요하며,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하고자 함.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아울러 2007년도에 개발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향후 청소년 통계체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축적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발달지표 배경, 투입, 과정 부문 83개 지표항목의 원천통계를 수집하였고, 청소년발달 지표조사의 3개년도 자료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에 대한 17개 지표항목에 대해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 둘째, 지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음. 지표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배경, 투입, 과정, 결과로 이어지는 체제분석적 방법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결과부문 지표항목의 정책적 실효성의 문제로 새로운 지표항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셋째는 최근 사회적·정책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청소년 문화적 자본과 관련하여,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를 개발하였음. 또한 2007년도 기 개발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자 하였음.
- 마지막으로 청소년 종합통계체제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 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 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수집이 필요한 신규 통계의 수요 분석, 기존 통계와 신규 수요 통계와의 중복 문제 등을 검토·분석 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음.

3. 정책제언

1) 청소년 발달지표 배경, 투입, 과정 부문

- 청소년 발달지표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청소년 관련 행정통계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통계 생산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통계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새로운 청소년발달지표체계가 필요함. 이는 기존의 청소년발달지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통합적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함.
- 청소년발달 지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지수개발 연구가 필요함. 총100개 지표항목의 청소년발달 지표 중에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청소년지수개발에 활용한다면 그동안 생산되어온 지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2) 결과부문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와 해결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과 추진과정의 전문화, 세분화가 요구됨.
-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의식과 함께 실제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으로 시급하며,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앞으로 인권지표, 유해환경접촉지표, 정신건강지표, 신체건강지표, 사교육참여지표, 자립역량지표, 다문화 수용성지표 등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1-2회의 단발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기존의 지표와 추가 개발되는 지표에 대한 일관적이며,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됨.
-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개발과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창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 작업이며,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임.
-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취향, 태도뿐만 아니라 고급문화/대중문화 활동 영역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배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한국 사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문화자본의 함의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와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지수의 생산에 있어 객관적이며, 양질의 지수 생산이 중요하며, 또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지표나 지수 생산이 요구됨.

3) 청소년 종합통계 구축방안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청소년통계를 적절히 체계화시킨다하여도 이를 꾸준히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함.
- 아동통계와 청소년통계의 연합과 공조가 통계의 조사계획, 수집, 가공, 생산의 각 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통계의 중복을 배제하고 기준시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주체간의 연계는 필수적임. 따라서 각 조사기관간의 전략적 제휴는 MOU 등을 통해 확산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청소년들의 특성과 문화의 변화는 새로운 통계적 수요를 창출함.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분석적 연구를 통해 신규통계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정확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청소년 통계 조사와 조사 주체에 대한 법제화가 뒤따른다면 통계중복의 문제나 통계 데이터의 신뢰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
- 통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연구적 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표 연구와 지수 개발 연구의 확대가 중요함.
-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조사연구에서 조사예산을 부실하게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따라서 신뢰로운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사예산의 확충이 매우 절실하고, 청소년종합통계의 신뢰성 있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국책기관에의 전담조직 신설이 요구됨.

목 차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5
 -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5
 - 2) 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방안 연구 7
- 3. 연구방법 및 절차 9
 -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9
 - 2) 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방안 연구 10

II.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결과 분석

- 1. 배경, 투입, 과정 부문 15
 - 1)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 분석과 개선과제 15
 - 2) 청소년발달의 주요변인으로서의 일상생활 경험지표 분석 ... 23
 - 3) 신체적 건강항목의 분석사례와 개선안 34
 - 4) 원천통계 자료에 기반한 청소년 지표개발 39
- 2. 결과부문 47
 - 1) 조사개요 47
 - 2) 조사결과 및 시사점 49

III.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 개선방안

-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개요 71
 -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의 개념과 특징 71
 - 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구성 체계 현황 72
- 2. 각 부문별 발달지표 구성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 1) 배경, 투입, 과정 지표구성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 2) 결과부문 지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IV.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및 청소년 행복지수

1.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9
1) 서론	99
2) 이론적 배경	102
3)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구성	112
4)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자료 분석	122
5) 연구결과 토의 및 정책제언	169
2.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175
1) 서론	175
2) 행복지수 산출	176
3) 조사결과	191
4) 논의	200

V. 청소년 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1.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의 필요성	205
2. 청소년통계의 현황	206
1) 청소년통계항목 분석	206
2) 청소년 통계체제 구축관련 인터뷰 조사	214
3) 전문가 심층 조사	218
3. 청소년통계의 개선방향	221
4. 청소년종합통계체제의 체계화 및 구축방안(To-Be Architecture)	223
1) 개요	223
2)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기반구축	224
3) 청소년종합통계 시스템 구축방안	232
4) 청소년 통계 Portal Service 구축방안	234
5) Infrastructure 구축방안	236
6) Governance Model 구축방안	239
7) 전략과제 도출	243
5. 시사점	243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의 결론 및 정책제언	247
1) 배경, 투입, 과정 부문	247
2) 결과부문	248
2. 청소년 종합통계 구축방안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257
참고 문헌	261
부 록 1	277
부 록 2	288

표 목차

<표 II-1> 집단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2007)	24
<표 II-2> 직종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25
<표 II-3> 청소년의 여가시간 구성비	28
<표 II-4> 청소년의 여가유형	28
<표 II-5> 비만을	29
<표 II-6> 부모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	30
<표 II-7> 최근 1년간 음주 횟수(일반청소년)	31
<표 II-8> 최근 한 달 일일 흡연량(일반청소년)	32
<표 II-9> 폭행 피해 경험(일반청소년)	33
<표 II-10> 교사에 대한 만족도	34
<표 II-11> 청소년 발달지표 신체적 건강영역 지표의 현행 및 개선안 비교	37
<표 II-12> 산출을 위한 영역구분 및 28개 지표	43
<표 II-13> 하위영역별 지수의 변화	45
<표 II-14> 응답자 분포	47
<표 II-15>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49
<표 II-16> 인지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53
<표 II-17> 사회적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57
<표 II-18> 시민적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61
<표 II-19> 진로 및 직업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65
<표 III-1> 청소년발달 지표의 분류체계 및 지표항목 (100개 지표항목)	74
<표 III-2> 2004 청소년발달지표(안)의 주요특성별 분포현황	79
<표 III-3> 한국 청소년발달지표(1-3차년도) 조사의 성격	79
<표 III-4> 청소년발달지표(3차년도) 조사과정 분석을 위한 Framework	80
<표 III-5> 연도별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조사과정	81
<표 III-6>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한 청소년발달 지표 개선안	84

<표 III-7>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정책 활용도(전체)	91
<표 III-8>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학술적 기여도(전체)	92
<표 III-9>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시급성(전체)	93
<표 III-10>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시의성(전체)	94
<표 III-11>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종합(전체)	95
<표 IV-1> 기타 음악분류 기준	117
<표 IV-2>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구성 체계	121
<표 IV-3>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	124
<표 IV-4>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	126
<표 IV-5> 문화예술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	127
<표 IV-6> 문화예술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에 대한 빈도분석표	128
<표 IV-7> 자신의 문화적 소양에 대한 평가	129
<표 IV-8> 문화예술 활동 참여정도	130
<표 IV-9> 문화예술 관련 지식 및 정보	132
<표 IV-10>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	134
<표 IV-11> 부모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135
<표 IV-12> 응답자부모와 응답자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비교	136
<표 IV-13> 음악 장르별 선호도	139
<표 IV-14> 속성별 인터넷 이용시간	140
<표 IV-15> 인터넷 이용시간과 문화관련 지식의 관계	142
<표 IV-16> 인터넷 이용시간과 문화 활동관련 정보 이용과의 관계(상관계수)	143
<표 IV-17> 속성별 주요 검색 정보	144
<표 IV-18> 속성별 사이버 커뮤니티 가입여부	149
<표 IV-19> 사이버커뮤니티 활동정도와 문화적 소양	150

<표 IV-20> 속성별 개인미디어 이용현황	151
<표 IV-21> 개인미디어 활용과 문화관련 지식과의 관계	152
<표 IV-22> 문화소비 활동 경험 비교	156
<표 IV-23> 문화 활동의 희망 정도	158
<표 IV-24> 장래 직업으로서 희망하는 정도	163
<표 IV-25>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대중문화 담론 참여 활동	166
<표 IV-26> 대중문화와 친구 사귀기	168
<표 IV-27>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78
<표 IV-28> 경제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간의 요인분석 결과	178
<표 IV-29> 자신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79
<표 IV-30> 학교에서의 안전감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81
<표 IV-31>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82
<표 IV-32> 안전감의 하위요인간의 요인분석 결과	183
<표 IV-33> 가정에서의 관계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85
<표 IV-34> 학교에서의 관계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86
<표 IV-35> 친구 관계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87
<표 IV-36> 사회적 관계의 하위요인간의 요인분석 결과	187
<표 IV-37> 긍정적 정서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88
<표 IV-38> 부정적 정서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189
<표 IV-39> 정서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간의 요인분석 결과	190
<표 IV-40> 2007,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의 6개 영역변수 요인부하 값과 가중치(괄호안)	192
<표 IV-41> 전체 행복지수	193
<표 IV-42> 2007, 2008 행복지수 하위영역별 점수	194
<표 IV-43> 중학생 청소년의 행복지수	195
<표 IV-44> 중학생 청소년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195
<표 IV-45> 고등학생 청소년의 행복지수	196

<표 IV-46> 고등학생 청소년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196
<표 IV-47> 2008 배경변수별 중학생 청소년 행복지수	198
<표 IV-48> 2008 배경변수별 고등학교 청소년 행복지수	199
<표 V-1> 보고통계 현황	207
<표 V-2> 내부관계자 인터뷰 대상 및 내용	215
<표 V-3> 외부관계자 인터뷰 대상 및 내용	216
<표 V-4>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218
<표 V-5> 보고통계로 활용되는 조사통계	226
<표 V-6> 보고통계 분류체계	230

그림 목차

[그림 I-1] 본 연구의 기본 추진 방향	8
[그림 I-2] 연구 추진절차	8
[그림 II-1] 정의적 특성-하위차원별	50
[그림 II-2] 정의적 특성-학년별	50
[그림 II-3] 정의적 특성-기타변수별	51
[그림 II-4] 인지적 특성-하위차원별	54
[그림 II-5] 인지적 특성-학년별	54
[그림 II-6] 인지적 특성-기타변수별	55
[그림 II-7] 사회적 역량-하위차원별	58
[그림 II-8] 사회적 역량-학년별	58
[그림 II-9] 사회적 역량-기타 변수별	59
[그림 II-10] 시민적 역량-하위차원별	62
[그림 II-11] 시민적 역량-학년별	62
[그림 II-12] 시민적 역량-기타 변수별	63
[그림 II-13] 진로 및 직업역량-하위차원별	66
[그림 II-14] 진로 및 직업 역량-학년별	66
[그림 II-15] 진로 및 직업 역량-기타 변수별	67
[그림 III-1] 추가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정책 활용도(주요지표)	91
[그림 III-2]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학술적 기여도(주요지표)	92
[그림 III-3]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시급성(주요지표)	93
[그림 III-4]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시의성(주요지표)	94
[그림 III-5]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 종합(주요지표)	95

[그림 IV-1] 『교육, 사회,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재생산』와 『구별짓기』에서의 부르디외의 주요 이론적 틀	104
[그림 IV-2] 연령대별 문화예술공연 또는 행사 관람자비율	137
[그림 IV-3] 연령대별 문화예술공연 또는 행사 관람자비율 (영화제외)	138
[그림 IV-4] 속성별 인터넷 이용목적	141
[그림 IV-5] 속성별 주요 검색분야와 문화관련지식	146
[그림 IV-6] 속성별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 활동 관련 정보 습득	147
[그림 IV-7] 속성별 주요 이용 서비스	148
[그림 IV-8] 성별/분야별 사이버커뮤니티 활동정도	150
[그림 IV-9] 개인미디어 활용정도-문화관련 게시물	152
[그림 IV-10] 문화 활동 수행 경험의 종류별 빈도 비교	156
[그림 IV-11] 청소년이 희망하는 문화 활동의 종류별 비교	158
[그림 IV-12] 음악종류별 선호도 비교	160
[그림 IV-13] 문화관련 직업에 대한 희망 정도 비교	163
[그림 IV-14]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매개활동	167
[그림 IV-15] 대중문화와 청소년의 친구 사귀기	169
[그림 IV-16] 전체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194
[그림 IV-17] 2007, 2008 중학생 청소년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195
[그림 IV-18] 고등학생 청소년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196
[그림 IV-19] 한국청소년행복지수(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197
[그림 IV-20] 2008 배경변수별 중학생 청소년 행복지수	198
[그림 IV-21] 2008 배경변수별 고등학교 청소년 행복지수	199
[그림 V-1] 통계항목 분석 개요	206
[그림 V-2] 조사통계 진행방법 및 통계	208
[그림 V-3] 조사통계 현황(보건복지가족부)	208
[그림 V-4]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분류체계	209
[그림 V-5] 청소년발달지표의 분류체계	210
[그림 V-6] 청소년백서 분류 체계	211

[그림 V-7] 청소년통계 혁신방안 분류체계	212
[그림 V-8] 청소년통계 분류체계	213
[그림 V-9] 청소년지식나무 분류체계	214
[그림 V-10] 최종 개선방향 도출	222
[그림 V-11] To-Be 설계절차	223
[그림 V-12] To-Be 설계 방향성	224
[그림 V-13]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기반구축 개요	225
[그림 V-14] 기생성 조사통계 영역분석	226
[그림 V-15] 영역 Matrix를 통한 중복영역 제거	227
[그림 V-16] 조사통계 영역설정	228
[그림 V-17] 조사통계 영역 Grouping]	229
[그림 V-18] 조사 설문지(예시)	229
[그림 V-19] 조사통계 분류체계 안	231
[그림 V-20] 통계목록화 방안	231
[그림 V-21] 공시항목 선정 절차	232
[그림 V-22] 청소년 종합통계 시스템 체계도	233
[그림 V-23] Portal Service 개념도	235
[그림 V-24] Portal Service 서비스 모델	236
[그림 V-25] 하드웨어 구성도 (1안)	237
[그림 V-26] 하드웨어 구성도(2안)	237
[그림 V-27] 네트워크 구성안	238
[그림 V-28]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239
[그림 V-29] 업무영역별 담당정의	241
[그림 V-30]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도(안)	242
[그림 V-31] 청소년종합통계센터 조직구성도(안)	242
[그림 V-32] 전략과제 정의서	243
[그림 VI-1] 청소년종합통계체제와 이에 대한 시스템 체계도	25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절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청소년 정책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현재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지표(youth indicators)는 청소년들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주제이다.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개발의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나 유해환경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청소년지표들과 달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이 지표는 2003년도부터 지표개발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6년도에 결과부문 영역의 타당화 작업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 I”의 3년차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발달지표는 3년간의 지표개발과 수집 그리고 2년간의 객관적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론적 및 경험적 내용들이 축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요약하는 총 100개의 양적 지표의 개발 및 시계열적 축적은 지난 연구과정의 최종 집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표 수집은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주요한 문제의식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발달지표가 상당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청소년 관련 행정통계의 총체적 부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둘째, 시계열적인 자료의 축적이긴 하나 반복적인 자료 수집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의 전망은 무엇인가? 셋째, 제4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핵

심 주제인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청소년 발달 지표가 보완 또는 발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상의 문제의식들은 2007년 연구결과물을 생산하고 또 2008년 연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되어 왔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연구진은 올해의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 III” 연구의 핵심 추진 전략을 아래와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2006년부터 진행되어온 청소년 발달지표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적해 나감과 동시에 기 개발된 각 부문지표의 분류항목을 재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정책적으로 중요하며,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한 영역인 “청소년 사회적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자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아울러 2007년도에 개발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해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청소년 통계체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축적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 통계는 다수의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 하에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이는 개별 조사 혹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때 그때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왔으나 청소년 분야의 종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산발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축적과 관리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청소년 통계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중복 문제 해결, 일관성의 유지, 신규 수요를 확인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단순한 개별조사의 DB구축에서 벗어나 청소년 통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1) 배경, 투입, 과정부문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발달 종합부문 지표조사(3차년도)는 배경, 투입, 과정 부문의 83개 지표항목은 원천통계를 수집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표관련 문헌검토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2008 원천통계 자료원 조사, 자료수집 및 편집 설계를 통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2008년 지표조사(3차년도) 보고서의 특징으로는 가독성 있는 지표자료집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지표항목별로 주요한 표를 재구성 및 재가공하고 그림을 작성하였다. 또한 지표항목에 대한 Meta Data Inventory(MDI) 작성 뿐 아니라 각 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지표의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개별지표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위하여 2008년 청소년발달 지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Meta Data Inventory’를 구축하였다. 통계 MDI의 체계는 2006년 청소년발달 지표항목의 MDI와 같이 통계 명 및 조사기관(표 제목 및 출처), 조사주기 및 계속여부,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 조사방법, 실제 조사기간, 통계용어해설(바람직한 개념과 현실적 수집 가능한 개념으로 정리)로 정리하여 가독성있는 편집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도별 통계 MDI의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악 및 분석과 새로운 지표체계 및 개별지표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청소년발달 지표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2회)를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 6차년도 연구년도에 따른 청소년발달 지표조사연구에 대한 과정,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성, 내용, 방법에 대해 논의 하였고, 2차 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 새로운 청소년발달지표의 발전적 자체 개선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넷째, 청소년발달 지표조사(3차년도)는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2008 청소년지표 메타데이터(Meta Data Inventory)를 작성하였다. 또한 지표항목별로 수집된 통계자료의 주요한 표를 재구성, 가공하여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작성하였고, 설명을 덧붙여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발달 지표조사(1-3차년도)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표의 현황과 과제라는 워크숍을 개최(9.2)함으로써 실제 지표활용을 통한 차후 청소년지표의 개선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워크숍은 청소년발달 지표(1-3차년도)에 있는 객관적 지표내용을 중심으로 소주제별로 나누어 청소년현장 및 지표의 과제를 리포트하여 지표의 활용을 통한 개선방안과 청소년지수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리포트의 주제는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 분석과 개선과제, 청소년발달의 주요변인으로서의 일상생활 경험지표, 신체적 건강항목의 분석사례와 개선안, 원천통계 자료에 기반한 청소년지표개발: 해외사례 및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발달 종합부문 지표조사(3차년도)는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최종 결과물로 제시하였다. 총 100개의 객관적, 주관적 지표항목별로 수집된 통계자료의 주요한 표를 재구성, 가공하고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작성, 설명하였으며, 2008 청소년지표 Meta Data Inventory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2) 결과부문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에 대한 17개 지표항목에 대해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부문 지표 조사는 2006년도 결과부문 지표개발을 위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결과부문 자료를 생산하였고, 2007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중1에서 고3까지 확대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2008년도 조사는 3차년도 조사로 2007년도 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발달지표의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자 하였다. 자료제시 방법은 2007년도 조사결과와 2008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변화 추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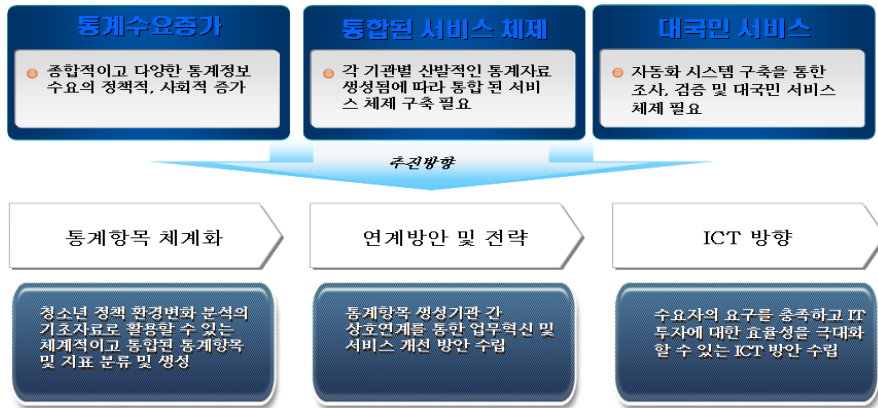
둘째, 결과부문의 지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부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배경, 투입, 과정, 결과로 이어지는 체제분석적 방법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결과부문 지표항목의 정책적 실효성의 문제로 새로운 지표항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결과부문 지표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지표(수)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는 최근 사회적·정책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청소년 문화적 자본과 관련하여,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2007년도 기 개발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 종합통계체제 구축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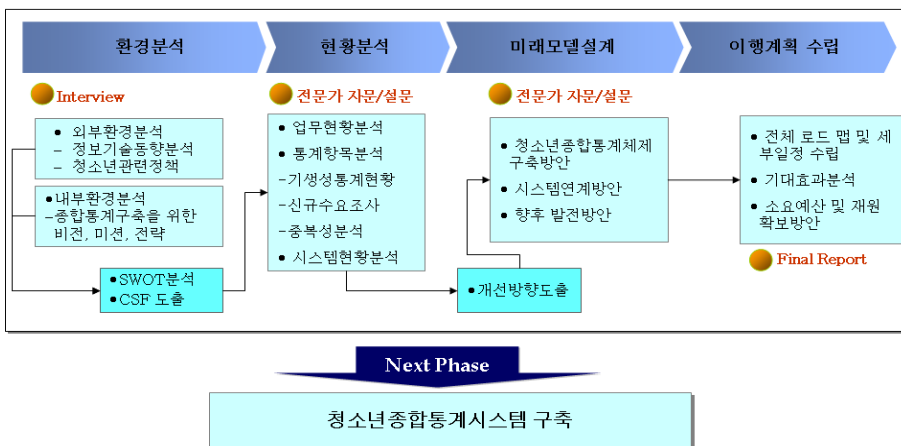
청소년 종합통계체제 구축 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전체 청소년 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기생산중인 청소년통계에 대한 분석으로서 기존의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기본통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교육중단연구 등에서 청소년 관련 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및 조사 및 수집이 필요한 신규 통계의 수요 분석 그리고 기존 통계와 신규 수요 통계와의 중복 문제를 검토·분석 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청소년 정책 수요를 감안한 「청소년종합통계」를 체계화하고 기생산 통계 및 신규조사 통계의 분류 체계를 정립하며, 「청소년종합통계」중 일괄 조사가 필요한 ‘청소년통계조사’에 대해 그 조사영역 및 설문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 -1] 본 연구의 기본 추진 방향

셋째는 이상의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청소년통계를 신규통계 수요와 함께 체계화 시키고 이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연구의 내용별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I -2]와 같다.



[그림 I -2] 연구 추진절차

3. 연구방법 및 절차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1) 배경, 투입, 과정부문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첫째, 문헌연구로서 청소년지표 및 통계, 지표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문헌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독성 있는 지표자료집으로서 역할 하도록 지표자료집과 통계자료집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 편집설계와 자료수집 과정과 표 가공, 그림 작성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장방문 및 면접조사로서 원천통계 자료원의 현장방문, 청소년 통계와 정책, 현장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조사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공문발송을 통한 자료수집의 공식화, 체계화를 함께 진행하여 2008년 지표조사와 2008년 Meta Data Inventory를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2회 반복 시행함으로써 지표영역과 지표항목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청소년발달 지표 체계의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청소년발달 지표조사(1-3차년도)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표의 현황과 과제라는 전문가워크숍을 개최(9.2)함으로써 청소년발달지표(1-3차년도)의 조사과정을 분석하고 실제 지표활용을 통한 차후 청소년지표의 개선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청소년발달 지표(1-3차년도)에 있는 객관적 지표내용을 중심으로 소주제별로 청소년현장 및 지표의 과제를 리포트하여 지표의 활용을 통한 개선방안과 청소년통계체계 구축 및 청소년지수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결과부문 조사 및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발달지표 3차년도 조사 중 결과부문 지표조사 및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조사연구

로 전국 청소년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집틀(sampling frame)은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2007년) 자료를 표집틀로 사용하였고, 전국 소재(제주도 제외) 15개 고등학교와 15개 중학교를 모두 3가지 표집변인 — 학교유형별(일반계, 실업계), 성별(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지역별(15개 광역단체 기준) — 을 사용하여 재학생수 기준 인구비례(PPS)로 선별한 후, 각 학교 내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중 각 2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둘째, 문헌검토로서 청소년 발달지표 구성 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 지표 구성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에 마련하고, 향후 추가수요 지표개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셋째, 결과부문 지표체계 및 향후 추가수요지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청소년 지표연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부문 지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 수요지표에 대한 합의점을 얻고자 하였다.

넷째,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의 개발을 위해 문화자본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청소년 문화자본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연구 및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전체 Framework는 청소년통계관련 현황분석 후 주요시사점 및 현안을 바탕으로 주요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청소년종합통계체계화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미래모형을 설계(To-Be Architecture) 하였으며, 미래모델 중 전략적 과제를 도출한 후 과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상세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미래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문헌조사, 인터뷰조사, 전문가설문조사, 전문가자문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체계화를 위하여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공시항목선정을 위한 공시항목선정기준에 따른 공시항목 선정 시뮬레이션표를 작성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각 기관의 필요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생산 되고 있는 청소년통계의 영역과 그에 따른 분류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유형별 통계현황을 분석하고, 통계자료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후 기관(원천)별 생성중인 통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조사 자료로 청소년발달지표(Ⅱ), 청소년통계, 청소년백서, 청소년통계혁신방안, 청소년지식나무, 청소년패널조사, 아동지표 등의 작성기관, 분류체계(대영역, 핵심영역, 세부영역, 지표항목, 지표항목세부), 통계지표의 원천통계 기관과 원천통계자료, 통계자료의 조사유형, 제공방법, 제공주기, 통계조사 대상연령, 표본집단의 크기, 메타데이터 보유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 및 외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획조정본부장을 포함하여 5명의 연구진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연구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통계관련 전문가인 외부인을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전략적인 측면과 업무현안 및 효율화방안의 영역을 대상으로 사전인터뷰질의서를 배포 한 후 1대1방식과 집단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피인터뷰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녹취 후 이를 문서로 정리 후 분석하였다.

셋째, 현 청소년통계의 주요현안과 신규 청소년통계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청소년통계 및 통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설문조사는 청소년 분야의 대학교 교수, 관련 연구소, 통계전문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통계의 현황 (현 통계분류체계에 대한 의견, 주요 청소년통계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등)과 신규생성이 필요한 통계수요

조사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 후 설문지를 수렴하여 각 항목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 후 중복되는 부분을 배제 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 현황분석, 미래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등 각 단계별 3차례의 워크숍을 청소년통계분야의 대학, 관련 연구소, 유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단계별 실시 된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에 관한 자문을 얻었고 타 기관에서 실시 중인 통계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기관에서 현재 생성중인 청소년통계의 영역을 확인하고 향후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를 모색하기 위하여 통계영역설정을 위한 **Matrix**분석을 실시하였다. **Matrix**분석을 통하여 중복으로 생성되고 있는 영역을 배제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채택하여 청소년발달지표조사(II),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흡연실태조사,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 가출청소년쉼터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 전문가설문조사를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1대 1로 매칭하여 중복의 영역을 배제하고 기준으로 삼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누락 된 부분은 추가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영역을 설정하고, 통계분류체계를 수립한 후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무엇을 공시할 것인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공시항목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선정 시뮬레이션표를 작성하였다. 이 표는 우선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 예를 들어 조사목적, 조사유형, 조사주기, 원천통계자료, 조사방법 등의 기준을 수립하고 각 기준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배점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Ⅱ.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결과 분석

1. 배경, 투입, 과정 부문
2. 결과부문

II.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결과 분석

1. 배경, 투입, 과정 부문

청소년발달 종합부문 지표조사(3차년도)는 배경, 투입, 과정 부문의 83개 지표항목(객관적 지표)은 원천통계를 수집하고, 결과부문의 17개 지표항목(주관적 지표)은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가독성 있는 지표자료집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지표항목별로 주요한 표를 재구성하고 그림을 작성하였다. 개별지표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위하여 2008년 청소년발달 지표항목에 대한 Meta Data Inventory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재 시점까지 조사된 3차년도의 83개의 객관적 지표항목을 외부전문가에게 제공하여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워크숍(9.2)’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워크숍을 통하여 배경, 투입, 과정 부문(객관적 지표)의 주제별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내용과 향후 청소년발달 지표의 발전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배경, 투입, 과정 부문의 83개의 객관적 지표항목의 조사결과 분석과 논의점을 전문가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 분석과 개선과제¹⁾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의 체계는 배경, 투입, 과정, 결과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 지표항목은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과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청소년정책지표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중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청소년정책의 핵심영역인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세부 지표항목도 상당수가 반영되어

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워크숍(2008.9.2)에서 발표한 것을 발췌한 내용으로, 발표자는 김정주(모든학교체험활동연구소장)임.

있다. 따라서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의 청소년활동 관련 세부 지표항목은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서 청소년활동 관련된 세부 지표항목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반적인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발달 종합지표가 청소년정책에서 의미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 분석

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실태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전문 인력,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기반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청소년단체의 현황, 청소년자원봉사 인증기관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유형별로 설치된 시설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2008년도 현재 645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124개가 늘어 크게 증가한 이후에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평균 57.0%, 청소년문화의집은 7.7%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수련관은 60%정도의 예산을 자체수익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청소년문화의집은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재정현황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규모, 기능, 사회적 기대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방안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이외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단체를 청협 회원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경우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재정 실태 뿐만 아니라, 참가자 실태, 프로그램 실태, 청소년 동아리실태 등 전반적인 자료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실태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서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사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실태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007년까지 총 14,815명으로, 1급 1,266명, 2급 8,262명, 3급 5,287명이다. 연별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2001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만 파악되었다. 청소년수련관의 상근 직원 중에서 33.9%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지도직의 경우 61.4%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상근 직원 중에서 72%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청소년지도직은 94.1%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지도사 1인당 연간 담당하는 청소년의 수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1인이 연간 16,192명의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연간 18,152명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로 보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에 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유자 배치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소년지도사 배치 실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만을 대상으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기타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③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태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및 보급은 현재는 현장의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과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인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도입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 나타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도까지 정부에서 41종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사업이 중단되었다.

둘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2006년도부터 시행되어 2008년 5월까지 총 461개의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의한 인증 프로그램은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생활권 청소년 시설에서 참여하여 주로 1일 활동으로 운영되는 정기형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청소년정책에서 현장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사업 등 몇 가지 중요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로 현장에서 운영되는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는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교류활동 등으로 분석하였다. 각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연간 이용자는 총 286,015명으로 나타났고 그중 청소년은 60.9%인 174,371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중에 아동과 성인이 40%정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청소년수

련관의 청소년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육시설과 평생교육강좌를 통해 아동과 성인의 이용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들의 이용형태는 수련활동참여, 평생교육강좌 참여, 동아리활동참여, 도서관 등 단순 시설이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청소년들의 이용실태를 세분화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15-19세의 청소년 집단의 자원봉사참여율을 59.5%로 20~29세는 8.3%보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청소년단체 가입인원은 2005년을 기준으로 총 2,477,124명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초등학생이 1,226,785명으로 49.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1,036,646명으로 41.9%, 대학생 124,660명으로 5.0% 등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율을 산출하면 초등학생은 30.4%, 중고등학생은 27.4%가 청소년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청소년단체 가입율이 현실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교류활동은 국가간 교류를 중심으로 파악되었다. 11-20세 청소년들의 출국자 수는 2000년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10.49%가 출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청소년교류는 26개국과 교류협정을 맺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2,727명의 외국 청소년 및 청소년대표단을 초청하였고, 2,093명의 국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파견하여 총 5,630명이 각국과 교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와 관련해서 청소년활동의 주요 유형으로 구분되는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등과 같은 청소년활동 유형에 대한 자료가 조사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의 특징과 개선과제

① 청소년정책상의 청소년활동 체계를 파악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체계는 국가 청소년정책에서 추진하는 청소년활동의 체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은 시설과 단체 등 인프라의 구축,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체계를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여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에 대한 객관적 통계정보 제공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 실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객관적 통계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응답을 자료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다.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서는 전자의 방식, 즉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의 운영 실태를 통해서 파악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 청소년단체가입자 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수 등과 같이 객관적 통계자료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활동 제공기관을 통한 통계자료 수집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되어있지 않으면 통계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확보된 자료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이외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그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조사를 추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활동의 유형에 따른 지표체계의 개선 필요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에서 현재 청소년정책에서 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유형에 대한 지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과 같은 유형들이 청소년정책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추가 개발과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④ 원천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생산 및 수집체계 마련 필요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의 자료원은 청소년분야의 대표적인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와 국가에서 생산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비교적 원천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용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별 통계자료는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체계에 맞추어 생산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된 자료를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청소년발달 종합지표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천통계 생산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 맞는 통계자료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발달 종합지표가 청소년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탄생되고 요구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공동의 통계자료 생산과 활용이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체계에 맞춘 통계자료를 자체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노력과 함께 해당 협력기관에서도 맞춤형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⑤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의 발전을 통한 지수화 추진 필요

현재로서는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자료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를 체계화하여 보다 단순화된 청소년활동지수 등과 같은 지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같은 요소를 반영하여 청소년활동지수를 생산하고, 이 지수와 청소년발달과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이 글에서는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에 반영되어 있는 지표항목 중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지표항목을 선정하여 청소년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개념이 규정된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분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활동도 청소년정책에서의 관심과 지원정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청소년발달 종합지표도 이러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것으로 그 안에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발달 종합지표를 통해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①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실태, ②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실태, ③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실태, ④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등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활동 관련 지표항목의 특징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발달 종합지표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건강, 청소년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지표체계는 이러한 영역별 구분이 아니라 배경-투입-과정-결과로의 체계를 갖고 있어서 세부 지표항목으로 들어가면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발견된다. 따라서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청소년발달의 주요변인으로서의 일상생활 경험지표 분석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의 발달지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경험을 알 수 있는 내용들과 그들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 정도가 어떠한지 이러한 발달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일상생활경험 특징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청소년들의 발달적 결과 특히 사회정서적인면에서의 긍정적인 발달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표가 뜻하는 것이 어느 수준의 발달 혹은 경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준거가 없어서 지표가 나타내는 수준의 상대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지표 작업에서 고려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그러나 1,2차년도에 비해서 3차년도에 제시된 지표들은 가독성면에서 한층 발전하였고 지표항목의 메타 데이터를 통해서 지표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표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본다.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발달지표 중 일상생활경험지표

2007년도 청소년 발달지표 중에서 일상생활경험의 활동지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가시간 구성비, 여가유형이 있고 일상생활경험의 대인맥락지표로 부모와의 하루평균대화시간이 있다. 또한 청소년 발달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최근 1년간 음주 횟수, 최근 1년간 담배 피운 횟수, 최근 1년 동안 폭행 경험횟수, 교사에 대한 만족도, 비만 등을 뽑을 수 있다.

① 청소년의 일(work)

청소년의 일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지표는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이다. <표 II-1>3)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중학생의 15%, 고등학

2)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워크숍(2008.9.2)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발표자는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교수)임.

생은 일반계가 21%, 전문계는 45%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는 학업위주의 생활시간표를 갖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청소년 발달과 연관 지어 청소년기 노동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에 일을 하는 것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양하다. 일의 종류가 유급이나 무급이나, 집안일이나 바깥일이나 등 일의 조건에 따라서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시간이 과도할 때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 성인의 보호와 감독아래 일을 통해 건설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청소년기 일은 발달적 혜택을 준다고 한다(Larson & Verma, 1999). 따라서 청소년기 일의 경험과 발달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표 II-1>에 제시된 정보에 추가하여 어떤 종류의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 -1> 집단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¹⁾ (2007)

(단위: %)

		계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		100.0	21.0	79.0
성별	남성	100.0	20.2	79.8
	여성	100.0	21.9	78.1
학교별	중학교	100.0	15.2	84.8
	일반계	100.0	21.0	79.0
	전문계	100.0	45.3	54.7
부모동거 형태	양친가정	100.0	19.7	80.3
	기타가정	100.0	27.9	72.1
도시 규모	대도시	100.0	18.8	81.2
	중소도시	100.0	23.7	76.3
	읍면	100.0	18.2	81.8

주 : 1)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비율임(중·고등학생 일반청소년 13,721명 대상)

출처 : 통계청(2008). 청소년통계.

3) 모든 표의 번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의 발달지표 보고서에 제시된 번호이다.

<표 II-2>에 일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배달, 서빙, 카운터를 보는 일로서 성인의 보호와 감독아래 일을 통해 건설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의 내용면에서는 청소년기 아르바이트가 그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소년의 일과 관련해서는 일의 종류 뿐 아니라 시간 양도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지표에서 시간양을 알 수 있는 통계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II -2> 직종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분	직종	중2	중3	고1	고2	계
전체	전단지 돌리기	338(79.0)	221(67.2)	107(31.0)	36(8.3)	702
	신문·우유 배달	13(3.0)	8(2.4)	3(0.9)	4(0.9)	28
	상점 판매	8(1.9)	5(1.5)	25(7.2)	36(8.3)	74
	노래방 등 카운터/서빙	21(4.9)	136(4.9)	17(4.9)	21(4.8)	75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	20(4.7)	48(14.6)	125(36.2)	247(57.0)	440
	주유소 주유원	4(0.9)	2(0.6)	10(2.9)	15(3.5)	31
	건설·공장 노동	7(1.6)	10(3.0)	21(6.1)	26(6.0)	64
	기타	17(4.0)	19(5.8)	37(10.7)	48(11.1)	121
	계	428	329	345	433	1,535
남자	전단지 돌리기	156(74.3)	102(68.5)	63(38.4)	23(10.6)	344
	신문·우유 배달	11(5.2)	7(4.7)	2(1.2)	3(1.4)	23
	상점 판매	2(1.0)	1(0.7)	7(4.3)	10(4.6)	20
	노래방 등 카운터/서빙	8(3.8)	9(6.0)	8(4.9)	15(6.9)	40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	13(6.2)	17(11.4)	49(29.9)	105(48.4)	184
	주유소 주유원	4(1.9)	2(1.3)	6(3.7)	9(4.1)	21
	건설·공장 노동	7(3.3)	6(4.0)	15(9.1)	23(10.6)	51
	기타	9(4.3)	5(3.4)	14(8.5)	29(13.4)	57
	계	210	149	164	217	740

구분	직종	중2	중3	고1	고2	계
여자	전단지 돌리기	182(83.5)	119(66.1)	44(24.3)	13(6.0)	358
	신문·우유 배달	2(0.9)	1(0.6)	1(0.6)	1(0.5)	5
	상점 판매	6(2.8)	4(2.2)	18(9.9)	26(12.0)	54
	노래방 등 카운터/서빙	13(6.0)	7(3.9)	9(5.0)	6(2.8)	35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	7(3.2)	31(17.2)	76(42.0)	142(65.7)	256
	주유소 주유원	0(0.0)	0(0.0)	4(2.2)	6(2.8)	10
	건설·공장 노동	0(0.0)	4(2.2)	6(3.3)	3(1.4)	13
	기타	8(3.7)	14(7.8)	23(12.7)	19(8.8)	64
	계	218	180	181	216	795

주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백서. p.338.

② 청소년의 여가(leisure)

청소년기 여가활동은 사회적, 정의적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지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서양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여가시간이 부족하며 수동적이다(Larson & Verma, 1999; Lee, 2003). 우리사회의 미래는 청소년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달려있다. 청소년들의 여가경험은 그들의 발달과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Verma & Larson, 2003). 여가는 청소년들에게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며, 사회와 소통하게 하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여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아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맥락이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중 스포츠 활동과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제인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자아성취감 발달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이진갑, 2002; 조현철, 최창석, 2001; 허정식, 1998). 청소년들은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다(고양YMCA, 2000). 또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양은 우울증의 감소와 관계가 있거나(Lee & Larson, 2000), 공격적 행동의 감소와 관계가 있다(이미리,

200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에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가경험은 그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의 여가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지표는 여가시간구성비와 여가유형이다. <표 II-3>에 제시된 여가시간구성비에 의하면 우리나라 10~19세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19분이며, 일요일은 평일의 2배 이상의 여가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가시간의 종류를 보면 여가활동이 주로 미디어 이용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이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표에 제시되어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스포츠를 비롯한 적극적 여가활동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II-4>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15세 이하의 주된 여가유형은 TV시청과 휴식이고 15~19세의 주된 여가유형은 TV시청과 컴퓨터게임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는 적극적 신체활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요하는 유형이 아니고 미디어 지향적인 혼자 보내는 여가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이 우리나라 청소년 여가의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여가가 청소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TV를 보는 행동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수동적인 특성을 가지며, 컴퓨터 게임은 신체적 수동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신체적 수동성을 갖는 여가를 주로 하는 것이 비만, 고립감,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이미리; Huston & Wright, 1998).

<표 II-3>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평일에는 전체 여가시간인 3시간 20여분의 1/3 이상을 일요일에는 40% 이상을 신체적 수동성을 갖고 정신적으로도 활성화되지 않는 미디어 지향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유형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표 II-5>를 통해 평가해볼 수 있는데 <표 II-5>에 의하면 이러한 수동적 여가유형을 갖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은 2005년 현재 중학생의 경우 17.8%, 고등학생의 경우 18.4%로 나타났다.

<표 II -3> 청소년의 여가시간 구성비

(단위: 시간:분)

	구분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계	교제 및 여가 활동 전체시간	4:19	3:23	5:44	7:31
여 가 시 간 종 류	교제 활동	0:42	0:40	0:48	0:43
	일반인의 학습	0:01	0:01	0:01	0:01
	미디어 이용	1:40	1:13	2:18	3:18
	종교 활동	0:05	0:01	0:05	0:27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0:02	0:01	0:06	0:06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0:14	0:12	0:15	0:19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	1:32	1:13	2:06	2:33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 구입	0:02	0:01	0:04	0:04
	기타 여가관련 활동	0:00	0:00	0:01	0:01

참고 : 연령 10~19세/

출처 :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

<표 II -4> 청소년의 여가유형

(단위: %)

구분	계	T V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컴퓨터 게임	창작 취미	자기 계발	사교 관련	봉사 활동	가족 과 함께	가사·집안 일	휴식 수면	기타
15세 이상	100	26.1	5.2	2.3	0.5	4.3	6.9	1	1.8	11.4	0.9	9.3	12.1	16.1	2
15세~19세	100	22.9	0.5	3.6	0.4	3.8	29.7	1.3	8.2	13.5	0.4	1.6	0.9	12.2	1.1

참고 : 주된 응답임.

출처 :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

<표 II -5> 비만율

연령	1998년 ¹⁾			2005년 ²⁾			전 체 (‘98년과 비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초등학생	14.0	9.9	12.1	21.8	14.4	18.3	1.5배 높음
중학생	11.6	9.3	10.5	22.2	13.3	17.8	1.7배 높음
고등학생	10.2	11.0	10.6	23.6	13.5	18.4	1.7배 높음

참고 : 비만기준은 비만지수 ≥ 20 이며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50백분위수 체중)/신장별 50백분위수 체중*100

신장별 50백분위수 체중은 『1998년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자료를 이용하였음

출처 : 1998, 2005년 『한국 소아 및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를 토대로 작성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임.

③ 청소년기 부모와의 시간

지금까지는 활동에 의한 분류에 근거하여 일상생활경험 지표를 살펴보고
고 다음은 일상생활경험의 또 다른 분류로 대인맥락에 의한 분류에 근거한
지표를 살펴보겠다. 일상생활을 누구와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청
소년 발달의 중요한 지표이다. <표 II-6>은 부모와의 대화량을 제시하고 있
다.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50% 정도가 하루에 1시간 이상
부모와 대화를 하며 나머지 50%는 하루에 1시간 미만의 시간으로 부모와
대화 하고 있다.

대인맥락에 의한 일상생활경험의 주요 범주는 혼자 보내는 시간,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혼자 보내거나 친구와 함께 보
내는 시간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은 청소년
기의 독립성 추구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표 II
-6>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는데 부모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가
초등학교에서는 30.9%, 중학교에서는 28%, 고등학교에서는 14.9%로 줄어들
고 있는데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 중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추구하는 발달적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것이라
고 사료된다.

<표 II -6> 부모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

(단위: %)

구분	합계		안한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무응답
	%	응답자수						
전체	100	13,783	7.5	16.9	24.0	25.2	25.0	1.4
성별	남	7,163	8.9	19.1	25.4	23.9	21.1	1.6
	여	6,620	5.9	14.5	22.5	26.6	29.2	1.2
학교	초	5,026	6.2	14.8	22.7	24.0	30.9	1.5
	중	4,514	7.2	15.3	22.7	25.1	28.0	1.7
	고	4,243	9.3	21.2	27.0	26.7	14.9	1.0

출처 : 한국사회조사연구소(200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터넷 공개자료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발달지표 중 사회정서 발달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지표 중 청소년 행동적, 사회정서적 발달의 결과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일탈행동 지표인 음주, 흡연, 폭행경험,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뽑을 수 있다. <표 II-7>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은 약 18%, 전문계는 34%가 1년에 10회 이상 음주경험이 있으며, <표 II-8>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13%, 전문계 고등학생의 약 44%가 하루에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 <표 II-9>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1.7%, 일반계 고등학생의 1%, 전문계 고등학생의 1.4%가 일주일에 1회 이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통계치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발달을 부적응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본다.

〈표 II -7〉 최근 1년간 음주 횟수(일반청소년)

(단위: %)

		사례수 (명)	없다	1~2번	3~5번	6~9번	10번이상
전체		8,941	28.4	26.2	19.9	8.7	16.8
도시규모	대도시	4,278	28.9	26.9	20.4	8.6	15.2
	중소도시	4,134	27.1	25.9	19.6	8.7	18.7
	읍면	529	34.8	23.5	18.4	9.0	14.2
성별	남성	4,759	26.6	26.1	19.0	8.5	19.8
	여성	4,182	30.5	26.4	20.9	8.9	13.3
학교별	중학교	3,901	37.8	28.0	17.9	7.3	8.9
	일반계	3,569	23.5	26.2	22.4	9.7	18.3
	전문계	1,471	15.4	21.6	19.1	10.1	33.9
학년별	중1	1,013	45.9	26.7	15.5	5.7	6.2
	중2	1,345	39.1	28.4	19.1	5.8	7.6
	중3	1,542	31.5	28.6	18.6	9.5	11.8
	고1	1,644	23.7	26.7	19.5	8.0	22.1
	고2	2,787	21.4	24.5	22.9	10.3	21.0
	고3	609	13.2	21.4	19.9	12.2	33.2
부모동거 형태	양친가정	7,380	28.8	26.7	20.2	8.6	15.8
	기타가정	1,562	26.8	24.0	18.7	9.3	21.2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p.87.

<표 II -8> 최근 한 달 일일 흡연량(일반청소년)

(단위: %)

		사례수 (명)	피워본 적없다	1개비 미만	2-5 개비	6-9 개비	10-19 개비	20개비 이상	무응답
전체		2,684	47.7	11.1	11.4	11.9	8.7	4.3	0.8
도시 규모	대도시	1,204	48.3	11.2	10.4	11.6	8.5	4.7	0.6
	중소도시	1,336	45.8	11.3	12.6	12.3	8.8	4.3	1.0
	읍면	144	59.8	8.4	7.6	10.0	9.0	1.5	1.7
성별	남성	1,769	45.6	10.2	12.1	13.0	10.2	4.3	0.7
	여성	914	51.8	12.8	10.0	9.7	5.7	4.4	1.1
학교별	중학교	1,110	63.2	12.6	7.6	6.1	2.7	2.9	0.8
	일반계	847	43.7	11.4	12.9	13.3	8.9	4.2	1.2
	전문계	727	28.6	8.4	15.3	18.9	17.5	6.7	0.5
학년별	중1	280	76.4	12.9	3.7	2.1	0.0	1.0	0.4
	중2	393	64.7	12.3	6.8	4.4	3.0	3.0	1.4
	중3	438	53.5	12.8	10.8	10.3	4.3	4.2	0.5
	고1	569	39.7	9.0	15.2	13.9	12.6	5.1	1.1
	고2	780	36.3	11.0	13.3	14.2	13.0	6.1	0.9
	고3	225	30.4	9.4	13.5	26.7	13.4	3.0	0.0
부모동거 형태	양친가정	2,116	48.9	11.7	11.6	10.8	8.6	3.5	0.7
	기타가정	568	43.1	8.9	10.6	15.9	8.9	7.6	1.3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p.134.

<표 II -9> 폭행 피해 경험(일반청소년)

(단위: %)

		사례수 (명)	없다	1년에 1-2회	1달에 1-2회	일주일 1-2회	주3회 이상	무응답	경험율
전체		13,721	92.3	5.0	1.1	0.6	0.9	0.2	7.6
도시 규모	대도시	6,485	93.0	4.4	1.0	0.4	0.9	0.2	6.7
	중소도시	6,326	92.1	5.0	1.1	0.7	0.9	0.1	7.8
	읍면	910	88.2	8.6	1.9	0.6	0.7	0.0	11.8
성별	남성	7,276	88.6	7.0	1.7	1.0	1.5	0.2	11.2
	여성	6,445	96.4	2.6	0.5	0.1	0.2	0.2	3.4
학교별	중학교	7,409	91.1	5.5	1.4	0.7	1.0	0.2	8.7
	일반계	4,573	94.6	3.8	0.5	0.3	0.7	0.0	5.4
	전문계	1,739	91.2	5.6	1.4	0.5	0.9	0.4	8.4
학년별	중1	2,456	92.3	4.3	1.3	0.8	1.0	0.3	7.4
	중2	2,447	90.1	6.5	1.2	0.9	1.0	0.3	9.6
	중3	2,505	90.9	5.7	1.7	0.6	1.1	0.0	9.1
	고1	2,172	92.0	5.5	1.2	0.4	0.9	0.0	8.0
	고2	3,427	94.5	3.7	0.5	0.3	0.7	0.2	5.3
	고3	713	94.9	3.5	0.7	0.1	0.7	0.1	5.0
부모동거 형태	양친가정	11,516	92.7	4.8	1.0	0.5	0.8	0.1	7.2
	기타가정	2,205	90.0	5.7	1.5	0.6	1.6	0.4	9.6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집중 종합실태조사. p.278.

<표 II-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57%가 교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았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 적응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표 II -10〉 교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재학생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15세 이상인구	100	10.5	32.1	46.0	9.0	2.4
15~19세	100	11.5	31.7	45.3	9.3	2.4
20~24세	100	8.6	31.1	49.2	9.0	2.1

출처 :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

발달을 나타내는 이상의 지표들은 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 정도를 부적응적 발달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청소년기 부적응적 발달을 설명하는 일상생활경험은 주로 과도한 학업, 건강하지 않은 여가경험(이미리, 2006), 친구들과 함께하는 맥락의 과도한 경험(이미리, 2003)등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과 관련된 발달지표들이 제시되면 부적응의 결과지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신체적 건강항목의 분석사례와 개선안⁴⁾

이 글은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의 결과부문 지표 중 신체적 건강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발달지표의 분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의 신체적 건강 영역은 3개의 중분류 항목과 11개 소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분류 항목은 체격, 체력, 신체건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격은 신장과 체중으로, 체력은 50m 달리를 비롯한 6개 지표로, 신체건강은 질병율, 영양상태, 비만율이라는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4)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워크숍(2008.9.2)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 발표자는 이지연(통계청 사무관)임.

현행 지표체계는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발달 현황을 반영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인 체격, 체력, 그리고 건강상태로 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행 체계의 기본적인 관점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발달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항목의 사회정책적인 중요도 및 이를 제시하는 방식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1) 신체적 건강 영역 지표의 문제점

현행 신체적 건강 영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을 신체적 건강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중 하나인 청소년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나 우울증이나 소외와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표가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영양의 향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발달의 결과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일 것이다. 현행 결과부문 지표체계가 신체적 건강 발달과 정신적 발달을 구분하고 정신적 발달은 주로 주관적 조사결과에 의해 측정된 인성이나 역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표간의 수준이 유사하지 않고, 복잡한 현상을 간결한 수치로 표현하는 지표로서의 성격이 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체력지표는 청소년 발달지표 총 83개중 6개를 차지할 만큼 그 구성비가 높지만,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 등 청소년의 발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사용하기에는 극히 단순하고 단면적인 지표라는 문제점이 있다. 체력이 청소년의 발달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지표라면 지구력, 순발력등을 종합하여 체력지수라는 이름으로 종합한 단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지수화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체력은 궁극적으로 질병에 대한 이환율 등 건강상태로 발현되므로 체력과 신체건강항목에서 중복성이 있거나 단면적인 지표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표의 중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가 신장과 체중, 비만을 지표에서 발견된다. 비만을 지표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서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사용하고 있다. 중분류 체격부분에서 신장과 체중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한 BMI를 다시 신체건강부분에서 비만을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지표의 중복으로 판단된다. 신장과 체중 지표를 삭제하고, BMI만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BMI는 저체중과 과체중이 전부 제시되지만,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비만율이라는 지표명을 유지해도 좋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 지표체계에서 음주와 흡연을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인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지표체계상 음주와 흡연은 과정부문의 청소년 보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청소년의 정의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24세로 정의되는데, 19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에게는 음주와 흡연이 일탈적 행위하고 보호의 문제이겠지만, 20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발달지표 체계에서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 대표적인 건강위해행위로 바라보는 접근이 청소년, 보건, 교육 등 관련부처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건강 및 보건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사망률 지표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건강상태는 특정 질환에 대한 노출 여부를 판단하는 유병률과 질환이나 사고의 치명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사망률, 현재의 사망률 수준을 나타내는 기대수명 등의 지표로 판단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자살이나 운수사고 등 사고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는데, 이러한 사고사들은 시대적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도 유용하다. 또한 사망률 지표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기준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국제비교도 가능하다는 유용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건강 영역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발달지표 전반적으로 각각의 지표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표의 유용성은 그 지표가 얼마만큼의 다양한 현상을 간결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라는 포

괄성과 변화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가라는 지속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지표는 동일 영역내에서는 포괄적이고, 영역간에는 상호 배타적으로 선정되어야 한 다는 점 또한 지표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신체적 건강 영역 지표 개선안

청소년 발달지표 중 신체적 건강영역에서 발견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지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 -11> 청소년 발달지표 신체적 건강영역 지표의 현행 및 개선안 비교

현행			개선(안)			
영역	중분류	세부지표	영역	중분류	세부지표	자료원
신체적 건강	체격	청소년 신장	청소년 건강 및 안전	건강 상태 및 활동	주관적 건강상태	국민건강 영양조사
		청소년 체중			비만을	“
	체력	50m 달리기			영양상태	“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굽혀매달리기)			체중조절	“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운동 실천율	“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질병 및 건강 위해 행위	주요 질환 유병률	“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스트레스 및 우울증 경험율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음주율	국민건강 영양조사
					흡연율	“
	신체 건강	질병율		사망력	폭력피해 경험	
		영양상태			청소년의 사망원인	사망원인 통계
		비만을			청소년(15세) 기대여명	생명표

먼저 신체적 건강영역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청소년 건강 및 안전으로 확대하고, 체격, 체력, 신체건강의 중분류를 지표의 유용성을 감안하여 건강

상태 및 조건, 질병 및 건강 위해행위, 사망력으로 재구성하였다.

건강상태 및 신체활동의 세부항목으로는 건강상태 전반을 반영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인 청소년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체격의 균형적인 발달 여부를 측정하는 비만율, 영양 섭취의 불균형 여부를 보여주는 영양상태로 구성되는 건강상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체중조절 및 운동 등의 적극적인 신체활동으로 재구성하였다.

질병 및 건강위해행위 중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청소년의 주요 질환 유병률과 스트레스 및 우울증 경험율을 선정하였다. 개선안에서 제시된 주요 질환 유병률은 현행 지표인 질병률 지표와는 차이가 있다. 현행 지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요 질환 연간의사 진단율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 질환이란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염, 수두 등 청소년들이 지난 1년 동안 빈번히 앓게 되는 질병에 대한 유병률이다. 그러나, 이 지표가 얼마만큼의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동일 조사의 주요 질환 평생 유병률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심장질환, 당뇨,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 천식 등은 그 질병 자체의 심각성과 장기간의 돌봄 및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병이다. 개선안에서는 주요 질환 유병률 지표로서 후자를 제시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및 우울증 경험율 지표의 자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작성주기는 전자는 5년 간격, 후자는 3년 간격이고, 조사대상이 전자는 18세 이상인 반면, 후자는 12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가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한 보다 전문적인 조사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작성주기 및 조사대상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경험률 지표를 선택하였다.

건강위해행위지표는 흡연과 음주라는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폭력피해 경험 등의 정신적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망력은 청소년의 10대 사망원인과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일정하다면 청소년이 향후 생존하게 될 년수를 의미하는 15세 기대여명

지표를 선정하였다.

제시된 지표 개선안의 주요 자료원은 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연간통계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및 생명표를 주요 자료원으로 삼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3년 이라는 작성주기로 인해 지표를 매년 업데이트 할 수 없고, 기준시점에서 공표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통계의 시의성도 약간 늦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개선안으로 제시된 지표는 대부분 국민건강영양조사중 건강면접조사에서 도출되는데, 2008년부터는 건강면접조사의 경우 연간통계로 조사주기를 단축하고 현재 공표범위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건강면접조사의 결과가 발표되는 2009년 부터는 청소년 지표의 신속한 갱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원천통계 자료에 기반한 청소년 지표개발⁵⁾

이 글은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연구(이하 지표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3년간 수집되어온 청소년 발달 관련 원천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관련 지수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 및 몇 가지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표연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또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바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통합에 의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형식적 통합시도이다. 이러한 통합이 시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사업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지표연구와 상당부분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표연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과거 수년간 축적되어온 지표연구의 결과들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할 것이다. 본 집필자는 이미 지표연구의 발전방안으로 지표를 활용한 대표적 청소년 지수를 생산하는 것을 제시 한 바 있다.

5)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워크숍(2008.9.2)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 발표자는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임.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사회지표로서 청소년 지표의 성격 및 특수성에 대하여 개관한 후, 청소년 지표를 통한 지수발달의 해외 사례로서 미국에서 발달된 **Child Well-Being Index**를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수발달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반드시 고민해야할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논의 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청소년발달지표

지표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모두 합의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현재 도달한 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수치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지표로서의 보편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로서의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청소년발달지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청소년발달지표(youth development indicator)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발달지표를 사회지표의 하위영역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청소년발달체계(또는 청소년육성체계)를 사회체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며, 청소년발달지표 역시 사회발전을 나타내는 부분이나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둘째, 청소년발달지표가 사회지표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작용원리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발달영역 고유의 특성과 현황 및 변화를 나타내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최근 사회체제의 하위영역별 지표들이 독립적인 지표체계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발달지표는 청소년발달(youth development) 고유의 특성과 현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지표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발달지표를 “청소년발달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우리의 청소년발달이 어느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청소년발달체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발달체제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통계치”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발달지표가 청소년발달체제가 추구하는 규범적 상태뿐만 아니라 청소년발달체제의 실상을 드러내 주는 기술적 성격의 척도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적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개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발달지표는 청소년발달체제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통계치이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하는 통계치이다.

둘째, 청소년발달지표는 지역 간의 차이와 일정시기에 상이한 제도들의 특정요소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발달지표는 사회·정치적 변동 또는 청소년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발달체제의 여러 측면들을 적절히 기술해 주고, 평가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발달지표는 청소년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 청소년정책결정자, 청소년관련 연구자 등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해외사례 : Child Well Being Index

Child Well-Being Index(이하 CWI)는 삶의 질 또는 행복감 연구의 두 전통, 즉 객관적 지표 접근(social indicator approach)과 주관적 지표 접근(subjective well-being approach)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Land, Lamb, & Mustilo, 2001). 과거 삶의 질 연구의 두 가지 전통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 지표접근은 나름대로 정확하고 단위나 시간별 비교가 가능한 강성지표(hard index)로 구성되어 있어 지표의 정확도나 타당도는 높은 반면, 실제 사람이 느끼는 삶의 질이나 행복감과 그리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주관적 지표 접근은 개인이 처해있는 객관적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개인이 실제 느끼는 삶의 질이나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측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또한 측정오차의 개입이나 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CWI의 가치는 주관적 지표접근의 수많은 과거 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밝혀내고 각각의 하위영역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수를 찾아내어 하나의 지수를 구성하였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관적 지표 접근법을 통하여 개인들이 삶에 대한 궁극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데 기여하는 구성요인 혹은 삶의 영역을 찾아내어 그 영역에 해당하는 객관적 지표들을 통합시킨 것이 바로 CWI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발달된 CWI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아동 및 청소년⁶⁾들의 안녕(well being)에 있어서 변화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6) 본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CWI를 구성하는 지수들을 볼 때,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29세 이하)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인구집단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계속해서 ‘아동 및 청소년’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표 II -12〉 산출을 위한 영역구분 및 28개 지표

Family Economic Well-Being Domain:	1. Poverty Rate-All Families with Children 2. Secure Parental Employment Rate 3. Median Annual Income-All Families with Children
Family Economic Well-Being and Health Domains:	4. Rate of Children with Health Insurance Coverage 2
Family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hips Domains:	1. Rate of Children in Families Headed by a Single Parent
Social Relationships Domain:	2. Rate of Children Who Have Moved Within the Last Year
Health Domain:	1. Infant Mortality Rate 2. Low Birth Weight Rate 3. Mortality Rate, Ages 1-19 4. Rate of Children with Very Good or Excellent Health (as reported by their parents) 5. Rate of Children with Activity Limitations (as Reported by their Parents) 2 6. Rate of Overweight Children and Adolescents, Ages 6-19
Health and Behavioral Concerns Domains:	1. Teenage Birth Rate, Ages 10-17
Safety/Behavioral Concerns Domain:	2. Rate of Violent Crime Victimization, Ages 12-17 3. Rate of Violent Crime Offenders, Ages 12-17 4. Rate of Cigarette Smoking, Grade 12 5. Rate of Alcoholic Drinking, Grade 12 6. Rate of Illicit Drug Use, Grade 12
Educational Attainments Domain:	1. Reading Test Scores, Average of Ages 9, 13, 17 2. Mathematics Test Scores, Average of Ages 9, 13, 17
Place in Community and Educational Attainments Domains:	1. Rate of Preschool Enrollment, Ages 3-4 2. Rate of Persons Who Have Received a High School Diploma, Ages 18-24 3. Rate of Youths Not Working and Not in School, Ages 18-20 4. Rate of Persons Who Hav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Ages 25-29 5. Rate of Voting in Presidential Election, Ages 18-243
Emotional/Spiritual Well-Being Domain:	1. Suicide Rate, Ages 10-19 2. Rate of Weekly Religious Attendance, Grade 12 3. Percent Who Report Religion as Being Very Important, Grade 12

CWI의 특징은 첫째, 미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안녕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는 요약지수(summary measure)이며 둘째, 상호 관련 있는 지표들의 연간시계열자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CWI의 발달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영역을 총 7개로 구분한다. 그것들은 각각 물질적 안녕(material well-being), 건강(health), 안전(safety and behavioral concern),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 including educational achievement), 집단참여(participation in schooling or work institutions),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peers), 그리고 정서적 안녕(emotional/spiritual well-being)으로 명명되었다. CWI는 일곱 개의 삶의 영역에 총 28개 주요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지표는 <표 II-12>와 같다.

28개의 지표들은 모두 연간시계열자료들이며 이들 자료들은 1975년 혹은 1985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퍼센트의 증감정도가 점수화되어 있다. 28개의 지표들은 일곱 개의 삶의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CWI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대한 영역지수의 산출에도 사용된다. 영역지수나 CWI의 경우 모두 동일가중치전략(equal weighting strategy)을 사용하여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8).

CWI를 토대로 하여 과거 20여 년 간의 미국 청소년들의 행복정도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먼저 1975년을 기준으로 일곱 개의 하위영역별 지수변화는 <표 II-13>과 같다.

<표 II-13>에서 알 수 있듯이 물질적 복지는 2001년의 경기후퇴의 영향을 받아 1975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2000에서 2001년 사이 0.77% 감소했으나 안전, 사회관계, 정서적 안녕 등은 2000년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지수를 조합하여 구성한 CWI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2001년에는 약 104, 2002년에는 약 105로 높아졌다. 1980년대와 1990년

7) 인종별 및 성별 구분은 1985년 자료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1985년 수치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

8) Hagerty and Land(2003)에 따르면 동일가중치전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삶의 영역에 대한 가중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 초의 하향추세는 흑인과 라틴계(hispanic)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간의 CWI 변화추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따르면 CWI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표는 건강영역내의 ‘비만도(obesity indicator)’였다.

〈표 II -13〉 하위영역별 지수의 변화

하위영역(Domains)	1975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2000-2001년간 변화 (%)
material well-being	-.77
health	-1.68
safety/behavioral concern	+4.17
productivity (mostly educational achievement)	no change
place in community	-0.74
intimacy(social relationships)	+5.56
emotional/spiritual well-being	+3.57

(3) 몇 가지 이슈들

첫째,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각각 청소년의 외적 환경과 내적 인식 혹은 내적 정서를 측정하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시계열 국가통계 등의 객관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 실제 한국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주관적 지표들만으로 행복지수의 지표들을 구성 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나 사회의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 못하게 된다. UN이나 WHO등의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각국 성인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 관련 조사들이 그 나라의 경제, 의료, 복지 수준과 전혀 동떨어지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주관적 지표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9) 2004년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푸에르토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슈는 지수구성의 토대가 되는 하위지표들의 내용타당도 확보문제이다. 다른 유형의 타당도와 비교할 때 내용타당도의 확보 작업은 철저하게 이론적이고 연역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기간 국내의 많은 지수발달 연구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의존적(data-dependent) 연구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개념을 측정해내는 지수와 그것을 구성하는 지표들이 이론적 논의 보다는 자료의 확보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발달될 청소년 관련 지수의 생산과정에서는 청소년학 관련 연구자들의 보다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고민들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부여의 문제이다. 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그리고 각 영역내에서의 세부 지표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작업은 최종지수를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영역 또는 영역내에서의 세부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은 각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WI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헌검토를 통해 확인된 독립적 삶의 영역이 무려 150여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개인들마다 혹은 연구자들마다 얼마나 다르게 삶의 영역을 정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지수발달을 목적으로 연구자들이 취해온 가중치 부여 방법은 개별지표의 표준화와 종합지표의 산출, 연도별 변화율을 통한 가중치, z-score를 통해 상이한 변수들을 전체적 분포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라는 동일척도로 재구성하는 방법들이 있다.

지표 연구는 지난 3년동안 나름의 성과도 있었으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보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what do we do with all these numbers?’라고 할 것이다. 즉 자료는 모았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는 질문이다. 지금은 과거 3년간의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할 시간이다. 물론 자료 자체의 질(quality)에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경우 불량지표와 우량지표를 일정 기준에 의해 구분해 내고 우량지표 위주로 개념적 구성이 토대하에서 청소년 관련 지수를 생산해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2. 결과부문

1) 조사개요

(1) 표집(sampling)

이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6,305명의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이들을 표집하기 위해 일단 중/고등학교를 먼저 표집하고 다시 해당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표집하는 2단계 표집전략을 사용하였다. 표집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소장중인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sampling frame)로 활용하였다.

표집기준은 모두 세 가지 표집기준—학교유형별(일반계, 실업계), 성별(남고, 여고, 남녀공학), 지역별(7개 광역시와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로 구분)—을 동원하여 15개 고등학교와 15개 중학교(총 30개 학교)를 재학생수 기준 인구비례(PPS)로 선정하였다. 표집된 학생들의 학교유형별, 성별, 학년별 분포는 아래 <표 II-14>와 같다.

<표 II -14>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
성별	여학생	3,114	49.39
	남학생	3,191	50.61
학년	중1	1,091	17.30
	중2	1,058	16.78
	중3	1,069	16.95
	고1	1,067	16.92
	고2	1,054	16.72
	고3	966	15.32
	합계	6,305	100
학교구분	인문계고	2,746	43.55
	실업계고	341	5.41
	중학생	3,218	51.04
합계		6,305	100

(2) 조사과정 및 내용

현지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 Survey Research Center)에 의해 수행되었다. 금번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인근 수련원에서 2008년 5월 조사의 목적 및 세부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조사원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원교육 전에 표집된 각 학교의 책임자들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전화로 접촉해서 조사 협조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전화 접촉 과정에는 전문 컨택요원이 동원되었으며, 이 요원들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협조공문을 팩스 등으로 송부해가면서 협조 요청 및 일정 조정을 하였다.

조사원교육을 이수한 조사원들은 각자 맡은 학교를 일주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학교담당자(교감, 연구부장 등)를 만난 후 해당 학급을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팀은 2인 1조로 이루어져 2명의 조사원이 한 학교를 일시에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들 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사전에 준비한 조사협조공문을 제시하고, 학교담당자 및 학교교사, 그리고 응답대상 학생들 각각에게 소정의 답례품(incentives)을 전달한 후 조사에 임하였다. 설문 기입방식은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2006년도에 시작된 3차년도 지표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내용 및 지표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2008년도 지표의 설문구성은 2007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 개발된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에 해당하는 정의적,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 역량과 관련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07년 조사에서 포함하였던 “청소년행복지수”항목을 포함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¹⁰⁾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Ⅲ』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 청소년 발달의 결과부문에 대한 주요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Ⅱ』의 후속연구로서, 5개영역 총 17개 발달지표의 발달수준을 측정하고, 2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1) 정의적 특성

① 정의적 특성의 측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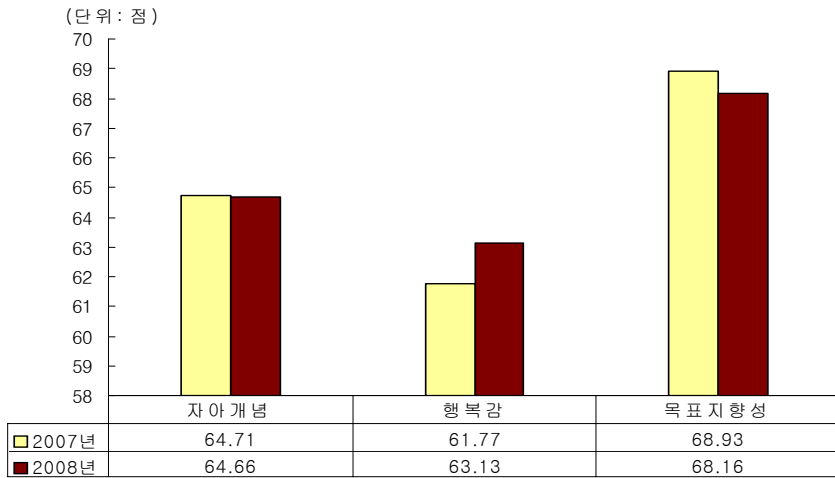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은 “자아개념”, “행복감”, 그리고 “목표지향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아래 <표 II-15>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II - 15>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핵심 영역	세부 영역	지표항목
정의적 특성	자아 개념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 한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 한다
		5.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한다
	행복감	6.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7.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8.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목표 지향성	9.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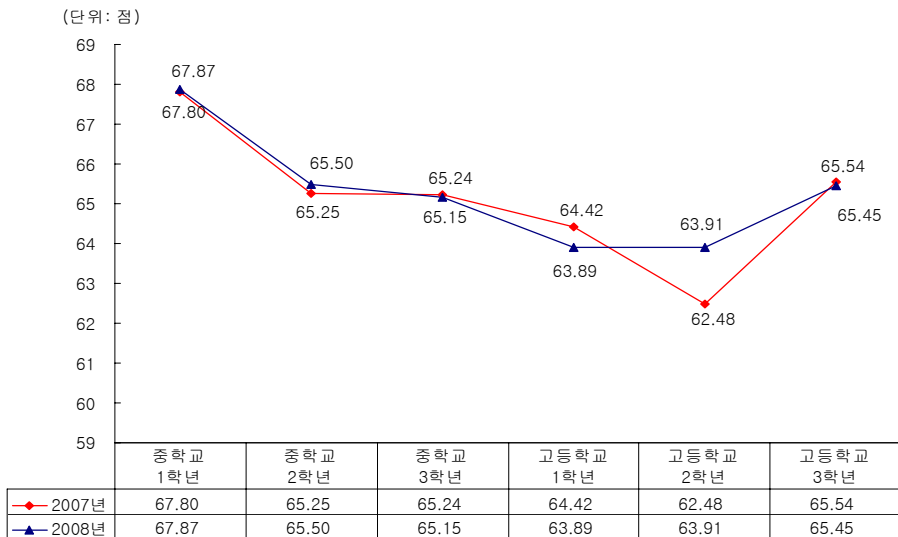
10) 각 세부영역의 구체적 분석결과는 지표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람.

②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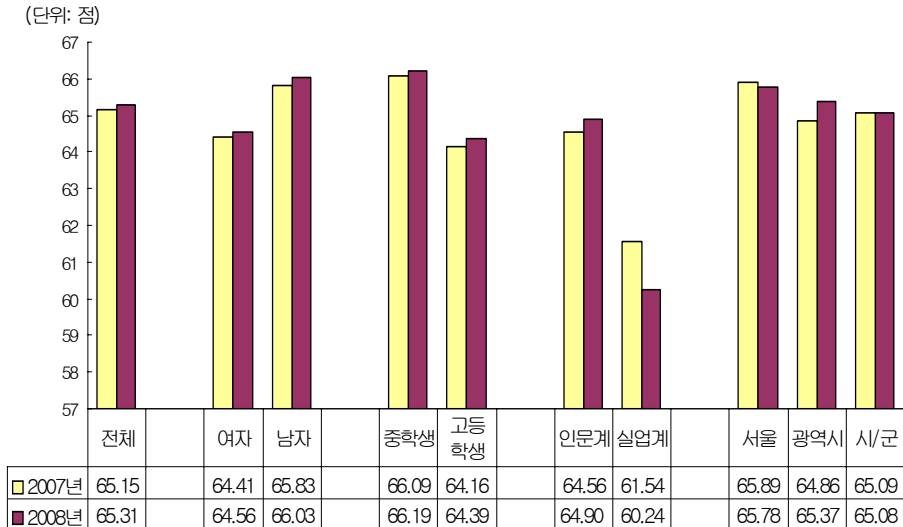
[그림 II -1] 정의적 특성-하위차원별

③ 정의적 특성의 학년별 분석결과



[그림 II -2] 정의적 특성-학년별

④ 정의적 특성의 기타변수별 분석결과



[그림 II -3] 정의적 특성-기타변수별¹¹⁾

⑤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정의적 특성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목표지향성(68.16)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도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아개념, 행복감, 목표지향성의 점수를 모두 합한 정의적 특성에 대한 학년별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운데 중1 청소년들의 점수(67.8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증가하면서 낮아지다가 고2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고3(65.45)의 경우 중2(65.5)의 정의적 특성 점수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의적 특성에 대한 기타변수별(성별, 연령별, 계열별,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66.03)가 여자(64.56)보다, 중학생(66.19)이 고등학생(64.39)보다 그리고 인문계(64.9)가 실업계(60.24)보다 높았고, 지역별 비교에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11) 성별, 연령별, 계열별, 지역별 변수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¹²⁾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의적 특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007년 대비 조금 상승하였으나, 그 폭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목표지향성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행복감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2007년과 대비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적으로 변화된다는 발달의 일반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임성택, 2004; 최준식 역, 2007;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1989; Pittman & Irby, 1996).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학년별 분석결과를 보면, 정의적 특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으며, 그 이후 학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여성청소년이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정의적 특성이 더 부정적으로 발달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과중한 학업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업계고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성차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적 특성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과 행복감의 수준은 목표지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자아개념의 경우 학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행복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일관되게 낮아졌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적 특성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개입전략을 세울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행복감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5개 영역의 각 시사점 및 종합논의는 김진호(한국방송대학교)교수의 원고를 일부 수정·요약하였음.

(2) 인지적 특성

① 인지적 특성의 측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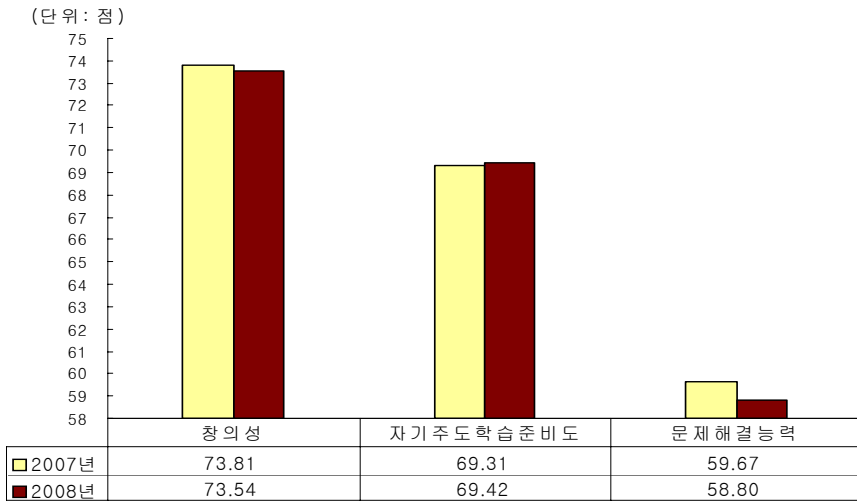
인지적 특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재능, 태도의 복합체’로 정의되며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의 하위영역 및 세부지표 문항들은 아래 <표 II-16>과 같다.

<표 II -16> 인지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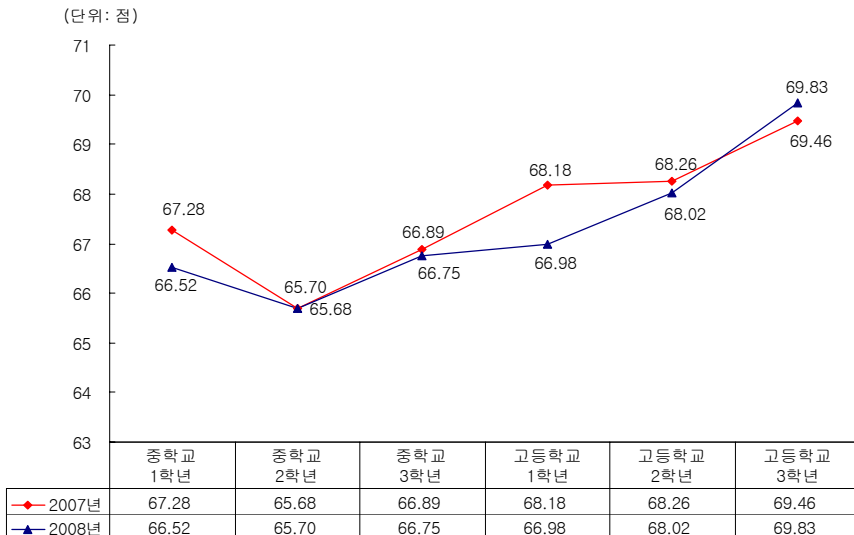
핵심 영역	세부 영역	지표항목
인지적 특성	창의성	1.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2.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
		3.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5.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8.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문제해결 능력	9.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10.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11.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12.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13. 나는 문제해결 후 문제의 해결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본다.

② 인지적 특성의 하위차원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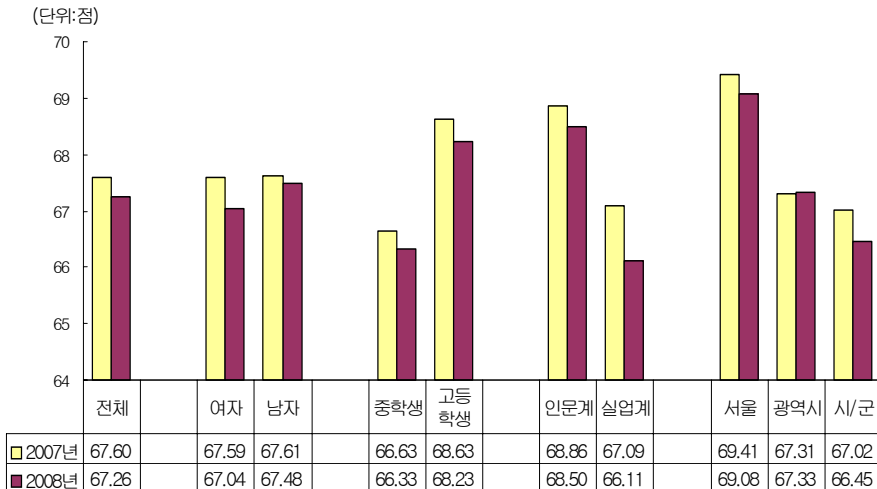
[그림 II -4] 인지적 특성-하위차원별

③ 인지적 특성의 학년별 분석결과



[그림 II -5] 인지적 특성-학년별

④ 인지적 특성의 기타변수별 분석결과



[그림 II -6] 인지적 특성-기타변수별

⑤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II-4]에 제시되었듯이 인지적 특성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창의성(73.54)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자기주도 학습준비도 = 69.42, 문제해결능력 = 58.80).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도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인지적 특성의 하위변인들인 창의성,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문제해결능력 점수를 모두 합한 인지적 특성에 대한 학년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1(66.52) 점수가 중2(65.7)보다 다소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타변수별 결과에서는 남자(67.48)가 여자(67.04)보다 더 높았고, 고등학생(68.23)이 중학생(67.04)보다 높았으며, 인문계(68.5)가 실업계(66.11)보다 서울지역(69.08)이 광역시(67.33)나 시/군 지역(66.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지적 특성영역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0.3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인지발달 수준이 “보통수준” 이상

이지만 우수하지는 않으며, 2007에 비해 향상되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지발달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기술 등을 활용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지적 특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사고과정이 점진적·순차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지는 인지발달의 일반적 특성 과 일치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계고에 비해 실업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계고 학생들과 광역시·시군지역의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창의성 개발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지적 특성의 하위영역 중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평균 점수가 “보통수준”이상을 보인 반면, 문제해결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다변화되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은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생활기술(life skill)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태도 등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역량

① 사회적 역량의 측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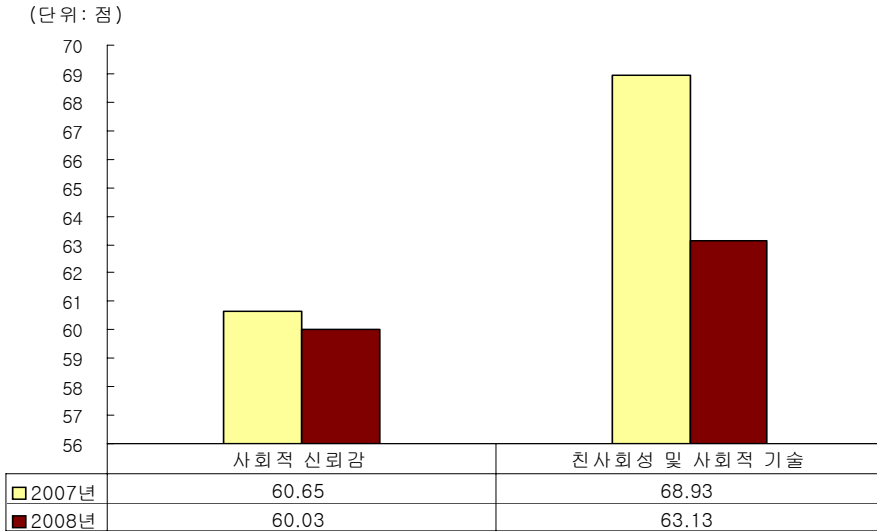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란 ‘청소년들이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사회적 성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회라는 제한된 범주에서 벗어나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사회라는 세계에 나가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노력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사회적 역량에 대한 세부지표 항목은 다음 <표 II-17>과 같다.

<표 II - 17> 사회적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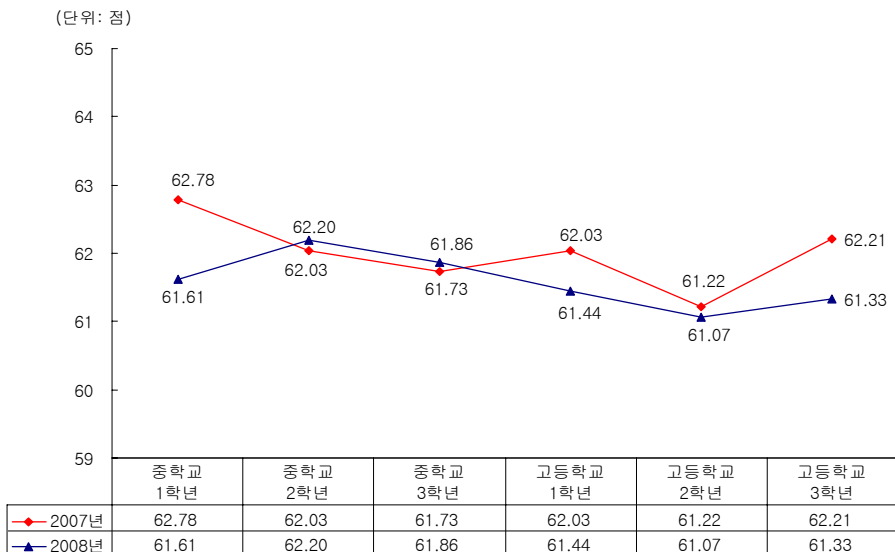
핵심 영역	세부 영역	지표항목
사회적 역량	사회적 신뢰감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2.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3.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4.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5.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에게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6.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7. 나는 친구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8.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9.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1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11.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② 사회적 역량의 하위차원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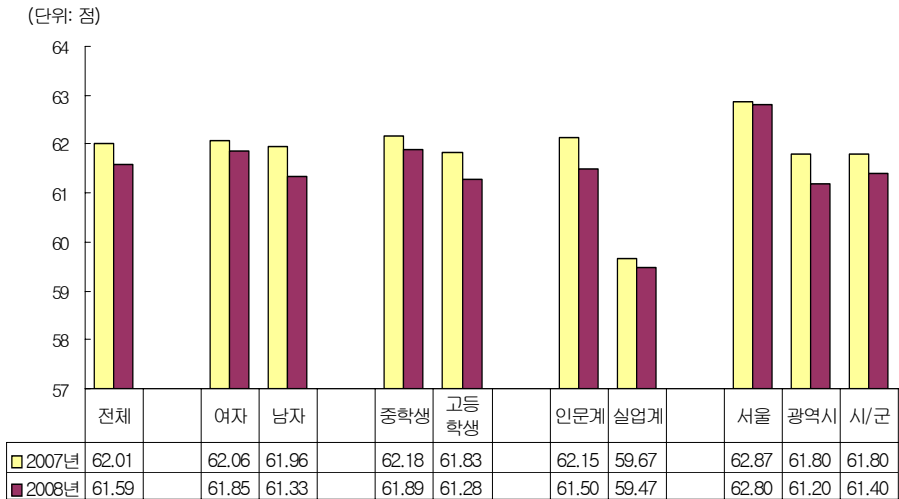
[그림 II -7] 사회적 역량-하위차원별

③ 사회적 역량의 학년별 분석결과



[그림 II -8] 사회적 역량-학년별

④ 사회적 역량의 기타 변수별 분석결과



[그림 II -9] 사회적 역량-기타 변수별

⑤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II-9]에 제시되었듯이 사회적 역량의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63.13)영역이 사회적 신뢰감(60.0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2007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사회적 신뢰감은 2007년도에 비해 .62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은 경우는 5.80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적 역량에 대한 학년별 점수 분포는 중1(61.61)에서 고3(61.33)까지 큰 차이가 없는 점수분포를 보였다. 기타변수별 결과에서도 여자(61.85)가 남자(61.33)보다 높았고, 중학생(61.89)이 고등학생(61.28)보다 높았으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역량영역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61.59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7년과 비교했을 때 0.42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으며, 2007에 비해 향상되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역량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학년이 증가하더라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신뢰감과 친사회적 기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 학생들보다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신뢰감이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계고 학생들과 광역시·시군지역의 학생들의 친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량의 하위영역 중 친사회적 기술은 평균 63.1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신뢰는 평균 60.03점으로 친사회적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신뢰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향후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시민적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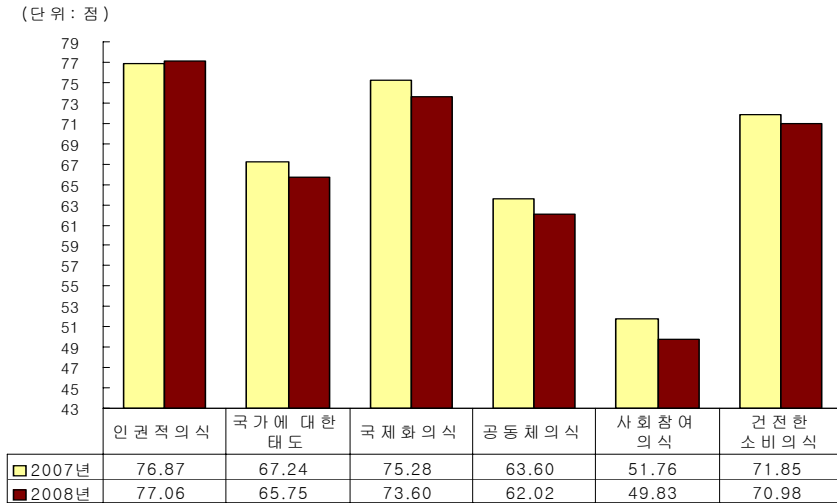
① 시민적 역량의 측정문항

시민적 역량은 특정한 공통체의 구성원. 즉‘시민’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 국제화 의식,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의식 및 건전한 소비의식 등 6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적 역량에 대한 세부문항들은 <표 II-1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 -18> 시민적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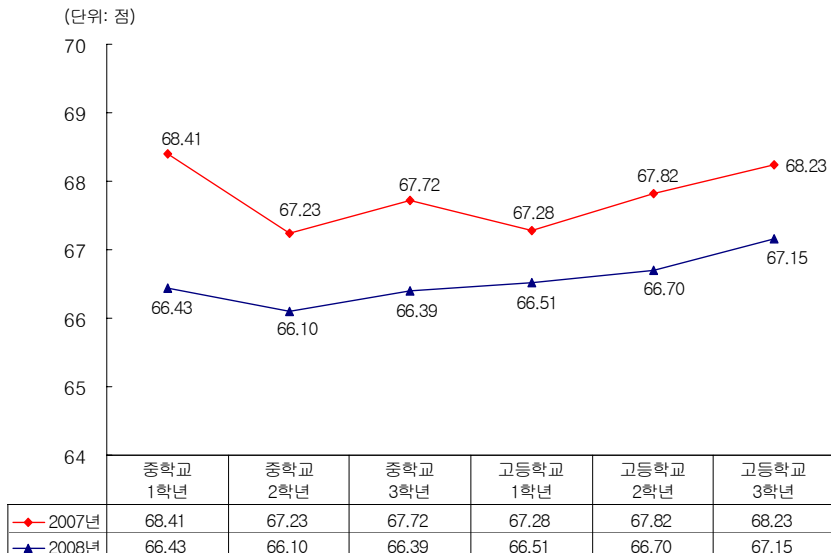
핵심 영역	세부 영역	지표항목
시민적 역량	인권 의식	1.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에 대한 태도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6.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7.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국제화 의식	8. 외국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9.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10.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11. 나는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사회 참여 의식	12.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 (교칙제정 등)
		13.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서 보내기)
		14.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 (봉사활동 등)
		15.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16.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청소년음악의 밤, 박물관 견학 등)
	건전한 소비의식	17.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② 시민적 역량의 하위차원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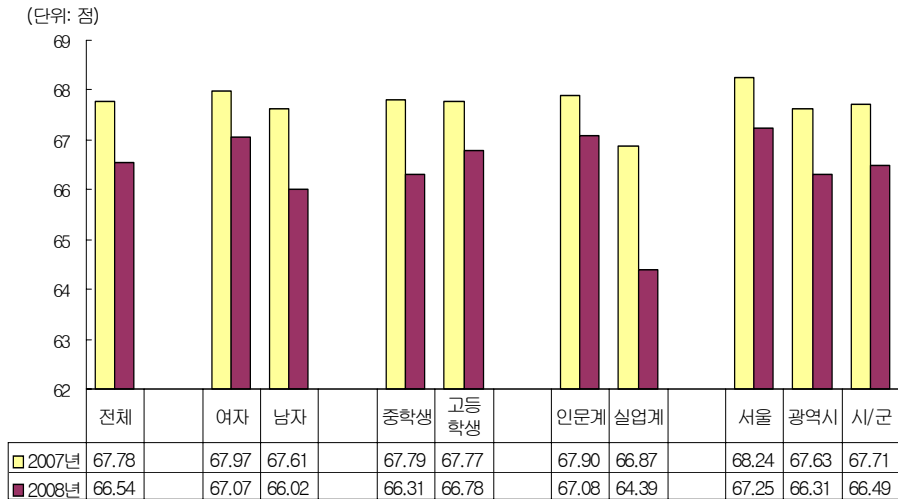
[그림 II -10] 시민적 역량-하위차원별

③ 시민적 역량의 학년별 분석결과



[그림 II -11] 시민적 역량-학년별

④ 시민적 역량의 기타 변수별 분석결과



[그림 II -12] 시민적 역량-기타 변수별

⑤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먼저 각 하위변인들의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권의식의 점수(77.06)가 다른 변인들의 점수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국제화 의식(73.60), 건전한 소비의식(70.98)순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사회참여의식(49.83)이었으며, 전체적인 점수 분포의 양상은 2007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각 하위변인들의 점수를 합산한 시민적 역량에 대한 학년별 결과를 보면, 중1(66.43)보다 중2(66.1)학년 학생의 점수가 조금 낮았으나, 대체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완만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시민적 역량에 대한 기타변수별 분석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도 조사보다는 점수가 낮았으나 변수별 점수 분포양상은 대동소이 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67.07)가 남자(66.02)보다 고등학생(66.78)이 중학생(66.31)보다 높았으며, 인문계(67.08)가 실업계(64.39)보다 서울지역이 광역시나 시/군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시민적 특성

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2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2007년에 비해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들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시민적 특성의 하위영역들 중에서 국제화의식과 공동체의식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반면, 인권의식과 사회참여의식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없었으며, 국가에 대한 태도와 건전소비의식은 학년에 높아짐에 따라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시민적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또한 성별로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인문계고 학생들보다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민적 특성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때 상대적으로 여학생과 실업계고 학생,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시민적 특성의 하위영역 중 인권의식이 평균 77.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화의식(73.60점), 건전소비의식(70.98점), 국가에 대한 태도(65.75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국제화의식, 건전소비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가에 대한 태도와 공동체의식, 사회참여의식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민적 특성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할 때 인권의식이나 국제화의식보다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참여의식 함양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진로 및 직업 역량

① 진로 및 직업 역량 측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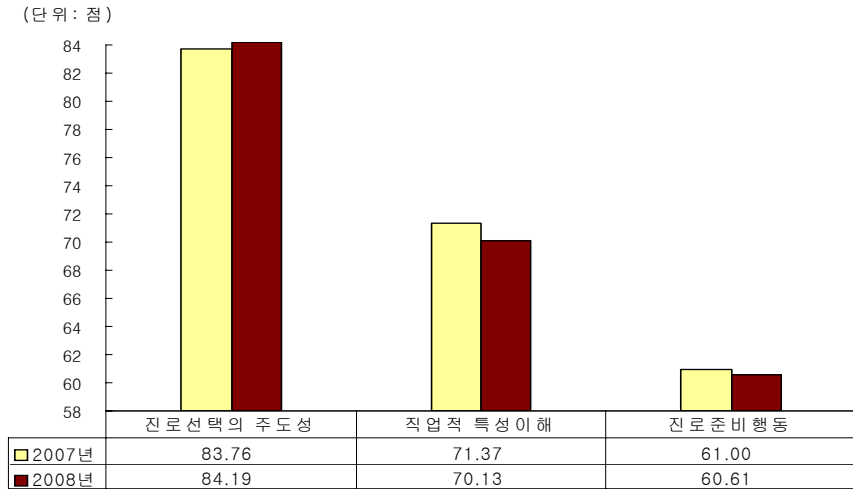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의 형성과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여부를 의미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오늘날의 직업분야는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진로 및 직업분야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향후 직업선택과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6년 개발된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역량의 하위영역 및 세부지표 문항들은 <표 II-19>와 같다.

<표 II -19> 진로 및 직업 역량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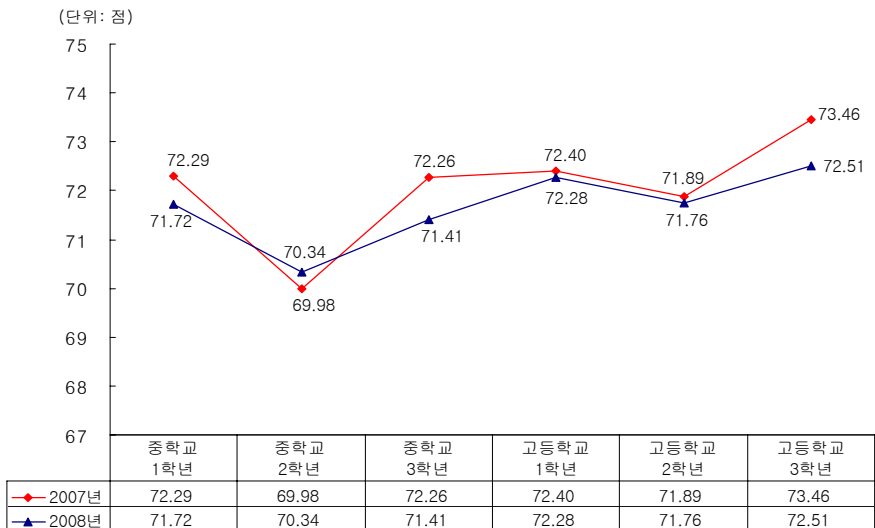
핵심 영역	세부 영역	지표항목
진로 및 직업 역량	진로 선택의 주도성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2.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3.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직업적 특성이 해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진로준비 행동	7. 나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지난 1년 동안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10. 나는 지난 1년 동안 방과 후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② 진로 및 직업역량의 하위차원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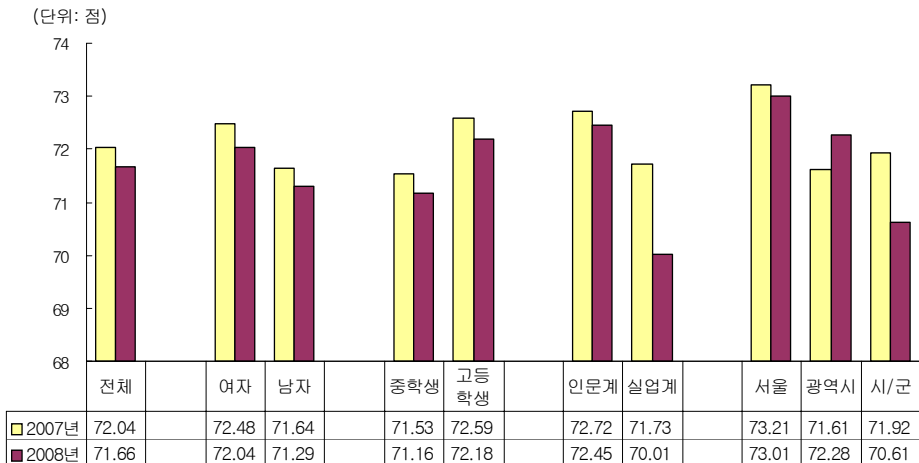
[그림 II -13] 진로 및 직업역량-하위차원별

③ 진로 및 직업역량의 하위차원별 분석결과



[그림 II -14] 진로 및 직업 역량-학년별

④ 진로 및 직업 역량의 하위차원별 분석결과



[그림 II -15] 진로 및 직업 역량-기타 변수별

⑤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진로 및 직업역량의 하위 변인들인 진로 선택의 주도성, 직업적 특성이해, 진로준비 행동의 점수를 모두 합한 진로 및 직업역량에 대한 학년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1(71.72)점수가 중2(70.34)보다 다소 높았으나, 중2부터 고3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로 및 직업역량에 대한 기타변수별 결과에서는 여자(72.04)가 남자(71.29)보다 고등학생(72.18)이 중학생(71.16)보다 높았으며, 인문계(72.45)가 실업계(70.0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분석결과에서는 서울지역(73.01)이 광역시(72.28)나 시/군 지역(70.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도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진로 및 직업적 특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0.3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이나 진로준비를 위한 노력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2007년에 비해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입직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진로 및 직업적 특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학년이 증가하더라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선택의 주도성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직업특성의 이해와 진로준비 행동에 있어서는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진로선택에 대한 책임의식은 바람직하게 발달되고 있지만,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진로준비를 위한 노력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바람직하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로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인문계고 학생들보다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적 역량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여학생과 실업계고 학생,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진로 및 직업적 특성의 하위영역 중 진로선택의 주도성이 평균 84.19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자신의 직업적 특성 이해는 70.13점, 진로준비 행동은 60.61점으로 진로선택의 주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선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 및 직업적 특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진로선택의 주도성보다는 직업적 특성이해와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 개선방안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개요
2. 각 부문별 발달지표 구성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 개선방안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개요

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발달지표의 개념은 청소년발달지표를 사회지표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관점과 청소년발달 자체의 고유한 영역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별된다. 청소년발달지표를 사회지표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관점은 청소년발달이나 육성체제가 사회체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며, 청소년발달지표 역시 사회발전을 나타내는 부분이나 요소라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후자는 청소년발달지표가 사회지표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의 특성과 변화를 나타내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한국청소년발달지표는 후자의 입장을 따라 개발된 지표이다. 즉 청소년발달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에 당면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Benson Pittman, 2001)으로 정의한 후, 청소년들의 발달이 그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현재 어느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개발된 지표이다.

한국청소년발달지표의 특징은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서는 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다시 하위영역을 선정한 후, 각 하위영역별로 관련지표들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국청소년발달지표는 2003년 지표개발 당시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을 기본틀로 삼고, 청소년발달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요인인 배경 요인을 추가하여 배경-투입-과정-산출(결과)의 순환체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체제를 기본 틀로 개발된 청소년발달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닌다. 첫째, 청소년발달지표는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실제 사용하는 자료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청소년발달지표의 내용을 변화시킬 정도로 변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청소년발달지표는 포괄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발달지표는 하나의 준거점(point of reference)을 가져야 한다. 준거점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표준 혹은 가치로서 비교의 기준이 된다. 넷째, 청소년발달지표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어야 하며 그 산출방식이 명료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발달지표는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조건들의 측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의 평균수준 뿐만 아니라, 규범적 또는 분석적 필요에 의해 세 기준별로 나뉘어 자료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발달지표는 동일한 지표의 수준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계열적으로 동일지표의 수준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체계는 안정성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산식의 변화, 삭제 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피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발달지표는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음절에서는 ‘2008 한국청소년발달지표’의 구성체계 및 현황에 대해 개관하고 2008년도에 조사된 배경, 투입, 과정, 결과영역에 해당되는 각 지표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구성 체계 현황

‘2008 청소년발달지표’는 배경, 투입, 과정, 결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확정된 『2004 청소년발달지표 체계모형』의 『배경-투입-과정-산출(결과)』의 체제를 기본 틀로 한 것이다. 기존의 원천통계자료를 토대로 지표항목을 구성한 배경, 투입, 과정 부문은 2003년과 2004년의 논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며, 결과부문은 2005년부터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2006년 확정된 지표항목이다.

청소년 발달 종합 지표는 대영역(4개)-핵심영역(22개)-세부영역(77개)으로 분류하였으며 244개 개별지표항목을 확정하였다. 대영역은 배경, 투입, 과정, 결과로 나누었으며, 핵심영역은 배경부문 2개, 투입부문은 5개, 과정부문은 9개, 그리고 결과부문은 6개로 구성하였다. 세부영역은 핵심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시설, 프로그램, 인력, 재정, 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2008년도 지표조사에서는 2004년도에 확정된 244개의 개별 지표항목 중 수집 가능한 총 83개의 지표항목을 수집하고 새로운 조사를 통하여 결과부문의 17개 지표항목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배경(9개 항목), 투입(9개 항목), 과정(54개 항목), 결과(11개 항목과 새로운 조사 17개 항목)로서 총 100개 지표항목(83개 항목 원천통계 자료 수집 + 17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2008년도에 조사된 청소년발달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각종 지표의 기준과 영역은 지표개발의 목적과 의미만큼이나 다양하다.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는 청소년정책에 활용이라는 목적을 갖고 배경, 투입, 과정, 결과라는 체제분석 접근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한국 청소년발달지표도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 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통계의 생산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도 특정 부처 중심의 청소년정책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범부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청소년발달지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발달 지표조사(3차년도)는 기존의 배경, 투입, 과정, 결과 부문으로 조사되어 제시되었지만, 향후 지표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2008 청소년지표 메타데이터(Meta Data Inventory)를 작성하고, 지표항목별로 수집된 통계자료의 주요한 표를 재구성, 가공하여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작성, 설명하여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여 총 100개의 지표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1〉 청소년발달 지표의 분류체계 및 지표항목(100개 지표항목)

대영역	핵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청소년발달 개별 지표항목
배경 (9개 지표 항목)	청소년 인구	청소년 인구현황	1-1-1-1 1-1-1-2	총인구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유형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생활여건	가정여건	1-2-1-2 1-2-1-4	부모와 자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부모의 생존 및 동거 여부
			1-2-2-1 1-2-2-3 1-2-2-5	청소년의 한달 평균 용돈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
		여가생활 여건	1-2-3-1 1-2-3-2	청소년의 여가시간 구성비 청소년의 여가유형
		청소년 기관 및 프로그램	2-2-1-1 2-2-1-2	유형별 청소년기관 수 청소년 예산 중 시설 확충비 비율
			2-2-2-1 2-2-2-2	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및 보급 건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수 및 구성비
	청소년 지도자	지도자 양성	2-3-1-1 2-3-1-2 2-3-1-4	청소년지도사 자격교부 현황 청소년상담사 자격교부 현황 전문상담교사 양성 현황
	청소년 정책 재정	정부예산	2-4-1-1 2-4-1-2	GDP 대비 청소년예산 비율 정부예산 대비 청소년예산 비율
과정 (54개 지표 항목)	청소년 활동	지도자	3-1-2-1 3-1-2-2	시설유형별 상근청소년지도자 수 및 구성비 시설유형별 상근지도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율
			3-1-2-3	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사 1인당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시설	3-1-3-1	시설유형별 청소년 수련시설 수
		재정 및 운영	3-1-5-1 3-1-5-2 3-1-5-3	시설유형별 평균 정부보조비 및 구성비 시설유형별 재정 자립율 시설유형별 연평균 이용자 수
			3-2-2-1 3-2-2-3	청소년단체별 청소년지도자 수 청소년단체지도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율
			3-2-3-1	청소년단체 수
	청소년 단체	프로그램	3-2-4-1	청소년단체별 연평균 프로그램(사업) 종수
		재정 및 운영	3-2-5-4	청소년단체 가입 청소년 수

대영역	핵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청소년발달 개별 지표항목
	청소년 복지	시설인력	3-3-2-1	청소년복지시설별 종사자 수
		시설	3-3-3-1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수
			3-3-3-2	아동복지시설 수
			3-3-3-3	청소년공부방 수
			3-3-3-4	청소년쉼터 수
			3-3-3-5	청소년인권센터 수
		재정 및 운영	3-3-5-1	청소년복지시설별 정부보조금 및 구성비
			3-3-5-2	청소년복지시설별 연평균 청소년 이용자 수
	청소년 상담	시설	3-4-3-1	지역별 청소년상담시설 수
		재정 및 운영	3-4-4-2	유형별 상담횟수 및 구성비
	청소년 교류	국가 교류여건	3-5-2-1	국가별 청소년 국제교류 약정 교류인원 수 및 구성비
			3-5-2-2	정부지원 청소년교류 사업당 참가자 수
		지자체 교류여건	3-5-3-1	지방자치단체별 외국과의 자매결연 건수 및 구성비
		재정 및 운영	3-5-7-4	연간 해외여행 청소년 수 및 구성비
	청소년 자원봉사	기관	3-6-3-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기관 수
		재정 및 운영	3-6-5-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참여율
			3-6-5-3	활동분야별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자 수 및 구성비
			3-6-5-4	활동터전별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자 수 및 구성비
	청소년 선도 및 교정	지도자	3-7-2-1	청소년 선도교정 지도자 수
		시설	3-7-3-2	비행 및 범죄청소년 교정시설 수
		재정 및 운영	3-7-4-2	비행 및 범죄청소년 교정시설별 연간예산
			3-7-4-3	비행 및 범죄청소년 단속 및 처리자 수
			3-7-4-5	비행 및 범죄청소년 교정기관별 수용청소년 수
	청소년 보호	수요도	3-8-1-2	청소년유해매체별 접촉 정도
			3-8-1-3	청소년의 음주경험 정도
			3-8-1-4	청소년의 흡연경험 정도
			3-8-1-5	학교폭력 경험률
		단체	3-8-3-1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수
		재정 및 운영	3-8-4-2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단속실적
			3-8-4-3	청소년유해매체 단속실적
			3-8-4-4	청소년유해약물 단속실적
			3-8-4-5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단속실적
			3-8-4-6	청소년성범죄자수 및 신상공개자 구성비

대영역		핵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청소년발달 개별 지표항목
결과	(11개 지표 항목)	학교 교육	기회	3-9-1-1	학교급별 학생 수
				3-9-1-2	학교급별 취학률
				3-9-1-3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교원	3-9-2-1	교사에 대한 만족도
				3-9-2-2	지역별 전문상담순회교사 수
			시설	3-9-3-1	학교급당 학생 수
				3-9-3-2	각종체육시설 보유 비율
				3-9-3-4	대안학교 수
			재정	3-9-4-1	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 비율
	(17개 지표 항목) 13)	신체적 건강	체격	4-1-1-1	청소년 신장
				4-1-1-2	청소년 체중
			체력	4-1-2-1	50m 달리기
				4-1-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 팔굽혀매달리기)
				4-1-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4-1-2-4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4-1-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4-1-2-6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신체 건강			4-1-3-1	질병율	
		4-1-3-2	영양상태		
	4-1-3-3	비만율			
정의적 특성	자아개 념	4-2-1	자기 자신에 대한 조직화된 지각 또는 객체로 서의 자신에 대한 개인의 사고와 느낌의 총체성		
	행복감	4-2-2	즐겁고, 희망적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이 적은 상태로써 스스로 느끼는 정서적 상태		
	목표 지향성	4-2-3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참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행동의 의지체계		
	인지적 특성	창의성	4-3-1	창의적 사고기능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성 취를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의적 또는 태도적 특성	

- 13) 직접적인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지표항목임. 핵심영역인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직업적 역량에 대한 17개의 세부영역은 2006년 조사와 2007년 본 조사를 통해 확정되었음.

대영역	핵심영역	세부영역	고유번호	청소년발달 개별 지표항목
	인지적 특성	학습 준비도	4-3-2	자기주도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나 정도
		문제해결 능력	4-3-3	문제 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상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시키는 장애물을 해소시키는 활동능력
	사회적 역량	사회적 신뢰감	4-4-1	타인이 자신을 해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믿음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4-4-2	개인간의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능력
	시민적 역량	인권의식	4-5-1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태도	4-5-2	모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정도
		공동체 의식	4-5-3	지역 공동체 속에서 주민성(local citizenship)과 세계화 시대의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정체 의식
		국제화 의식	4-5-4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시각과 열린 사고를 갖고 열린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
		사회참여 의식	4-5-5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권리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건전한 소비의식	4-5-6	청소년들의 소비활동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로서 물건의 직접적인 효용과 비용과의 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노력
	진로 및 직업적 역량	진로선택 주도성	4-6-1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주체적 사고
		직업적 특성이해	4-6-2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
		진로준비 행동	4-6-3	자신의 미래진로를 위한 현재의 노력

2. 각 부문별 발달지표 구성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배경, 투입, 과정 지표구성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배경, 투입, 과정 지표구성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2008년 청소년발달지표 조사과정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워크숍 개최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발달 지표는 자료의 객관화 가능성에 따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분류는 Campbell과 Converse(1972)의 분류에 기초한 것으로서, 객관적 지표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제 조건을 측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측정의 대상이 된다. 반면,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느낌(subjective feeling)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반 시설 및 자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태도의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

객관적 지표는 기존의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비가 저렴하며, 정부와 지방단위의 통계 상호간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느낌과 같은 주관적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상호 교차시키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표 III-2>에서 청소년발달지표의 지표유형, 자료확보방법, 지표 분류등 주요 특성을 알 수 있다. 2003년부터 2004년 연구에서 청소년발달지표로 개발된 지표항목은 총 244개이다. 이중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객관적 지표 83개, 주관적 지표 17개 등 총 100개의 지표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III-2> 2004 청소년발달지표(안)의 주요특성별 분포현황

구 분		청소년개발의 체제				소계
		배경부문	투입부문	과정부문	결과부문	
전체지표수		26	21	142	55	244
지표유형	객관적 지표	17	21	102	39	179
	주관적 지표	9	-	40	16	65
자료 확보방법	기 존 자 료	13	13	49	11	86
	기존 + 신규	-	-	25	-	25
	신 규 조 사	13	8	68	44	133
지표분류	주 요 지 표	15	17	97	55	184
	보 조 지 표	11	4	45	-	60

출처: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p.83.

<표 III-3>에서는 청소년발달지표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조사방법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83개의 객관적 지표는 원천통계자료 수집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메타데이터를 제시하여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17개의 주관적 지표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 III-3> 한국 청소년발달지표(1-3차년도) 조사의 성격

구 분	조사방법	특 징
객관적 지표 (83개 지표항목 ¹⁴⁾)	원천통계 자료수집을 통한 조사	- 메타데이터(MDI) 제시 (연도별로 같은 개념의 지표항목일지라도 자료원, 조사주기, 조사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제시하고 지표에 맞도록 통계표를 가공하여 제시함) - 지표항목별 개념의 수준차 (하나의 지표항목에 통계표가 1개인것도 있지만 지표항목의 복합적 개념수준에 따라 6개의 통계표로 구성된 것도 존재함)
주관적 지표 (17개 지표항목)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	- 조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양질의 자료생산 -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과정의 오류를 축소화함 - 추가수요지표로서 문화자본지표 개발
계		총 100개 지표항목

<표 III-4>에서는 청소년발달 지표(1-3차년도)의 조사과정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조사과정에 대한 분석은 지표항목의 조사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2006년-2008년 현재까지 3차년도에 걸쳐 조사된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표의 개선과제를 분석하였다.

<표 III -4> 청소년발달지표(3차년도) 조사과정 분석을 위한 Framework

구 분		조사과정 분석내용
지표항목의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타당성	지표개념 상의 지표영역과 용어개념	○ 지표체계와 영역의 문제점
		○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용어개념
		○ 용어개념이 변경된 지표항목
		○ 개념논의가 필요한 지표항목
지표항목의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신뢰성	수집과정 상의 조사주기, 자료원 등 MDI 구축	○ 원천통계 조사주기 및 계속여부
		○ 원천통계 자료원
		○ 메타데이터(Meta Data Inventory) 구축
지표의 개선과제	청소년종합통계시 스템 구축/ 청소년지수개발	○ 새로운 영역의 청소년발달지표 개선안
		○ 핵심지표선정의 근거제시
		○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제시
		○ 청소년지수개발을 위한 시사점 제시

<표 III-5>에서는 연도별 청소년발달지표의 조사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006년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생산(1차년도)은 배경, 투입, 과정 부문의 원천통계 자료 수집 및 새로운 조사를 통한 결과부문의 지표항목을 확정하였다. 2007년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생산(2차년도)은 1차년도에 이은 2차년도 자료를 축적하고, 개별지표 항목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 Data Inventory)를 구축하여 지표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2008년 청소년발달지표의 조사과정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3차년도 지표 자료조사(83+17=100로 객관적 지표 83개와 주관적 지표 17개를 합하여

14) 2003년에서 2004에 구성된 244개의 지표 항목 중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83개 지표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총 100개의 지표항목을 조사), 이용자 중심의 가독성, 시계열적 변화 추이 가능하도록 축적된 표 제시, 용어개념의 설명 보완, 기존의 원천통계 표 가공, 핵심지표 선정의 근거를 마련, 개별지표항목에 대한 2008 메타데이터(MDI) 구축, 문화자본지표 추가개발 탐색,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이다.

<표 III-5> 연도별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조사과정

2006년	2007년	2008년
1) 1차년도 지표자료조사 (83+16=99개) 2) 배경, 투입, 과정 부문의 원천 통계 자료수집 (83개 개별지표항목) 3) 결과부문의 측정도구 확정(17개 개별지표항목)	1) 2차년도 지표자료조사 (83+17=100) 2) 개별지표항목에 대한 2006 메타데이터(MDI) 구축 3) 결과부문의 조사대상 확대 4)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의 국제화 및 네트워크 마련	1) 3차년도 지표자료조사 (83+17=100) 2) 이용자 중심의 가독성 3)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4) 문화자본지표 추가개발 탐색 5) 시계열적 변화 추이 가능하도록 축적된 표 제시 6) 용어개념의 설명 보완 7) 기존의 원천통계 표 가공 8) 핵심지표 선정의 근거를 마련 9) 개별지표항목에 대한 2008 메타데이터(MDI) 구축

2008년도의 청소년발달지표 조사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지표 조사과정의 주요한 특징은 이용자 중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2006년 지표는 1차년도 조사로서 자료의 수집과 생산에 집중하였으며, 2007년 2차년도 지표는 기존의 수집된 지표항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산출하는 항목의 자료를 누적하고 MDI를 구축하여 각 항목의 활용성을 높였다.

2008년 지표는 1)용어개념, 2)조사기관, 3)표와 그래프, 4)지표항목별 표 설명 순으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2007년까지 본문에 서술하였던 MDI는 별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07년까지는 각 영역별 중요지표를 선별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던 것을 2008년 지표에서는 각 표에서 그래프로 형

성화 할 수 있는 모든 표를 그래프를 삽입하였으며, 표와 그래프를 토대로 비율, 구성, 변화추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가독성을 위하여 편집설계와 내용면에서도 <표 III-4> 및 <표 III-5>와 같이 지표자료 집과 통계자료집의 차이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둘째, 2008년 지표는 2006년과 2007년에 축적된 자료와 금년에 새로이 조사된 데이터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 추이가 가능하도록 지표항목의 표 구성을 최대한 연도별로 수정·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1차년도, 2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해당 년도의 체격과 체력 검사 현황만을 제시하였으나, 3차년도 보고서는 원천통계 자료원의 조사가 시작된 시점의 체격과 체력 검사현황을 함께 제시하여 청소년의 신체 및 체력의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표항목 용어개념의 설명을 보완하였다. 개별 지표항목에서 가정 먼저 서술되는 용어개념 부문에서는 3차년도의 걸친 조사기간 동안 변경된 용어개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지표항목과 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지표내용을 서술하였다. 또한 표 설명에서는 용어개념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지표항목에 대한 역할, 기능, 법적의미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지표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 부여를 하였다. 통계자료에 나타난 기관들의 법적 지위 및 역할, 기능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넷째, 지표항목의 용어개념에 적합한 표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현황 중심의 표 제시에서 벗어나 구성과 비율을 알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표로 가공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 지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 발달지표 중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2008년 한국 청소년지표 조사과정 분석에서 파악된 타당성, 지표항목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신뢰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지표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새로운 영역의 청소년발달지표를 위한 개선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영역의 청소년발달 지표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의견조사(2008. 3. 21. 금)

는 6차년도 연구년도에 따른 청소년발달 지표조사연구에 대한 과정,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성, 내용, 방법에 대한 자문으로서 진행되었다. 1차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는 첫째, 기존 청소년통계와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적 횡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생산 필요, 둘째, 현 지표체계의 배경, 투입, 과정, 결과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입증이 어려움으로 새로운 지표체계 개선이 필요, 셋째, 현 지표체계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핵심지표를 제시하여 이후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수화 작업으로 연결, 활동지수, 복지지수(청소년건강지수 등), 이탈지수(유해환경지수 등), 정책발전지수, 행복지수, 문화자본지수, 직업역량지수, 시민역량지수 등으로 수렴되었다.

2차 전문가의견조사(2008. 4. 25. 금)는 새로운 청소년발달지표의 발전적 자체 개선안 논의로서 첫째, 새로운 아동청소년지표의 발전적 개선안을 위하여 외부환경에 의한 개선방향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실제 필요한 독특한 청소년정책에서의 지표체제를 구성하는 일이 중요, 둘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자료 단위와 조사주기, 메타자료의 성격이 다름으로 분리하여 향후 지수화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 셋째, 객관적 지표의 경우 새로운 지표구성안으로서 8개의 영역으로 제시하고 8개 영역별로 83개의 지표영역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함, 넷째, 83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영역 구분(안)은 1) 배경(인구, 가족, 생활여건, 경제활동, 교육 등), 2)활동, 3)복지, 4)비행/이탈(안전 보호), 5)건강(정신, 신체), 6)인권 참여, 7)직업, 진로 혹은 경제활동 참여(일, 노동), 8) 정책추진인프라 등으로 수렴되었다.

청소년발달지표의 개발 목적과 의미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발달 지표도 체제분석접근 모형을 이용하여 배경, 투입, 과정, 결과로 영역과 세부영역을 선정하여 개별지표항목을 생산해 왔지만 투입과 결과 영역의 인과성을 찾을 수 없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련성이 없어 애초 목적으로 한 지표생산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청소년발달의 다각적인 접근성에 대한 시도로서 청소년분야의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1, 2차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발달 지표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을 수립하였다<표 III-6>. 이는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청소년통계체제 구축과 청소년지수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기초논의로 볼 수 있다.

<표 III -6>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한 청소년발달 지표 개선안

1차 개선안 내용	2차 개선안 내용
○ 지표체계의 재구성 ○ 핵심지표의 선정 ○ 정책적 활용을 위한 지수개발	○ 청소년고유의 지표체계구성 ○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지수화할 수 있는 핵심지표 생산 ○ 8개 영역의 지표개선안
① 활동지수 ② 복지지수(청소년건강지수 등) ③ 일탈지수(유해환경지수 등) ④ 정책발전지수 ⑤ 행복지수 ⑥ 문화자본지수 ⑦ 직업역량지수 ⑧ 시민역량지수	① 배경(인구, 가족, 생활여건, 경제활동, 교육 등) ② 활동 ③ 복지 ④ 비행/일탈(안전, 보호) ⑤ 건강(정신, 신체) ⑥ 인권 참여 ⑦ 직업, 진로, 경제활동 참여(일, 노동) ⑧ 정책추진 인프라

지금까지 청소년발달지표(1-3차년도)의 실제 조사사례의 조사과정 분석을 통하여 지표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통계생산과 지표생산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의 개선안과 핵심지표 선정의 근거를 제공하여 이후 청소년통계체제 구축과 청소년지수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발달지표 조사과정 분석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항목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타당성 분석은 지표체계와 영역의 문제점, 현실적으로 수집가능한 용어개념, 용어개념이 변경된 지표항목, 개념논의가 필요한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표항목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타

당성 논의를 통하여 핵심지표를 선정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이나 관점에 따라 지표의 개념이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지표항목 보다는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의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표항목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신뢰성 분석은 메타데이터(Meta Data Inventory) 구축 내용을 중심으로 원천통계 조사주기 및 계속여부, 지표항목별 자료원 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지표항목의 조사주기 및 조사 계속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해 본 결과, 지표생산의 안정성이 보이는 건 강한 지표는 2008년 현재 83개의 객관적 지표 중 매년 조사 가능한 지표는 약 49개로 나타났다. 17개의 주관적 지표는 매년 조사가능하다고 봤을 때 100개의 지표항목 중 총 66개의 지표항목이 매년 조사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기적 조사주기의 지표항목과 조사주기가 복합적인 지표항목은 자료생산의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 시설별 조사통계는 지표개념 자체가 복잡적이며 다양한 자료원이 존재함으로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통계 자료원의 선정기준은 공신력 있는 전문조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인 경우와 지표항목 용어개념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생산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원천통계 자료원을 통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문제점은, 대부분 정기적인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 통계 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해결방법은 원천통계를 제공하는 해당기관들과의 원천통계 제공과 생산내용에 대한 공식적이며 지속적인 협조 및 연계이다. 즉 2006년과 2007년의 조사 설계와 조사항목의 개념과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관련 기관들에게 메타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통계(행정자료)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행정자료 형태로서, 공무원의 필요에 의하여 조사되는 현실이라 체계적인 통계자료수집 및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통계조사에 대한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표항목 조사과정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영역의 지표 개선안, 핵심지표 선정의 근거,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청소년지수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발달 지표조사(3차년도)는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2008 청소년지표 메타데이터(Meta Data Inventory)를 작성하고, 지표항목별로 수집된 통계자료의 주요한 표를 재구성, 가공하여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작성, 설명하여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발달 지표조사(1-3차년도)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표의 현황과 과제라는 워크숍을 개최(9.2)함으로써 실제 지표활용을 통한 차후 청소년지표의 개선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결과부문 지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발달지표 결과부문 지표체계의 유용성

청소년 발달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향후 청소년 정책수립과 방향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연구주제이다. 지표 연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지표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청소년관련 각종 지표연구를 포함한 통계자료는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내용도 단순히 행정통계만을 다루어 왔다.

예컨대 청소년백서는 청소년통계관련 자료를 매년 제시해 왔으나, 통계청,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등의 공식통계자료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수집,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고, 청소년 행정자료만을 분석하여 제시하는데 그쳤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 관련지표로 청소년 부처에서 시행되어 왔던“청소년 보호지표”,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 “청소년 폭력실태 조사”, “청소년 음주 실태 조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전국청소년생활실태조사”등과 같은 연구는 1-2년의 단발적인 조사연구나 비정기 실태조사 혹은 기초 지표개발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행하였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의 경우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차에 걸쳐 3년마다 조사하였고, 2006년도부터

는 매년조사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문항이나 표집방법, 조사시점 등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또한 단순한 실태를 조사하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유해환경 접촉과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도구와 연구방식으로는 청소년 개발 혹은 발달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체계 중 결과부문은 이런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절차로 먼저 2005년도에 개발된 측정도구의 전면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문제시되었던 측정영역에 대한 문항의 적절성, 내적일관성, 각 영역의 요인구조 등의 문제점을 2006년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수정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2007년도와 2008년도 연구를 통해 기 개발된 측정도구로 한국 청소년들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적 역량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노력은 향후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과부문 지표체계의 제한점 및 개선방안

결과부문의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과 측정도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의 경우 최초 개발 당시 전통적으로 교육지표에서 사용되는 체제분석적 접근법(system analysis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서는 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다시 하위영역을 선정한 후 각 하위영역별로 관련지표들을 산출해 내는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Johnstone(1981)은 교육체제를 투입, 과정, 산출영역으로 나누고, 교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의 과거틀(framework)과 교육의 산출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사회의 미래들을 포함시켜 교육지표체제 개발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외에 MacRae(1985)는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모형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변인,

투입변인, 과정변인, 산출변인의 네 개의 변인군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1988)에서는 교육지표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분석모형을 교육의 배경, 교육조건, 교육결과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 발달지표의 근간이 된 2003년도 청소년 개발지표의 경우 Benson & Satio(2001)의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을 청소년개발의 이론적 개념틀로 설정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개발의 이론적 개념들을 크게 배경부분과 투입부분, 긍정적 발달 촉진요인, 결과부분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즉 배경부분은 청소년개발의 투입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배치하고, 투입부분에는 프로그램, 조직, 사회화제도, 지역사회 등의 청소년발달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장(setting)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지표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긍정적발달 촉진요인은 향후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자산(asset)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속감, 연대성, 지지획득, 정체감, 효능감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결과부분은 청소년개발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단기적, 장기적 결과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전제로 2003년도에 개발된 청소년개발지표 지표체계 모형(한국청소년개발원, 2003)은 체제분석적 접근방법에 의해 각 하위영역인 투입→과정→산출(결과)을 기본틀로 청소년개발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요인인 배경요인을 추가하여 배경→투입→과정→산출(결과)의 순환체제를 설정하여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청소년개발지표의 경우 청소년 고유의 특성을 살려 청소년개발체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설정하였다는 점과 체제분석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결과부분에 해당되는 5가지 측정영역(정의적, 인지적 특성,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적 역량)을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표체계로 운영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투입→과정→결과로 이어지는 지표체계에 있어 투입과 산출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이유로 배경, 투입, 과정에 해당되는 지표의 경우 조사가 어려운 지표항목들이 있으며, 조사

가능 지표항목이라 하더라도 2차 자료를 가공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사방법의 경우 원자료(raw data)가 얼마나 신뢰로우며, 타당한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 있지만, 각 행정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한 조사결과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설문문항이나 표집방법, 조사시점 등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분석방법과 목적이 달라 청소년 발달지표에서 지향하는 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결과부문은 핵심영역 단위별로 청소년의 태도나 의식을 조사하여 측정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역에 대한 태도나 의식만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관적 지표와 함께 청소년들의 실제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의 시급성, 시의성 및 정책적 활용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결과부문에 해당되는 지표영역의 경우 청소년발달의 이상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기에 실제적인 정책적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제한점을 요약해 볼 때 결과부문에 해당되는 지표영역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지표개발과, 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는 결과부문 영역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추가적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활용도가 높으며, 시급성과 시의성을 고려한 추가 수요지표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절에서는 향후, 청소년지표로서 필요한 추가수요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추가수요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① 조사개요

추가 수요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은 교수(10명), 지표관련 전문가(2명), 정책 담당공무원(3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차에 걸쳐 E-mail를 통해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결과부문 지표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추가수요지표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하였고, 2차 조사는 추가수요지표를 중심으로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객관식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2차 조사에 대한 응답은 1차 조사를 통해 객관식 문항으로 재구성한 질문지에 정책 활용도, 학술적 기여도, 시급성 및 시의성 측면에서 각각 해당 지표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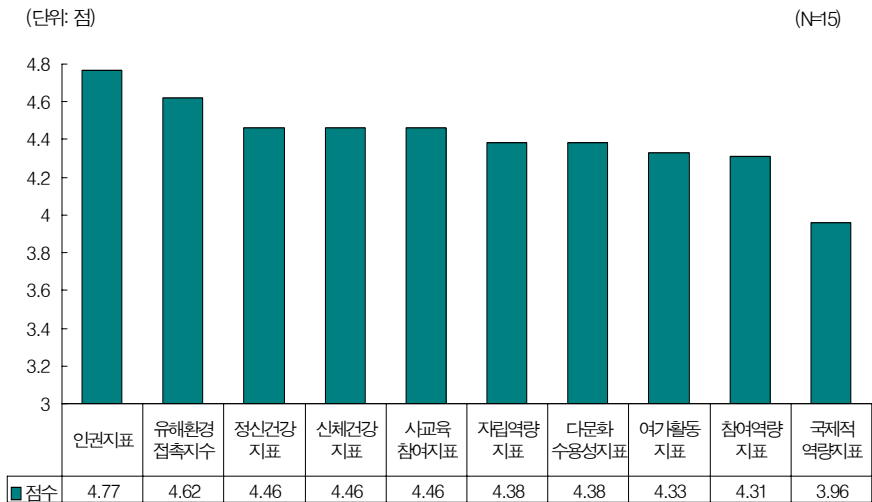
② 조사결과

먼저 정책활용도 측면을 보면 인권지표(4.77)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유해환경 접촉지표(4.62)가 두번째로 개발이 필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는 정신건강 지표(4.46), 신체건강(4.46), 사교육 참여지표(4.46), 가동일한 점수분포를 보였고, 자립역량 지표(4.38), 다문화 수용지표(4.38), 여가활동지표(4.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술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사회성 역량지표(4.38)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문화 수용성지표(4.31), 정신건강 지표(4.10), 사회적 관계 지표(4.08), 순으로 점수 분포를 보였다.

시급성 및 시의성 측면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결과를 보면, 주요 지표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시급성 측면에서 다문화 수용성 지표(4.46), 유해환경 접촉지표(4.23), 신체건강 지표(4.23), 인권지표(4.23), 정신건강지표(4.21), 사교육 참여지표(4.15), 자립역량 지표(4.0)가 주요한 필요개발 지표라는 결과가 나왔고, 시의성 측면에서도 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 상위순위를 보인 주요지표항목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책활용도, 학술적 기여도, 시급성 및 시의성 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점수를 합한 결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 지표(4.3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신건강 지표(4.36), 인권지표(4.18), 자립역량 지표(4.1), 신체건강 지표(4.05), 유해환경 접촉지표(4.03)가 주요한 추가 수요지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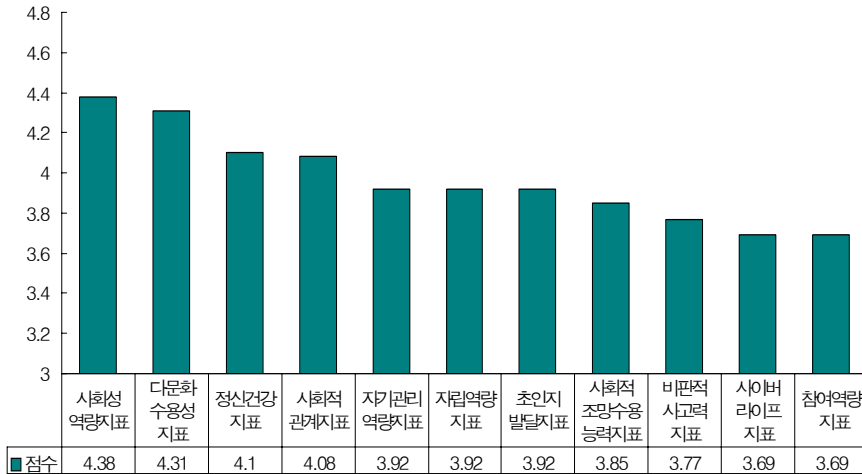
[그림 III-1] 추가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정책 활용도(주요지표)

<표 III-7>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정책 활용도(전체)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1	인권지표	4.77 (0.43)	10	국제적 역량지표	3.96 (0.69)	19	사회적 관계지표	3.46 (0.96)
2	유해환경 접촉지표	4.62 (0.65)	11	사회성 역량지표	3.92 (1.11)	20	사회적 성공 기대감지표	3.31 (0.85)
3	정신건강 지표	4.46 (0.77)	11	사이버 라이프지표	3.92 (0.95)	20	환경보호 의식지표	3.31 (0.94)
3	신체건강 지표	4.46 (0.66)	11	성의식 지표	3.92 (1.03)	22	사회적조망 수용능력지표	3.15 (1.14)
3	사교육 참여지표	4.46 (0.78)	14	공공의식 지표	3.85 (1.06)	23	비판적 사고력지표	2.92 (0.95)
6	자립역량 지표	4.38 (0.65)	14	정보화 역량지표	3.85 (1.14)	23	에너지 절약 의식지표	2.92 (0.64)
6	다문화 수용성 지표	4.38 (0.91)	16	지도자적 역량지표	3.69 (0.72)	23	초인지 발달 지표	2.92 (0.63)
8	여가활동 지표	4.33 (0.47)	17	자기관리 역량지표	3.62 (0.68)			
9	참여역량 지표	4.31 (0.85)	18	성숙지표	3.54 (0.96)			

(단위: 점)

(N=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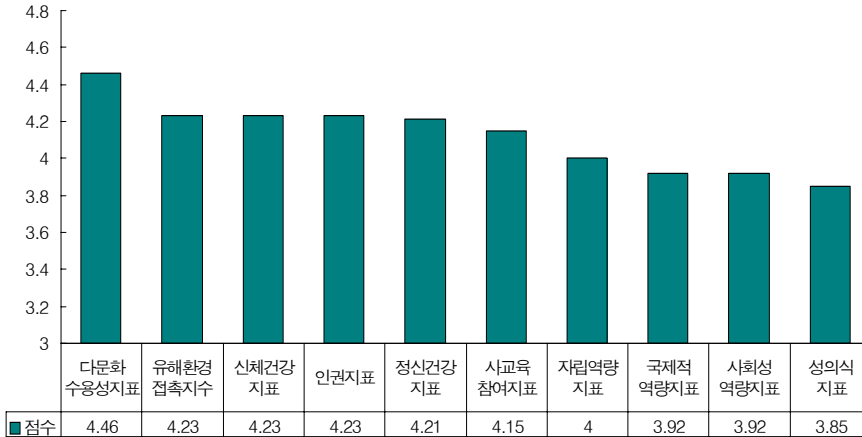
[그림 III-2]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학술적 기여도(주요지표)

<표 III-8>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학술적 기여도(전체)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1	사회성 역량지표	4.38 (0.76)	10	사이버 라이프지표	3.69 (1.10)	16	여가활동 지표	3.54 (0.96)
2	다문화 수용성지표	4.31 (0.63)	10	참여역량 지표	3.69 (0.75)	16	신체건강 지표	3.54 (0.77)
3	정신건강 지표	4.10 (0.61)	12	인권지표	3.62 (0.96)	16	유해환경 접촉지표	3.54 (0.96)
4	사회적 관계지표	4.08 (0.86)	12	국제적 역량지표	3.62 (0.87)	22	공공의식 지표	3.46 (1.12)
5	자기관리 역량지표	3.92 (0.76)	12	성숙지표	3.62 (0.87)	22	사교육 참여지표	3.46 (0.96)
5	자립역량 지표	3.92 (0.86)	12	사회적 성공 기대감지표	3.62 (0.96)	22	환경보호 의식지표	3.46 (1.05)
5	초인지 발달 지표	3.92 (1.08)	16	정보화 역량지표	3.54 (0.87)	25	애니멀 복지 의식지표	3.42 (0.70)
8	사회적조망 수용능력지표	3.85 (0.89)	16	성의식 지표	3.54 (0.87)			
9	비판적 사고력지표	3.77 (0.72)	16	지도자적 역량지표	3.54 (1.19)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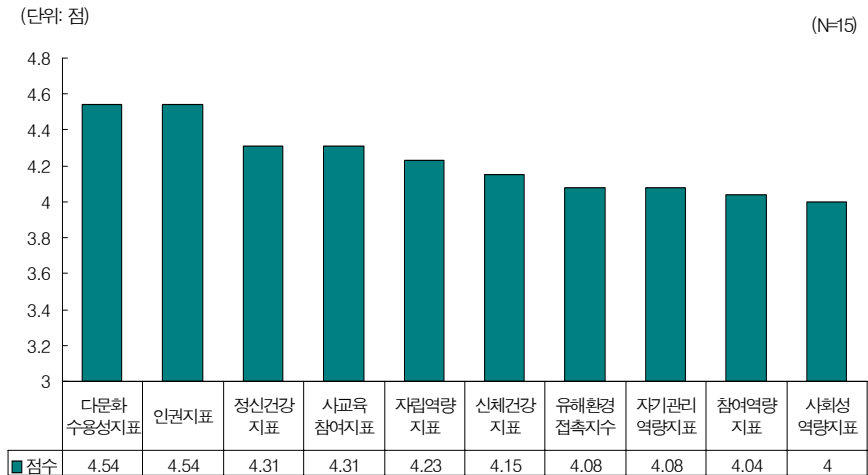
(N=15)



[그림 III-3]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시급성(주요지표)

<표 III-9>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시급성(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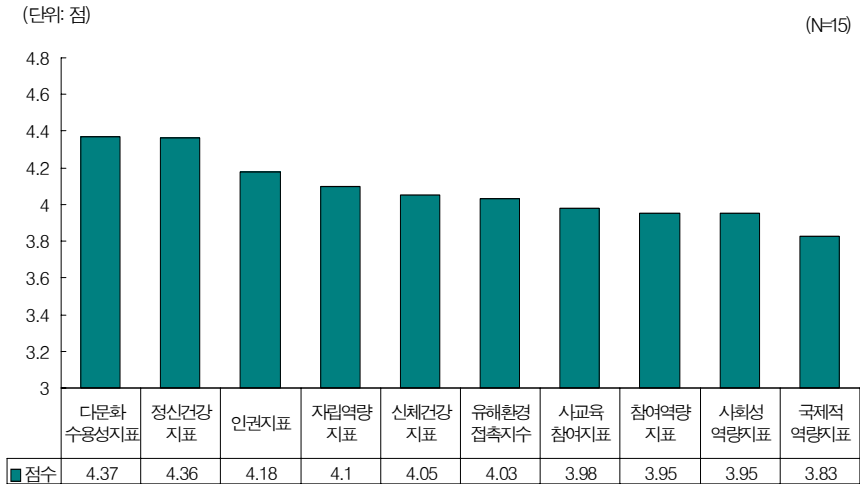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1	다문화 수용성지표	4.46 (0.66)	10	성의식 지표	3.85 (1.10)	19	지도자적 역량지표	3.31 (0.85)
2	유해환경 접촉지표	4.23 (0.83)	11	여가활동 지표	3.77 (0.83)	19	비판적 사고력지표	3.31 (1.03)
2	신체건강 지표	4.23 (0.92)	12	공공의식 지표	3.69 (0.94)	21	환경보호 의식지표	3.27 (0.76)
2	인권지표	4.23 (0.83)	13	사이버 라이프지표	3.58 (0.70)	22	사회적 성공 기대감 표	2.92 (0.64)
5	정신건강 지표	4.21 (0.63)	14	성숙지표	3.54 (0.75)	23	사회적조망 수용능력지표	2.85 (0.89)
6	사교육 참여지표	4.15 (0.98)	14	사회적 관계지표	3.54 (1.12)	24	초인지 발달 지표	2.69 (0.85)
7	자립역량 지표	4.0 (1.0)	16	자기관리 역량지표	3.46 (1.05)	25	애니멀 절약 의식지표	2.62 (0.65)
8	국제적 역량지표	3.92 (1.11)	17	참여역량 지표	3.38 (0.87)			
8	사회성 역량지표	3.92 (1.11)	17	정보화 역량지표	3.38 (0.87)			



[그림 III-4]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시의성(주요지표)

<표 III-10>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시의성(전체)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1	다문화 수용성지표	4.54 (0.51)	10	사회성 역량지표	4.0 (1.0)	17	지도자적 역량지표	3.38 (0.96)
1	인권지표	4.54 (0.66)	11	공공의식 지표	3.62 (0.71)	20	비판적 사고력지표	3.18 (0.66)
3	정신건강 지표	4.31 (0.85)	11	성의식 지표	3.62 (1.12)	21	사회적 성공 기대감지표	3.15 (0.80)
3	사교육 참여지표	4.31 (0.75)	11	여가활동 지표	3.62 (0.96)	22	환경보호 의식지표	3.08 (0.64)
5	자립 역량 지표	4.23 (1.01)	14	사이버 라이프지표	3.58 (0.70)	23	사회적조망 수용능력지표	3.00 (0.91)
6	신체건강 지표	4.15 (0.89)	15	국제적 역량지표	3.54 (0.97)	24	에너지 절약 의식지표	2.92 (0.64)
7	유해환경 접촉지표	4.08 (0.95)	16	정보화 역량지표	3.46 (0.77)	25	초인지 발달지표	2.85 (0.68)
7	자기관리 역량지표	4.08 (0.95)	17	성숙지표	3.38 (0.76)			
9	참여역량 지표	4.04 (0.80)	17	사회적 관계 지표	3.38 (0.87)			



[그림 III-5]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종합(주요지표)

<표 III-11> 추가 수요 지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_종합(전체)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순위	항 목	M(SD)
1	다문화 수용성지표	4.37 (0.95)	10	국제적 역량지표	3.83 (1.01)	19	자기관리 역량지표	3.55 (0.66)
2	정신건강 지표	4.36 (0.63)	11	여가활동 지표	3.82 (0.76)	20	비판적 사고력지표	3.3 (1.12)
3	인권지표	4.18 (0.87)	12	사이버 라이프지표	3.8 (0.89)	20	사회적 성공 기대감지표	3.3 (0.62)
4	자립역량 지표	4.1 (0.87)	13	성의식 지표	3.77 (0.77)	22	사회적조망 수용능력지표	3.2 (0.72)
5	신체건강 지표	4.05 (0.92)	14	공공의식 지표	3.72 (0.64)	23	초인지 발달 지표	3.1 (0.96)
6	유해환경 접촉지표	4.03 (0.96)	15	정보화 역량지표	3.62 (1.01)	24	환경보호 의식지표	2.87 (0.77)
7	사교육 참여지표	3.98 (0.84)	16	사회적 관계지표	3.6 (0.98)	25	에너지 절약 의식지표	2.68 (0.64)
8	참여역량 지표	3.95 (0.96)	16	지도자적 역량지표	3.6 (0.77)			
8	사회성 역량지표	3.95 (0.96)	18	성숙지표	3.57 (0.62)			

(4) 결과부문 지표체계 개선방안 논의 및 제언

청소년발달지표는 청소년발달지표 지표체계가 추구하는 목적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해야 할 것이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안정적이고 일관성(consistency)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이 수시로 변화되는 기존의 배경, 투입, 과정에 해당되는 지표항목들은 제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지표들이 생산되고 개발된다면, 조사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실제조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지표는 실용성(practicality)이 있어야 한다. 즉 정책 입안자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청소년들의 태도, 가치관 및 행동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지표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지표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앞서 제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가족과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용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립역량과,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의 추가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에 따른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의 개발도 요구된다. 이 외에도 수시로 시급하고, 시의성이 있으며, 정책적 실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지표 개발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계속성(consistency)이다. 지표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개별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여 그 변화추세를 검토하는 데 있다. 만일 개별지표를 수시로 수정·변경하거나, 1-2회의 단발성 조사로 끝난다면 지표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 개발된 지표항목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IV.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및 청소년 행복지수

1.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2.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IV.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및 청소년 행복지수

1.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¹⁵⁾

1) 서론

(1) 연구의 배경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청소년은 한 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청소년들이 더 없이 바르고, 건전하게 행동함으로서 그들에게 맡겨질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사회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기르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최근에 청소년을 둘러싼 각종 여건은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세계화를 통한 세계 각종 문화의 유입과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은 우리사회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특성도 변화하고, 근간을 이루어 왔던 제도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노령인구의 비율, 이혼율과 자살률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가족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남에 따라 그 변화속도나 내용이 더욱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이전에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점점 다른 제도나 조직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장현섭, 1993; 한남제, 1997; 김현옥, 2002).

입시위주의 교육방식,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향락퇴폐 소비문화,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부족 등 사회적

15) 이 연구는 이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배영 교수(숭실대학교), 최셋별 교수(이화여자대학교)에 의해 수행되었음.

환경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이러한 욕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 감성적이다(이명진, 2006). 이러한 감성적인 욕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역이 바로 문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나 태도 등을 연구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와 육성 문제를 보다 다양하게 접근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를 넘어선 현상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청소년 육성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2) 청소년과 문화 활동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다. 이후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과학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를 정의하는 경향이 크다.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과 문화 활동을 쉽게 분리할 수는 없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정보통신기기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 활동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오늘날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있어 휴대폰은 적지 않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청소년의 휴대폰 소지가 단순히 경제적 비용의 용이함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휴대폰은 기성세대에게는 휴대용 전화기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청소년 세대에겐 휴대폰은 이동전화이자 알람시계이고, 패션인 동시에 전자수첩이다.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아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커뮤니티는 결국 문화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른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일방적으로 유통되고 수용되어 온 청소년 생활양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하중원·백옥인, 1998).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국내외 사회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관한 연구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생활양식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과 문화 활동 사이에 유기적 친화성이 있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화 활동의 수혜자이거나 참여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창조자이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지표개발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의 문화 활동에 대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이러한 현실파악을 통해 청소년 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사회전체로 확산시키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지원을 유도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특히 이 조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 활동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자본이란 보다 이론적인 틀을 동원하여 청소년 육성이라는 목적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시험조사와 평가를 통해 적용된 산출방식을 보다 여러 학교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는 장래에 실시될 대규모 조사연구에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각종 청소년문제의 한 가지 특징은 그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동시에 조사하고자 한다.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안

밖의 문화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문화자본 일반론

청소년들의 문화자본을 위한 지표개발을 위한 기본 작업으로 부르디외(Bourdieu)의 문화자본론 또는 문화재생산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르디외의 이론과 그 이론의 수용 및 발달 과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이론의 수용 및 발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의 목적이 문화자본의 양적 측정도구를 개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문화자본의 양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한 이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킨 미국사회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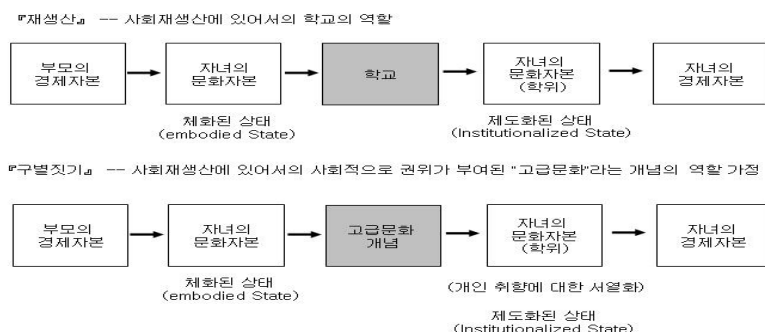
①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

문화재생산 또는 문화자본 개념으로 특징 지워지는 부르디외의 이론은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부르디외 특유의 박식함과 난해함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특히 그의 자본개념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구분에 베버주의적 지위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계급분석에 있어 이정표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되며, 노동계급문화론 이후 주요관심사에서 멀어졌던 계급과 문화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사회에는 1990년대 초부터 그의 이론에 대한 소개 형식의 많은 논문, 책들(현택수, 1994, 2001; 현택수 외, 1998; 홍성민, 2000; 2004)과 더불어 번역서들이 출판되었으며, 지금 현 시점에 들어서서는 학문의 장에서는 더 이상 부르디외의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나 아비투스, 장,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같은 그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부르디외는 자신의 자본 개념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 설명하고 있는 「자본의 형태(The Forms of Capital)」라는 논문에서, 기존의 경제이론의 획일적인 자본 개념을 비판하면서, 계급 재생산의 진정한 메커니즘은 세 가지 형태의 자본, 즉 계급 구조의 기본이 되는 ‘경제 자본’과 이를 바탕으로 생성되고 또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화 자본’ 그리고 ‘사회 자본’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Bourdieu, 1986: 242). 이 중에서 문화 자본은 다시 ‘외적인 부(경제적 자본)’가 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아비투스(habitus)’의 형태로 취향이나 태도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체화된 상태(embodied state)’와 이러한 체화된 문화 자본이 없으면 향유하기 어려운 문학, 예술 작품 같은 ‘객체화된 상태(objectified state)’, 그리고 학위처럼 체화된 문화 자본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여 객관적인 것으로 변화된 ‘제도화된 상태(institutionalized state)’의 세 가지 형태로 세분된다. 또한 사회 자본은 “상호적인 친분, 안면 등 어느 정도 제도화된 관계들의 지속성 있는 연계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 가능성이 있는 자원들(경제, 문화 자본)의 총체(Bourdieu, 1986: 248)”로, 이는 근본적으로 특정한 행위자들이 상호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객관적 동질성(objective homogeneity)에 근거한다. 따라서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의 소유는 장기간에 걸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계급 상승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로 작용한다. 더욱이 이 두 형태의 자본은 경제적 자본과 달리 수량화가 어렵고 사회 구성원들이 잘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이들 자본의 역할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이들 자본들은 사회의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을 통해 재생산 메커니즘에 있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사회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특히 부르디외는 『구별짓기』에서 프랑스 사회의 책, 음악, 예술 작품과 같은 문화 상품의 소비와 의복이나 음식 같은 상품의 소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의 취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계급적 지위에 의해 내재화된 아비투스의 발현이

며, 각각 구분되는 계층의 문화의 가치 판단은 전적으로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임의적(arbitrary)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고급문화의 근본이 상층계급의 취향을 반영하는 ‘취향 문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Gans, 1974; Bourdieu, 1984).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고급문화 또는 문화 자본의 임의성을 재생산의 틀에 연결시켰다. 지배계급의 문화가 그 계층의 특수한 문화가 아니라 보편적인 고급문화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개인의 취향은 이를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그리고 고급문화에 대한 상류 계층 구성원들의 친숙성은 이들을 다른 계층들로부터 구분지으며 계층 간 위계의 재생산을 정당화한다. 정리하자면, 부르디외는 경제 자본의 세대 간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업적주의라는 미명하에 계층 구조화된 사회를 은폐시키는 데 기여해온,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당연하게 권위가 인정되었던 주체들을 수면위로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림 IV-1] 『교육, 사회,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재생산』와
『구별짓기』에서의 부르디외의 주요 이론적 틀

② 미국 문화사회학과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

부르디외는 『교육에서의 재생산』(1977)에서 가정에서 체화된 문화자본의 하나로 개개인에게 전수된 언어나 태도가 학교라는 제도의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을 통하여 개개인의 우수함으로 또는 학위증으로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 계급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획득되는 과정을 추적

하였다. 이 저작을 통해 보울스와 긴티스(Bowles and Gintis, 1976), 콜린스(Collins, 1971, 1979), 번스타인(Bernstein, 1977) 그리고 젠크스(Jenks, 1983) 등과 함께 교육의 역할을 계급구조를 재생산하고 정당화시키며 사회적 구분을 능력으로서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로 규정한 최초의 교육사회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교육사회학자로 소개되었던 부르디외는 그 후 그의 방대한 저작들이 영어로 번역되면서부터 그의 이론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확장되고, 평가되었다. 특히 계급투쟁의 논리가 어떻게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의 영역까지 확대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상징적 분류가 계급 특권을 재생산하는데 열쇠임을 제시한 『구분짓기』를 통해 미국 문화사회학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연구가 활발한 분야들인 문화의 생산, 소비, 수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소비와 수용분야에 있어 큰 줄기를 형성하였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문화자본과 계급의 상응성에 대한 연구, 예술 장르와 고급문화의 범주와 같은 문화자본의 생성과 제도화에 연구, 다른 문화와 사회에 문화자본논의를 적용해 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세 갈래의 연구들은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의 근거들을 제시했으며 문화사회학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이론의 미국사회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부르디외의 이론이 소개될 때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사실상 부르디외의 이론과 모델은 300여 년이 넘는 계급구조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변동이나 저항 또는 역사의 우연적인 사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정적(static)’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Swarts 1977: 554-555; DiMaggio 1979: 1469-1470; Wacquant 1989). 미국사회는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귀족적 전통이라든지 고급문화전통이 부재한 점이라든지 평등주의, 사회이동의 개방성에 대한 믿음, 높은 지리적 이동, 사회과학적 설명에 있어 인종이라는 변수가 매우 중요한 점 등 유럽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사회이다. 당연히 미국사회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르디외가 이론을 구성하고 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생활수준의 상승, 교육의 확대, 대중매체와 이를 통해 생산되는 대중문화의 위상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미국사회학과 유럽 사회학 사이의 철학적인 전제나 방법론의 차이 역시 부르디외 이론의 미국사회 적용에 난점으로 작용할 것 역시 예측한 바였다. 특히 통계적인 데이터와 경험적인 조사에 대한 그의 사용은 프랑스 비판적 사회학의 반실증주의적 풍토에서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미국적인 방법론적 틀에서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Eicher and Mingat 1975). 또한 부르디외의 개념들이 가지는 애매함이나 용어들의 비일관성 역시 조작화를 통해 경험적인 검증을 하는 미국의 학자들에게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오히려 부르디외 문화자본론의 적용성의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제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학문적인 전통과 접목시켜 풍부한 연구결과를 생산해 내고 있다.

(2) 문화자본의 이론적 쟁점

① 문화와 계급의 상응성

문화자본론을 조금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고급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집단을 구분 짓는 상징으로 작용함으로써 보다 비가시적으로 사회의 계급을 재생산 한다는 것이다. 많은 후속 연구들은 “고급문화”가 실제로 “상류계층”의 취향인가 하는, 즉 계급과 취향간의 상응성이 존재하느냐(Peterson and Simkus 1992; Halle 1992)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할리(Halle, 1992)는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장시간의 훈련과정을 통해 획득한 것이며 사회적 경계를 생성한다는 문화자본론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홀(Hall, 1992)은 이질적인 시장의 존재와 다양한 문화자본의 존재를 강조하고 지위상황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구조주의(cultural structuralism)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터슨과 심커슨(1992)의 연구결과는 할리의 결과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위집단과 취향 사이의 상응성이 미약하다는 증거들에 대하여 피터슨과 심커스는 여전히 예술적인 취향은 지위를 의미 있게 하는데 효

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직업적 지위에 대한 보다 정교화 된 범주와 음악적 취향을 가지고, 문화적 실천에 있어 미국사회의 계급들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식인(highbrow)들은 고급 예술(fine arts)을 더 많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lowbrow)들의 활동에도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지식인들이 고상하지 않은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들(Lynes 1954; Levine 1988; Murphy 1988; Beisel 1990)은 물론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비관용적이라는 부르디외의 논의와 전적으로 상치되는 것이었다. 피터슨과 심커스(1992)는 이를 하이브로우 스nob(highbrow snob : 고상한 배척자)으로부터 옴니보어(omnivore : 포괄적 감상자)로의 역사적 전환으로 설명한다.

고급문화가 상층계급의 취향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피터슨과 심커스(1992)의 연구를 기점으로 계급간의 문화적 폭넓음(cultural breadth)의 차이라는 논의(Bryson, 1996; Erickson, 1996; Peterson and Kern, 1996)로 확장된다. 브리슨(Bryson, 1996), 에릭슨(Erickson, 1996), 피터슨과 켄(Peterson and Kern, 1996)의 연구에 따르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폭이 넓다는 것은 상층과 중상층계급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여겨진다. 브리슨(1996)은 미국 사회에서 어떤 특정음악을 싫어하는 경향은 교육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의 경우 다양한 음악 장르를 수용하는, 즉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다문화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릭슨(1996)의 토론토에 있는 보안업체 산업의 연구에 따르면, 고급-지위 문화에 친숙함이 계급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스포츠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에 유용한 문화는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계급에서 인기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장 유용한 문화자원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장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 가이다. 피터슨과 켄(1996)의 연구에서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속물적인 배제(snobbish exclusion) 배제에서 “옴니보어적 향유(omnivorous appropriation)”으로 변화한 것은 구조적 변화, 가치의 변화, 예술세계의 변화, 세대정치, 지위집단 정치라는 다섯 가지 요인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②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의 이동

지배계급은 고귀함/저속함(distinguished/vulgar), 미학적/현실적(aesthetic/practical), 순수/불순(pure/impure)과 같은 대비를 통해서 낮은 계급의 문화와 방식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와 방식들을 정당화하는데 성공한다(Lamont and Molnar, 2002).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배계급은 상징 폭력의 토대가 되는 힘의 역학관계를 숨긴 채로 특정한 의미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를 행사한다(Bourdieu and Passeron 1972). 몇몇의 연구(Weber, 1976; DiMaggio 1982a, 1992)들은 지배계급의 문화와 방식이 고급문화의 범주로 정당화를 획득하고 제도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관계를 조직적 환경과 사회 구조적 환경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디마지오(1982a)는 19세기에 보스턴에서 경제적으로 지배계급인 “브라민스”가 조직의 설립(예를 들어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Boston Museum of Fine Art)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문화자본”으로 규정하고 일반대중으로부터 동의와 승인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의 다른 논문들(1992) 이러한 전환이 드라마, 오페라, 그리고 무용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하는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베버(1976)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고전적” 레퍼토리의 확립에 대한 연구에서 역시 문화자본이 사회적 역사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문화자본”의 형성을 계급들과 지위집단들 간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로는 최섫별(2002b)이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서양고전음악 분야가 한국사회에서 고급문화로 또 풍부한 경제적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만 즐길 수 있고 전공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자리잡아오는 과정을 문화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를 분석함에 있어 짧은 계급구조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제자본에 근거한 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의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서구의 고급문화의 이용하며, 이러한 의도적인 이용과 노력이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습득되어 지고 체화되어 가는지를 제시한다.

③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른 차이점 연구

많은 연구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국가에서 부르디외 문화자본논의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DiMaggio and Mohr, 1982; DiMaggio, 1982b; Robinson and Garnier, 1985; Katsillis and Rubinson, 1990; Kalminjn, 1994; Kalmijn & Kraaykamp, 1996; De Graaf et al., 2000). 문화자본의 수준과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교육과 직업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국과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디마지오(1982b)는 “문화자본”의 개념을 “사회이동”이라는 미국의 전통에 접합시켰으며, 계급을 결정짓는 주요한 두개의 요인인 학력 획득과 결혼상대자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 디마지오는 문화자본이 고등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그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이동 전략에 있어 문화자본이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문화적 차별전략은 결혼을 통하여 사회이동을 하는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자료를 가지고 디마지오와 모어(DiMaggio and Mohr, 1982)는 문화자본의 역할을 결혼상대자 선택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결혼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여성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문화자본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같은 자료임에도 선행연구 결과와 다른 것은, 지위를 계급과 분리하여 지위를 대면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지위문화에의 참여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상대자 선택에 있어 문화자본은 직업이나 수입과 같은 객관적인 속성들과 함께 상대를 결정하는데 주요요인으로 간주되었다(Kalminjn, 1994). 그러나 로빈슨과 가니어(Robinson and Garnier, 1985)는 문화자본을 학업성취 그 자체로 조작화하여, 부르디외의 연구대상이었던 프랑스 사회의 계급 재생산에 문화자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그리스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케시리스와 루빈슨(Katsillis and Rubinson, 1990)은 그리스에서도 교육제도를 통해 사회의 위계구조가 재생산되나 이 과정을 유지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문화자본이 아니라 학생과 능력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

다. 또한 문화적 재생산론에 반대하는 연구는 많은 문화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하층계급 출신의 부모들일수록 자신들의 교육적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문화자본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 사이의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Kalmijn & Kraaykamp, 1996; De Graaf et al., 2000).

한국 사회연구에서는 장미혜(2002)가 부모의 문화자본이 대학생들의 수학 능력 시험성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한국사회에서도 학생을 선발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주요한 기제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위계관계를 문화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제도 밖에서 부르디외의 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경험적인 평가를 시도한 것으로는 프랑스와 미국의 중상계층을 비교 연구한 라몽(Lamont, 1992)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녀는 프랑스의 중상계층과 달리 미국 사회의 중상계층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도덕적인 세 가지 상징적인 경계(symbolic boundary)에 근거하여 구분을 짓는다고 주장하며, 부르디외가 문화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경계-작업의 개념을 정체성으로 확대 적용시켜서 미국 중상계급의 문화 내에서의 도덕적 경계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3) 청소년과 문화자본

청소년 문화자본 연구는 문화자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들은 『재생산』에서의 부르디외 문화자본논의를 검증해 보고자 미국과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자본의 보유 수준이 어떻게 교육과 직업적 성취와 같은 계급재생산의 지표들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DiMaggio, 1982b; DiMaggio and Mohr, 1985, 1995; Robinson and Garnier, 1985; Katsillis and Robinson, 1990; Kalminjn, 1994; Kalmijn and Kraaykamp, 1996; Katz-Gerro and Shavi, 1998; De Graaf et al., 2000; Katz-Gerro, 2002).

이러한 각기 다른 사회와 국가의 부르디외 이론의 적용성의 검증은 각기 다른 사회에서 적용되는 구별짓기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으로 확장된다. 프

랑스와 미국의 중상계층을 비교 연구한 라몽(Lamont, 1992)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녀는 돈, 도덕, 매너: 프랑스와 미국의 중상계급의 문화(Money, Morals and Manners: The Culture of the French and the American Upper-Middle Class)에서 경계-작업의 개념을 정체성으로 확대 적용시켜서 미국 중상계급의 문화 내에서의 도덕적 경계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케인(Kane, 2003)은 미국의 엘리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각 나라의 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국가에서 상류층이 각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구분짓기를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각 국가의 젊은 엘리트로 간주된 이들 대상자의 68%에 해당하는 274명이 상류계층의 문화적 경계 만들기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오페라, 골프, 클래식 음악이 상류층의 문화적 레퍼토리로 제시되었으며, 아시아 국가의 경우 골프가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과 더불어 사회 성원 사이에 증가하는 문화적 향유를 강조한 연구도 있다. 피터슨과 켄(1996)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속물적인 배제(snobbish exclusion)’에서 ‘옴니보어적 향유(omnivorous appropriation)’로 변화한 것은 사회 구조적 변화, 가치의 변화, 예술세계의 변화, 세대정치, 지위 집단 정치라는 다섯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취향의 가치가 양자적 논리 혹은 대립적 논리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부르디외의 가설은 재고되어야 하며, 미국에서 사회적 배제를 이끄는 토대가 되는 문화자본(일종의 상징적 경계)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옴니보어 가설은 각기 다른 국가와 문화적 맥락에서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Peterson, 1997a, 2002; Carrabine and Longhurs, 1999; Van Eijck and Van Rees, 2000; Holbrook, Michael, and Habick, 2002; López-Sintas and García-Álvarez, 2002a; Emmison, 2003; Vander and Laermans, 2003; Achterberg and Houtman, 2005; Katz-Gerro and Sullivan, 2005; López-Sintas et al., 2005)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문화자본과 관련성이 깊은 연구와 항목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의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연구 결과의 정책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3)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구성

(1) 문화자본 지표 개발 목표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화자본 연구에서도 지표 혹은 측정항목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표성, 자료 가용성, 비교 객관성 및 단순성 등의 원칙이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지표의 선정은 각 부문별 관심 영역을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복수의 대표적 항목을 총망라하여 검토한 후, 그 중에서 관심 영역을 가장 잘 집약하여 대표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 및 측정지표로 선정한다.

둘째, 조사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선정항목이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획득이 용이하지 못하면 비교는 물론, 지표의 포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기술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현실 여건상 획득이 용이한 항목을 지표로 선정해야 하고자 한다. 셋째,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편차가 큰 항목이나 자료 수집이 곤란한 항목은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비교가 가능하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표 연구에서는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비교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선정된 항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가급적이면 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단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차원을 측정하는 다수의 지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지표간의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 때로는 지표를 선정할 때나, 지표에 의한 결과를 해석할 때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평가라는 주관적 측면, 시험 조사를 통해 획득된 객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문화자본연구가 미진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집

적된 관련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몇몇의 문화 활동 및 취향에 관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자료공개 역시 쉽지 않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그리고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 활동 또는 취향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자료의 집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 문화자본과 역량강화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몇몇 가능한 이유와 원인을 다룸으로써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문화자본 연구에 관한 연구조사를 정제화하고 조사의 진행에 있어 그 내용과 분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내용과 대상을 확대시켜나가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2) 문화자본 지표 측정 내용

문화자본의 일반에 관련한 문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설문문항 선정의 기반 작업으로 1) 광범위한 국내외 문화자본관련 문헌 고찰을 통한 관련 부분 정리, 2) 주요 문헌에서 사용한 척도 및 관련 질문지 및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3) 질문지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차원과 이를 구성하는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고 4) 한국적 상황과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① 문화 취향과 행동: 문화자본 일반

많은 연구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국가에서 부르디외 문화자본논의를 검증해 보고자 함에 있어(DiMaggio and Mohr, 1982; DiMaggio, 1982b; Robinson and Garnier, 1985; Katsillis and Robinson, 1990; Kalminjn, 1994; Kalmijn & Kraaykamp, 1996; De Graaf et al., 2000),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측정항목(1982a, 1982b)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물들을 고찰한 결과 한국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문화자본 관련

질문지는 디마지오의 문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외국연구들과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특히 디마지오의 문항이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설문지 문항구성보다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에서는 디마지오와 그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발전시켜왔던 문화자본 측정문항을 근간으로 하고 한국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질문지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차원으로는 청소년 본인의 문화자본, 청소년 부모의 문화자본, 문화적 폭넓음(스노우니보어) 성향을 상정하였다.

청소년 본인의 문화자본은, 디마지오(1982a, 1982b)와 그 후속연구들에 근거하여 태도(attitude), 활동 또는 참여(activities), 정보(information)의 세 측면을 측정하며 그 세부분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 Project TALENT의 문항을 참조하였다. Project TALENT는 1960년부터 미국에서 일군의 학생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심리, 교육, 개인특성관련 항목들을 측정한 대규모, 장기간 횡단연구이다. 디마지오(1982a, 1982b)와 그 후속연구들의 문화자본 측정항목은 기본적으로 Project TALENT의 문항에 기반하고 있다.

먼저, 태도는 학생들이 특정 예술적 활동과 직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특히 미술, 음악, 문학과 관련된 직업과 관심이 주된 문항을 구성하며, 자신의 문화적인 소양에 대한 평가질문들을 바탕으로 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활동 또는 참여는 학생들이 문화적인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에 근거하여 측정된다. 학교 수업과 관련된 문화적 활동 또는 참여가 많은 서구의 경우 학교수업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였으나 본 질문 문항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보는 학생들이 미술, 음악, 문학과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가로 측정한다. 간결성과 측정 시 적절성을 고려하여 미술, 음악, 문학관련 작가와 작품을 잇는 줄기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서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작가 작품을 선정하였다.

계급의 재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모의 문화자본은 자녀의 문화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부모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문화자본과 연계 하에 분석된 것은 1990년 중반이후이다. 부모의 문화자본은 집안의 문화적 분위기라는 틀에서 부모님의 집에 있는 책의 총 권수, (악기, 스테레오, 클래식 전축, 예술도구, 사진 인화기 등과 같은) 문화 예술관련 기구 및 도구의 수, 집에 있는 잡지에 대한 질문(Mohr and Dimaggio, 1995), 응답자가 15세였을 때 부모님과 함께 클래식음악, 연극, 미술관을 얼마나 자주 갔으며, 응답자에게 얼마나 수업과 관계없는 책들을 읽도록 권유했는지(Sintas and Alvarez, 2002), 응답자의 부모님들의 지난 세 달 동안의 독서 양, 지난 삼년 동안 수강한 보다 심화된 강좌 수, 집에 있는 책 권수, 부모의 최종학력(Georg, 2004), 순수예술 참여정도와 독서습관(De Graaf, De Graaf, and Kraaykamp, 2007) 등으로 측정되어 왔다. 이에 근거하여 집안의 문화적 분위기, 부모의 순수예술 참여정도, 독서 관련 질문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넓음(스놉-옵니보어) 성향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논의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자본론을 조금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고급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집단을 구분 짓는 상징으로 작용함으로써 보다 비가시적으로 사회의 계급을 재생산 한다는 것이다. 많은 후속 연구들은 “고급문화”가 실제로 “상류계층”의 취향인가 하는, 즉 계급과 취향간의 상응성이 존재하느냐(Peterson and Simkus 1992; Halle 1992)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고급문화가 상층계급의 취향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피터슨과 심커스(1992)의 연구를 기점으로 계급간의 문화적 폭넓음(cultural breadth)의 차이라는 논의(Bryson, 1996; Erickson, 1996; Peterson and Kern, 1996)로 확장된다.

브리슨(Bryson, 1996), 에릭슨(Erickson, 1996), 피터슨과 켄(Peterson and Kern, 1996)의 연구에 따르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폭이 넓다는 것은 상층과 중상층계급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여겨진다. 현재 각기 다른 국가와 문화에 있어서의 옵니보어 가설에 대한 검증연구(Peterson 1997a, 2002; Carrabine and Longhurs 1999; Van Eijck and Van Rees 2000; Holbrook, Michael, and Habick 2002; López-Sintas and García-Álvarez 2002a; Emmison 2003;

Vander and Laermans 2003; Achterberg and Houtman 2005; Katz-Gerro and Sullivan, 2005; López-Sintas and Katz-Gerro 2005; Perterson, 2005)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질문문항구성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악장르의 선정이다. 음악장르 구분은 음악장르 구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반판매 사이트의 장르 구분 기준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주로 단일곡 중심으로 검색기능이 강한 음악 감상 사이트나 MP3 사이트와는 달리, 음반판매 사이트는 아티스트와 앨범의 장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장르 구분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음반판매 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의 순위를 선정하는 랭키닷컴(www.rankey.com)을 참고하여 “온라인 음반/CD쇼핑몰” 분야의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3군데의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세 사이트 모두, 장르는 대분류와 소분류의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분류로 ‘가요’라는 범주가 존재하고, 그 아래에서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하위 장르가 있는 것이다. 우선 세 사이트의 대분류 장르 중 모두 중복되는 것을 선택하여, 여기서 영화음악, 일본음악 등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음악장르의 성격이 짙은 것만은 따로 선정하여 본 조사의 음악장르 분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가요와 팝이 대중음악으로서 그 안에 보다 세분화된 장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 사이트의 가요와 팝의 소분류 장르를 비교하였다. 이 중 가요와 팝의 소분류 내에서 여러 번 중복되거나, 또 다른 대분류 장르와 중복되는 장르를 찾아서, 본 조사의 음악장르 분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최종 음악장르를 『음악산업백서 2005』의 장르구분과 한국음악산업협회(www.miac.or.kr) 내 ‘2000 국내가요/외국가요 장르별 판매비율’ 게시물의 장르구분과 비교하여, 보편적인 음악장르 분류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표 IV-1〉 기타 음악분류 기준

출처	장르 분류	출처	장르 분류
[음악산업백서] 2005	발라드	[음반협회] 각 장르당 국내/해외로 다시 구분	팝
	트로트		클래식
	댄스		캐롤
	클래식		락
	R&B/소울		댄스
	락/메탈		발라드
	랩/힙합		R&B
	기타		OST
			편집음악

② 사이버공간과 청소년 문화자본

정보기술 중에서 특히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다른 미디어와 달리 그 용도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다양한 성격과 형식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 분야에 있어서도 업무, 오락, 학습, 커뮤니케이션 등 행위자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TV나 라디오가 구입한 뒤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비슷한 콘텐츠를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하게 되는 매체인 데 반해, 인터넷의 경우 개개인들이 자신의 취향과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화된 매체(personalized media)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문화자본 지표개발에 있어서도 이처럼 다양한 이용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이 문화자본의 축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일상화된 인터넷 이용 속에서 매우 필요하다. 우선 측정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용행태에 대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얼마나 인터넷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 이용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문화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질문이자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도 크다.

이 때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시간 뿐 만 아니라 학업과 관련하여 이용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학업 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차지하는 시간의 양을 측정해 봄으로써 인터넷 이용에 대한 다채로운 분석을 시도해 본다. 특히 조사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보완적인 도구로서 인터넷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겠지만, 아울러 학교 학습 외에 기타 학습 활동에 인터넷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이다.

인터넷 이용 시간과 함께 인터넷 이용목적에 대한 측정은 행위자들의 의도파악과 이후의 인터넷 이용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질문 내용에 있어서도 문화 활동과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활동들을 포함하여 측정해 봄으로써 전반적인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문화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파악도 시도해 본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이용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보의 검색이다.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인터넷 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 우선적으로 어떤 정보를,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다면 문화 활동 관련 정보의 원천으로서 인터넷의 정보검색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가 어떤 통로를 통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문화자본의 축적과 공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질문들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문화자본축적 분야 중 특정한 서비스의 형태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특정한 정보의 축적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있고, 같은 관심을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들의 문화자본 축적에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더욱이 커뮤니티 가입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가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활발한

활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갖는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활발한 활용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니홈피 및 블로그는 개인이 가진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정보의 네트워킹을 통해 같은 대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문화적 활동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축적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요한 문화 활동에 있어서의 경험 여부와 함께 그 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문화 활동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블로그 활용도에 대한 모색과 함께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의 주요 변수로 이용할 것이다.

③ 대중문화와 청소년 문화자본

계급과 취향의 상응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전통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기초를 두어왔다(Bourdieu, 1984; Gans, 1974). 특히 문화자본에 대한 논의는 부르디외의 정당한 문화(legitimated culture)가 차지하는 사회적 의의에 바탕을 둬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의 문화자본론적 함의를 사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자본 측정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고급문화 중심의 경험적 조작화 작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현대 문화의 변화는 이와 같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을 약화시켰다(Peterson & Kern, 1996). 특히 예술사적 변화의 양상은 이분법적 문화구분의 인식론적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였다. 한편으로 다다이즘, 팝아트와 같은 현대 예술의 사조가 예술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고급문화의 우월성이 갖는 정당화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문화가 문화 영역이나 사회 전체의 자원 분배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격상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문화의 위계 체계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문화자본의 논의가 고급문화에 배타적으로 한정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문화자본 축적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상황

에서 대중문화 연구가 중요성을 가진다. 청소년의 문화자본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중문화 소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본 조사에서 다른 고급문화 소비 항목들과 동시에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화자본 형성이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에서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대중문화 수용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중문화 관련 담론 생산과정의 참여와 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문화산업과 매스미디어에서 생산된 대중문화상품은 소비자에게 문화 향유라는 형태로 1차 소비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문화 담론을 낳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대중문화 담론의 생산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가 청소년들의 친구 사귀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는 ‘내가 친구를 사귄다’ 때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는 진술을 구성하였고, 부정적인 방향에서 ‘대중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진술을 구성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의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두 가지 진술에 대한 결과를 포괄하여 척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대중문화에 대한 취향이 동질적인 성향의 통합 기능 뿐 아니라 이타적인 성향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기능까지도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싫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외 대중문화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 제시 등의 참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와 핸드폰을 이용한 활동의 빈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게시글 읽기’, ‘게시글 쓰기’, ‘댓글 달기’, ‘TV,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사연 보내기’ 등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끝으로 직접적으로 대중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 노래방 등에서 노래 부르기, 작곡이나 작사하기, DJ 보기, 앨범 편집하기, 연기하기, 만화그리기, 소설이나 대본 쓰기 등의 활동 빈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각

항목의 활동 빈도가 실제 활동 빈도 이외에 활동 수행 능력이나 활동 의사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선택지를 ‘늘 하고 있다’, ‘하고 싶지만 할 줄 모른다’, 할 줄 알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하고 싶은 마음도 할 능력도 없다’등으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체계가 이루어 졌다. 구체적인 각 차원과 하위 요소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 문항은 <표 IV-2>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구성 체계

차원	하위 요소		비고
문화취향 과 행동	본인의 문화자본	태도	- 문화/미적 요소의 중요성 평가 6문항 - 문화 관련 직업 선호도 8문항 (대중문화 관련 직업 4문항)
		활동 또는 참여	- 문화 활동 희망 정도 7문항 - 문화 활동 경험 12 문항
	부모의 문화자본		- 부모의 문화자본 6항목
	정보		- 음악 지식 10문항 - 미술 지식 10문항 - 문학 지식 10문항
사이버 공간과 문화활동	뉴스, 정보 매체		- 신문, 인터넷, TV 등 8문항
	인터넷 이용		- 인터넷 이용시간 2문항
	정보활용과 문화 활동		- 인터넷 사용 목적 2문항 - 인터넷 정보 검색 내용 2문항
	사이버커뮤니티 활동과 문화자본		- 문화관련 온라인 동호회 7문항
	개인미디어 활용과 문화자본		- 미니홈피, 블로그 사용여부 1문항 - 문화적 경험 공유 7문항
대중문화 활동	대중문화소비		- 대중문화 활동 8문항
	대중문화 취향		- 음악장르 7문항(일반 장르에 포함)
	대중문화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		- 문화 관련 직업 선호도 8문항 (대중문화 관련 직업 4문항)
	대중문화 창작과 실연		- 대중문화 관련 참여 희망 8문항
	대중문화 담론 참여		- 대중문화 담론 참여 4문항
	대중문화와 친구 사귀기		- 대중문화와 친구사귀기 3문항

4)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자료 분석

(1) 자료의 특성

① 자료수집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연구를 위한 자료는 청소년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기존의 문화자본과 관련한 조사들은 대부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조사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연령에 의해 구분지어진 세대 간 문화자본을 비교 검증하는 데에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내에서,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의 문화자본을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세대 간 문화자본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세대의 문화자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청소년의 문화 활동에 관한 조사’의 목표 표본 수는 1,000명이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류와 부실응답 등을 고려하여, 목표 표본 수에 10%를 추가한 1,100여명에 대하여 실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수도권 내 지역별 평균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 그리고 경기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별로 각각 2개, 총 6개의 학교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⁶⁾ 조사대상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탐색적 연구의 특성상 가장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응답의 충실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아울러 교급 등 다른 요소에 의해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선학교 교사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위원의 자문을 받았다.

조사는 2008년 7월 한 달 간, 선정된 각 학교의 현직 교사의 협조를 얻어 학급 단위로 무작위 추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에 앞서 조사 기획 및 설문지 구성에 직접 참여 한 연구원들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시

16)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서울 강남구 신구중학교, 서초구 신반포중학교, 성동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은평구 구산중학교와 경기도 군포시 곡란중학교, 남양주시 심석중학교이다.

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원들이 조사 목적과 조사 과정상의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자기기입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고 조사 완료 후 회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거부 혹은 부실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45개의 설문 자료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② 조사대상 및 사회 인구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IV-2>에 제시되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54%, 여자가 46%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연령(만 14,15세)의 성비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이다.¹⁷⁾

다음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1,045명의 응답자 중, 강남구와 서초구로 구성된 강남지역 응답자가 29.0%, 성동구와 은평구로 구성된 강북지역이 30.7%, 그리고 군포시와 남양주시로 구성된 경기지역이 40.3%를 차지하였다. 청소년들의 가정 생활수준은 ‘하(下)’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9.4%, ‘중’이 64.6%, 그리고 ‘상’이 26.0%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3.9%, 고등학교 졸업이 36.8%, 2년제 전문대학 졸업이 6.0%, 4년제 대학 졸업이 37.9%, 대학원 졸업 이상의 부모가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3.6%, 고등학교 졸업이 43.0%, 2년제 전문대학 졸업이 6.4%, 4년제 대학 졸업이 30.3%, 대학원 졸업 이상의 부모가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4년제 대학 교육 이상의 고학력자는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2005년 통계청에서 작성한 10-14세 성비(性比). (2008년 기준 13-17세)

	총인원(명)	남자(명)	여자(명)	*성비
10-14세	3,434,891	1,816,318(52.88%)	1,618,573(47.12%)	112.2

* 성비는 여자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표 IV-3>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자		562	54.0
	여자		478	46.0
지역	서울	강남	303	29.0
		강북	321	30.7
	경기		421	40.3
생활수준	하		95	9.4
	중		658	64.6
	상		265	26.0
부모 학력	부	중학교 졸업 이하	38	3.9
		고등학교 졸업	355	36.8
		2년제 대학 졸업	58	6.0
		4년제 대학 졸업	365	37.9
		대학원 졸업 이상	148	15.4
	모	중학교 졸업 이하	37	3.6
		고등학교 졸업	449	43.0
		2년제 대학 졸업	67	6.4
		4년제 대학 졸업	317	30.3
		대학원 졸업 이상	93	8.9

(2) 분석결과

① 문화 취향과 행동: 문화자본 일반

가. 청소년 본인의 문화자본

청소년 본인의 문화자본은, 디마지오(1982a, 1982b)와 그 후속연구에 근거하여 태도(attitude), 활동 또는 참여(activities), 정보(information)의 세 측면을 측정하였다.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고급문화

라고 일컬어지는 대상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역량의 큰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각각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문화역량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태도

태도는 학생들이 특정한 문화 예술적 활동과 직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특히 미술, 음악, 문학과 관련된 직업과 관심이 주된 문항을 구성하며, 자신의 문화적인 소양에 대한 평가질문들을 바탕으로 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상식적으로 고급문화 또는 예술이라고 상정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이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문항들이다. 그러나 이번 지표구성에 있어서는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과 현시대에 있어서의 대중문화의 위상의 급격한 상승 등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IV-4>는 청소년의 문화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측면인 태도 중 문화 예술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평균 분산값과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즉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영화 관람으로, 다른 활동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균값(4.27)과 낮은 분산값(0.97)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순수예술관련활동 - 미술관 관람(평균 2.57), 문학작품감상(평균 2.78), 클래식음악회(평균 2.68) - 보다는 대중문화관련활동 - 영화관(평균 4.27), 연극·뮤지컬(평균 3.70), 대중음악 콘서트(평균 3.59)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악기연주(평균 3.33)의 경우는 순수예술과 관련된 악기와 대중문화에 관련된 악기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순수예술관련 활동과 대중문화 관련 활동의 중간 정도의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들을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배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표 IV-4>와 같이 2개의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65.8%이

다. 각각의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문항들은 순수예술 관련활동과 대중 문화관련활동들로 명명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미술관관람, 문화작품감상, 클래식음악회, 악기연주 그리고 후자는 영화관, 연극,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가 포함되었다. 요인분석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의 내용타당성, 그리고 구조타당성중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각의 Cronbach's α 값이 .807과 .748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있어 내적일관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Cronbach's α 수치의 경우는 아직까지 모든 연구자가 수용할만한 기준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Cronbach's α 0.7이상은 채택가능 한 것으로 0.5-0.6의 수준은 좀 더 연구해볼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로 상정한다(Nunnally, 1976; 이영준, 1991).

<표 IV-4>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

항목	평균±분산	요인1	요인2	크론바흐알파
(1) 미술관에 가고 싶다	2.57±1.21	.827		.807
(2) 문학작품을 읽고 싶다	2.78±1.22	.791		
(3) 클래식 음악회에 가고 싶다	2.68±1.28	.830		
(4) 악기연주를 하고 싶다	3.33±1.36	.617		
(5) 영화관에 가고 싶다	4.27±0.97		.811	.748
(6) 연극, 뮤지컬을 보고 싶다	3.70±1.32		.752	
(7) 대중음악 콘서트에 가고 싶다	3.59±1.40		.784	
설명비율		36.8%	29.0%	

*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인 경우만 제시

<표 IV-5>는 청소년의 문화자본을 구성하는 태도 중 또 하나의 측면인 문화 예술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평균 분산값과 이를 요인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정도의 평균이 모두 3점('보통이다') 이하로 나타나 그다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치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디자이너(2.76)와 방송인(2.71)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순수예술과 관련된 직업 - 클래식음악가(평균

1.93), 작가(평균 2.19), 미술가(평균 2.08) -보다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직업 - 연예인(평균 2.64), 디자이너(평균 2.76), 방송인(평균 2.71)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표 IV-5> 문화예술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

항목	평균±분산	요인1	요인2	크론바흐 알파
(1) 클래식 음악가가 되고 싶다	1.93±1.03		.782	.779
(2) 작가(시인, 소설가 등)가 되고 싶다	2.19±1.15		.779	
(3) 미술가(화가, 조각가 등)가 되고 싶다	2.09±1.15		.753	
(4) 작곡가(대중음악)가 되고 싶다	2.09±1.15		.661	
(5) 연예인(가수, 배우 등)이 되고 싶다.	2.64±1.26	.702		.771
(6) 디자이너(패션, 인테리어 등)가 되고 싶다.	2.76±1.32	.652		
(7)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	2.45±1.18	.747		
(8) 방송인(PD, 기자, 아나운서 등)이 되고 싶다	2.71±1.26	.832		
설명비율		31.1%	30.8%	

*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인 경우만 제시

이 문항들을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표 IV-5>과 같이 2개의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61.9%이다.

각각의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직업들 역시 <표 IV-4>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유사한 형태로, 순수예술 관련 직업과 대중문화 관련 직업으로 크게 분리된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음악 작곡가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순수예술 관련 직업군으로 포함된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작곡이라는 직업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인분석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의 내용타당성, 그리고 구조타당성 중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각의 Cronbach's α 값이 .779와 .771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있어 내적일관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 예술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표 IV-6>을 살펴보면, 각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를 5점 척도 상에서의 분포도로 분석해 볼 때,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보통이다’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클래식음악가, 미술가의 경우 40% 이상, 작가, 대중음악 작곡가의 경우 35% 이상, 그 외의 모든 직업에 있어서도 대략적으로 25% 정도의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문화예술 관련 직업군들의 특성 상 어린 시절부터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특수한 재능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문화 예술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의 경우는, 새로운 질문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가능한 질문으로는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각각의 직업군이 멋있어 보이는 정도라든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V-6> 문화예술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에 대한 빈도분석표

단위 (사례수, 백분율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클래식 음악가가 되고 싶다	455 (43.6)	319 (30.6)	180 (17.3)	66 (6.3)	23 (2.2)
(2) 작가(시인, 소설가 등)가 되고 싶다	376 (36.1)	289 (27.8)	222 (21.3)	114 (11.0)	40 (3.8)
(3) 미술가(화가, 조각가 등)가 되고 싶다	424 (40.7)	281 (27.0)	201 (19.3)	92 (8.8)	44 (4.2)
(4) 작곡가(대중음악)가 되고 싶다	367 (35.4)	271 (26.2)	243 (23.5)	119 (11.5)	36 (3.5)
(5) 연예인(가수, 배우 등)이 되고 싶다.	250 (24.0)	229 (22.0)	302 (29.0)	161 (15.5)	98 (9.4)
(6) 디자이너(패션, 인테리어 등)가 되고 싶다.	257 (24.7)	180 (17.3)	274 (26.3)	217 (20.8)	114 (10.9)
(7)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	284 (27.3)	271 (26.0)	276 (26.5)	158 (15.2)	52 (5.0)
(8) 방송인(PD, 기자, 아나운서 등)이 되고 싶다	247 (23.7)	195 (18.7)	304 (29.2)	207 (19.9)	88 (5.0)

태도를 구성하는 세 번째 측면인 자신의 문화적 소양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균 분산값과 요인 분석결과는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소양에 대해 대부분 평균 3점(‘보통이다’)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좋은 매너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4.13) 평가하고 있으며, 방송연예 흐름에 대해서도 3.11이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항들 역시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48.5%이다. 요인분석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의 내용타당성, 그리고 구조타당성중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며, Cronbach's α 값이 .779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있어 내적일관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표 IV-7> 자신의 문화적 소양에 대한 평가

항목	평균±분산	요인1	크론바흐 알파
(1) 나는 문화적 소양이 깊다	2.89±1.02	.824	.779
(2) 나는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졌다	2.74±1.03	.819	
(3) 나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2.85±1.01	.776	
(4) 나는 물질적 부보다 문화적 소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98±1.04	.606	
(5) 나는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13±0.89	.538	
(6) 나는 방송연예 흐름을 잘 알고 있다	3.11±1.08	.548	
설명비율		48.5%	

*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인 경우만 제시

(b) 활동 또는 참여

참여는 학생들이 문화 예술과 관련된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에 근거하여 측정된다.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활동에 얼마나 참여 또는

수행하였는가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8>에 따르자면, 현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관련 활동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영화관람(3.75)과 만화/애니메이션 감상(3.82), 문학/독서(3.11) 외에는 대부분 ‘거의하지 않는다(2점)’의 수준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급문화로써 문화자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음악회 관람의 경우는 40% 이상의 학생들이 전혀 한 적이 없고, 36%의 학생들이 거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6%만이 음악회에 가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전시회 관람 역시 40%의 학생이 전혀 가 본적이 없고, 33%의 학생이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체의 8% 정도에 해당하는 85명의 학생들만이 지난 1년간 미술전시회에 가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문화예술 활동 참여정도

항목	평균±분산	요인1	요인2	요인3	크론바흐 알파
(1) 미술활동(그림그리기등)	2.84±1.09		.703		.556
(2) 연극 관람	2.34±1.09	.735			.846
(3) 클래식 음악회 관람	1.87±0.95	.774			
(4)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2.10±1.15	.745			
(5) 영화 관람	3.75±1.01			.811	.523
(6) 만화/애니 감상	3.82±1.11			.807	
(7) 뮤지컬 관람	2.13±1.14	.718			
(8) 문학/독서(책, 시 등)	3.11±1.18		.737		
(9) 미술 전시회 관람	1.98±1.01	.788			
(10) 박물관 관람	2.17±1.06	.771			
(11) 악기 연주	2.65±1.29	.662			
(12) 기타	2.84±1.54		.629		
설명비율		33.2%	15.2%	13.4%	

*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인 경우만 제시

예상대로 영화, 만화/애니 등 대중문화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았으며, 문학/독서(3.11), 미술활동(2.84), 악기연주(2.65)와 같이 장소에 관계없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 수업과 관련된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참여를 배제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학교 수업과 관련된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참여가 많은 서구의 경우(대표적으로는 미국) 문화자본을 측정함에 있어 학교 수업과 관련된 것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층 또는 학력등위 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를 바꿔서 서술하면 서구 사회의 경우 학교에서 계층 또는 학력등위 간의 문화 예술관련 참여도 상의 차이를 완화시킬 정도의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즉 학교 수업과 관련된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참여를 포함시킨 이번 연구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 청소년의 문화역량 강화에 있어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들의 문화자본, 또는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대중문화 활동외의 문화예술관련 활동 참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문항들을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표 IV-8>와 같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61.8%이다. 요인3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활동군(영화관람, 만화/애니 감상)으로 명명할 수 있으나, 사실상 요인1(연극관람, 클래식음악회관람, 대중음악콘서트관람, 뮤지컬관람, 미술전시회 관람, 박물관관람, 악기연주)과 요인2(미술활동, 문학/독서)의 경우는 각각의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활동 목록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될 수 있으나, 요인1로 묶인 활동군이 좀 더 경제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활동들로 분류가능하다. 각각의 Cronbach's α 값은 .846, .556, .523이다.

(c) 정보

정보는 학생들이 문화예술관련 지식,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미술, 음악, 문학과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간결성과 측정 시 적절성을 고려하여 미술, 음악, 문학관련 작가와 작품을 잇는 줄긋기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서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각 해당 분야의 작가와 작품을 각각 10개씩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9>의 점수는 10개 모두를 못 맞춘 경우에는 0점 모두 맞춘 경우에는 10점이며, 각 해당분야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백분율과 해당 분야의 평균점과 분산값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9> 문화예술 관련 지식 및 정보

점수	음악(%)	미술(%)	문학(%)
0	13.0	17.6	25.7
1	14.0	10.8	19.4
2	15.9	14.4	19.6
3	13.9	14.7	13.2
4	15.3	13.9	9.4
5	10.1	9.9	5.2
6	5.7	7.6	3.7
7	4.1	5.4	1.7
8	4.0	3.7	1.4
9	0.1	0	0.1
10(만점)	3.8	2.1	0.5
평균±분산	3.34±2.54	3.22±2.48	2.13±2.02

총 학생 중 해당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임

각 분야 간의 난이도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획득평균점수는 2-3점대에 머물렀으며, 각각 분야에서 하나도 맞추지 못한 학생의 비율 역시 음악 13%, 미술 18%, 문학 26%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문학 분야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가 각 분야에 대한 측정도구의 난이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문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도구의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난이도의 조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지식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수 이상을 맞춘 학생은 음악의 경우 27.8%, 미술의 경우 28.7%, 문학의 경우 12.6%이었으며, 9-10점을 맞춘 학생은 음악 3.9%, 미술 2.1%, 문학 0.6%에 그쳤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지식 또는 정보의 총량은 문화역량 - 이론적인 틀에서는 문화자본이라는 명명할 수 있는 것 -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관련 지식 또는 정보를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질문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화자본론이라든지 좀 더 보다 포괄적인 이론적 틀 안에서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긴 하지만, 이번 질문지에서 사용한 줄긋기 방식의 질문형식이라든지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맞는 문화예술관련 지식 또는 정보의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개발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비슷한 연구조사를 통한 측정도구의 보다 발전적인 수정과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나. 부모의 문화자본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를 측정하는 질문문항들의 결과는 <표 IV-10>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는 부모세대의 문화자본을 반영하며, 자녀들의 문화자본을 축적하는데 토양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어린 시절 가정에서 체화된 취향, 언어 습관 등을 강조하는 문화자본론의 경우 부모의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를 측정하는데 있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어와 컴퓨터의 사용이라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문항 내용상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들의 문화예술적인 소양보다는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가정에 책이 많은 편(평균 3.66), 컴퓨터 사용능력(평균 3.43) 문화예술관련 물품 보유정도(평균 3.00) 역시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외국어의사소통(평균 2.30)이나 외국어 잡지 및 신문 구독(1.84)은 상당히 낮은 수치로 나타난다. 외국어 소통능력이나 외국어 잡지 및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문화예술적 취향이나 분위기로 볼 수 있는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보다 큰 이론적 체계 하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들을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67.4%이다. 각각의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문항들은 살펴보면, 서적, 문화예술과 관련된 물품, 컴퓨터와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이, 외국어 의사소통과 외국어 잡지 및 신문 구독이 묶여져 있다. 요인분석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의 내용타당성, 그리고 구조타당성중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각의 Cronbach's α 값은 .642과 .812이다.

<표 IV-10>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

항목	평균±분산	요인1	요인2	크론바흐 알파
(1) 집안에 책이 많다	3.66±1.01	.853		.642
(2) 집안에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물품 (악기, 클래식음악 CD, 오디오, 화구 등과 같은 예술도구 등)들이 많다	3.00±1.18	.791		
(3) 부모님(중 한분)께서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30±1.28		.874	.812
(4) 부모님(중 한분)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신다	3.43±1.32	.555		
(5) 부모님(중 한분)께서는 외국어로 잡지나 신문을 정기적으로 읽으신다	1.84±1.09		.908	
설명비율		34.8%	34.6%	

*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인 경우만 제시

<표 IV-11>은 응답자 부모들의 문화 예술 관련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평균 분산값과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영화관람(3.20)과 문학/독서(3.13)를 제외하고는 1.8~2.2대의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 문항들을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58.2%이다. 각각의 Cronbach's α 값은 .875, .669이다.

<표 IV-11> 부모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항목	평균±분산	요인1	요인2	크론바흐 알파
(1) 미술활동(그림그리기등)	1.94±1.04		.592	.669
(2) 연극 관람	2.14±1.10	.754		.875
(3) 클래식 음악회 관람	1.95±1.05	.788		
(4)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1.88±1.04	.533		
(5) 영화 관람	3.20±1.20			
(6) 만화/애니 감상	2.12±1.30		.890	
(7) 뮤지컬 관람	1.98±1.08	.722		
(8) 문학/독서(책, 시 등)	3.13±1.27	.633		
(9) 미술 전시회 관람	1.88±1.01	.777		
(10) 박물관 관람	1.90±1.03	.700		
(11) 악기 연주	1.83±1.11			
(12) 기타	2.06±1.38		.641	
설명비율		35.9%	22.3%	

*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인 경우만 제시

<표 IV-12>는 <표 IV-8>에서 다루었던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자 즉 자녀의 참여 빈도와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IV-8>에 대한 설명 시에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관련 참여 빈도가 너무 낮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 단위의 프로그램의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부모세대와 비교하면 응답자세대의 참여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음악회

관람과 문화/독서활동을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관련 활동의 자녀세대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관련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자명하다.

<표 IV-12> 응답자부모와 응답자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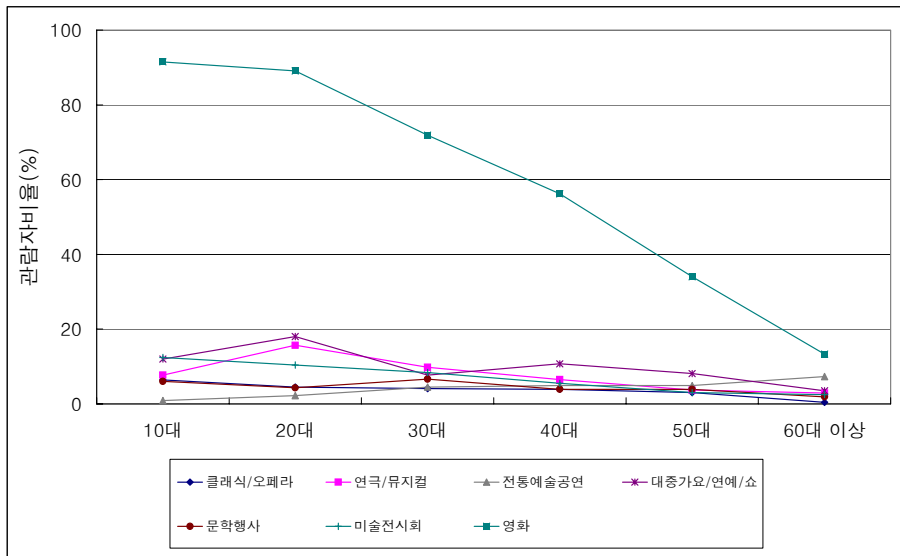
항목	부모	자녀
(1) 미술활동(그림그리기 등)	1.94±1.04	2.84±1.09
(2) 연극 관람	2.14±1.10	2.34±1.09
(3) 클래식 음악회 관람	1.95±1.05	1.87±0.95
(4)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1.88±1.04	2.10±1.15
(5) 영화 관람	3.20±1.20	3.75±1.01
(6) 만화/애니 감상	2.12±1.30	3.82±1.11
(7) 뮤지컬 관람	1.98±1.08	2.13±1.14
(8) 문학/독서(책, 시 등)	3.13±1.27	3.11±1.18
(9) 미술 전시회 관람	1.88±1.01	1.98±1.01
(10) 박물관 관람	1.90±1.03	2.17±1.06
(11) 악기 연주	1.83±1.11	2.65±1.29
(12) 기타	2.06±1.38	2.84±1.54

*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이상인 경우만 제시

이러한 자녀세대 젊은 세대의 문화예술관련 공연 참여도의 상대적인 수월성은 [그림 IV-2]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림 IV-2]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006년 15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화향수실태조사 중 연령대별 문화예술공연 또는 행사 관람자비율을 제시 한 것이다.¹⁸⁾ 문화예술공연 및 행사로는 클래식/오페라, 연극/뮤지컬, 전통예술공연, 대중가요/연예/쇼,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영화가 조사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예술공연을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관련 공연 및 행사참여에 있어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대의 관람자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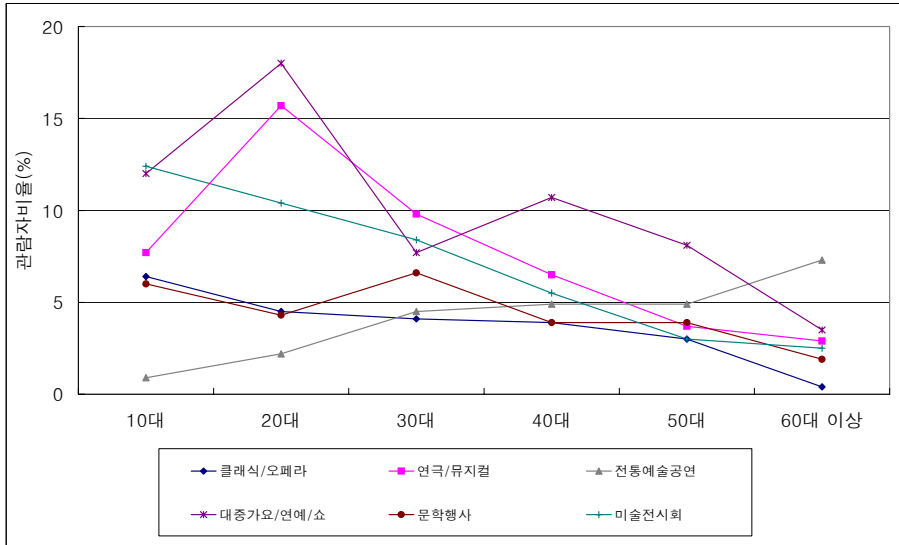
18)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해왔다. 2003년까지는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하다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2006년부터는 표본 크기를 3000명으로, 관객 조사항목은 2000년 조사부터 삽입되었다. 사실상 문화와 관련된 통계들은 2000년 이후에야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혼한 자료는 아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10대의 경우 전통예술공연을 제외한 공연 및 행사에 참여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중가요/연예/쇼, 클래식/오페라, 문학행사 등에서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공연인 대중가요/연예/쇼, 그리고 고급문화 또는 예술의 대표적인 공연과 행사인 클래식/오페라, 문학행사 모두에 1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참여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분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연구들의 수행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림 IV-2] 연령대별 문화예술공연 또는 행사 관람자비율¹⁹⁾

19) [그림 IV-2]의 두 개의 그림은 같은 것인데 아래 그림은 영화의 비율이 워낙 높아 다른 분야의 차이점이 잘 보이지 않아 영화를 제외시킨 것이다.



[그림 IV-3] 연령대별 문화예술공연 또는 행사 관람자비율 (영화제외)

다. 문화적 폭넓음(스놉-옵니보어) 성향

음악 장르에 관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14개의 장르에 대하여 응답자에게 각각의 장르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선호도를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3>에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장르는 발라드(3.90), R&B/소울(3.52), 힙합/랩(3.44)이었으며, 낮은 장르는 종교음악(1.85), 국악(2.03), 포크(2.14), 인디음악(2.18), 성인가요(2.2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악과 종교음악의 경우 각각 48.4% 38.4%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19.0% 29.3%가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67% 이상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국악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1982년에 수행된 김은희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단지 2.1%만이 음악교과 분야 중 국악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1986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인자)에서 역시 가장 유익한 장르를 묻는 질문에서는 5.1%로 가장 적은 응답을, 가장 무익한 장르를 묻는 질문에서는 26.2%로 팝송 및 가요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얻었다. 또한 음악 교사들의 40%(손순현, 1984)가, 그

리고 학생들의 30.4%(조용복, 1992)가 서양음악이 국악에 비해 보다 우수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포크, 인디음악, 뉴에이지의 경우는 약 30%가 ‘이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음악장르의 선호도 측정 시 “이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응답범주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와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보통이다”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갖는 언명이기 때문에 분리된 응답 범주가 있어야 하며, 특히 문화자본의 측정에 있어 모른다는 응답이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응답범주에 포함하였다.

〈표 IV-13〉 음악 장르별 선호도

항 목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잘 알지 못한다	평균±분산
국악	38.4	29.3	18.8	7.9	2.2	3.4	2.03±1.06
댄스	10.0	12.8	28.3	31.4	16.9	0.8	3.33±1.20
힙합/랩	8.4	10.9	28.0	30.7	20.4	1.4	3.44±1.18
락	12.9	19.8	28.1	20.9	15.5	2.9	3.07±1.26
R&B/ 소울	8.5	9.2	23.9	31.5	21.8	5.1	3.52±1.20
포크	21.7	24.2	19.9	3.5	1.5	29.2	2.14±0.98
성인가요 (트로트)	31.0	28.7	24.7	8.5	3.0	4.1	2.21±1.08
인디음악	25.5	19.5	17.4	5.2	3.5	29.0	2.18±1.14
재즈	22.6	25.3	28.5	9.6	6.8	7.2	2.49±1.18
뉴에이지	21.4	19.1	18.4	5.3	4.9	31.0	3.32±1.19
클래식	18.3	21.2	30.0	17.1	10.7	2.7	2.80±1.25
뮤지컬	17.9	17.9	29.0	19.7	13.1	2.5	2.92±1.29
종교음악 (가스펠, 찬불가)	48.4	19.0	15.0	5.9	2.6	9.2	1.85±1.09
발라드	5.8	5.1	18.1	32.3	35.9	2.8	3.90±1.14

① 사이버공간과 청소년 문화자본

가. 청소년과 인터넷 이용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제 인터넷 이용은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적 경험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먼저 인터넷 이용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보다 세부적인 차원에서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 지역별 그리고 성적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였다.

<표 IV-14> 속성별 인터넷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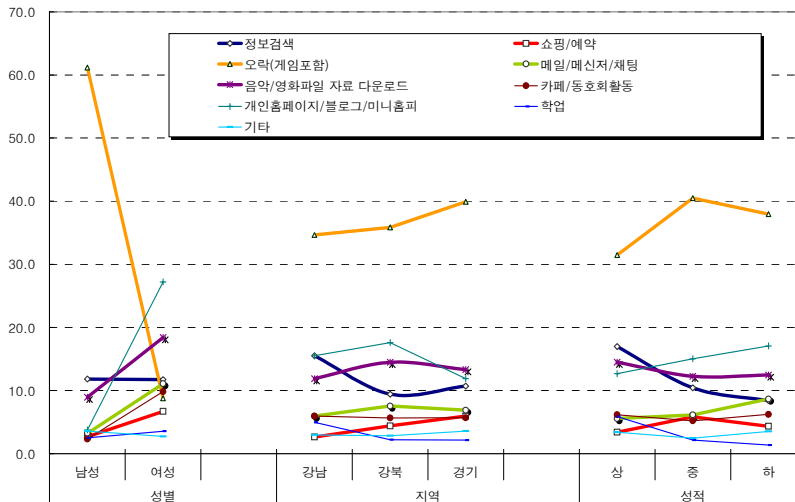
(단위: 분)

	전체	성별		지역			성적		
		남성	여성	강남	강북	경기	상	중	하
일일평균 인터넷이용시간 (주중/분단위)	134.05	136.6	131.2	120.0	136.2	142.7	119.7	130.4	150.7
일일평균 인터넷이용시간 (주말/분단위)	220.08	237.9	200.7	210.9	218.4	228.8	195.9	223.7	240.2

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주중보다는 주말에 인터넷 이용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중 이용시간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나타내고 있어 절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인터넷 이용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중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약 37분 정도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는 강남보다는 강북 학생들이, 그리고 강북보다는 경기지역의 학생들의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성적에 있어서도 상위권 학생보다는 하위권 학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주중

과 주말 구별 없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시간의 측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지표이지만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 IV-4] 속성별 인터넷 이용목적

다음으로는 인터넷 이용목적에 통해 이용자들의 의도 및 이용양상을 살펴 보았다. 조사 결과 여학생을 제외하고는 속성에 구분 없이 게임을 하기위한 인터넷 이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학생들이, 성적에 있어서는 중위권의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목적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분야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이용이었다.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전화나 메일과 함께 미니홈피는 학생들에게 안부 및 정보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게임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성별로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영화나 자료의 다운로드를 위한 이용과 정보 검색을 위한 이용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는 점이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인터넷의 이용이 어떠한 의도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이용자 유형의 세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표 IV-15> 인터넷 이용시간과 문화관련 지식의 관계

		인터넷 이용시간	전교성적	음악채점	미술채점	문학채점
인터넷 이용시간	상관계수	1.000	.131(**)	-.035	-.060	-.147(**)
	유의확률		.000	.259	.055	.000
전교성적	상관계수		1.000	-.315(**)	-.304(**)	-.323(**)
	유의확률			.000	.000	.000
음악채점	상관계수			1.000	.516(**)	.468(**)
	유의확률				.000	.000
미술채점	상관계수				1.000	.485(**)
	유의확률					.000
문학채점	상관계수					1.000
	유의확률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이용시간과 문화적 소양에 관련된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교에서의 성적은 문화적 소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문화적 소양에 미치는 영향은 문학 분야에 있어서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음악분야나 미술 분야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이번 분석 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자본 형성에 있어서 양적인 시간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16> 인터넷 이용시간과 문화 활동관련 정보 이용과의 관계 (상관계수)

	인터넷 이용 시간a	미술활 동(그림 그리기) b	연극 관람c	클래식 음악회 관람d	대중 음악 콘서트 관람e	영화 관람f	만화/ 애니 감상g	뮤지컬 관람h	문학/ 독서i	미술 전시회 관람j	박물관 관람k	악기 연주
a	1.000	-0.002	-0.002	0.018	-0.007	0.030	0.114**	-0.001	0.006	-0.034	-0.044	-0.007
b		1.000	0.486**	0.432**	0.267**	0.234**	0.214**	0.350**	0.396**	0.481**	0.403**	0.335**
c			1.000	0.705**	0.525**	0.288**	0.157**	0.678**	0.376**	0.592**	0.582**	0.432**
d				1.000	0.548**	0.260**	0.144**	0.667**	0.377**	0.659**	0.644**	0.504**
e					1.000	0.295**	0.073*	0.526**	0.270**	0.431**	0.436**	0.319**
f						1.000	0.406**	0.303**	0.297**	0.224**	0.214**	0.210**
g							1.000	0.171**	0.231**	0.121**	0.128**	0.137**
h								1.000	0.343**	0.623**	0.577**	0.397**
i									1.000	0.445**	0.405**	0.348**
j										1.000	0.807**	0.467**
k											1.000	0.506**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문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이용시간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문화 활동은 자신이 직접 활동을 하게 되는 미술이나 독서, 악기 연주와 같은 분야 뿐 만이 아니라 관람을 통해 체험활동을 영위하는 연극 및 영화, 전시회 등의 활동도 포함한다.

분석결과 문화 활동들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다수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 이용시간과 정적이든 아니든 부적이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만화/애니메이션 감상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정보 활용과 문화 활동

인터넷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확산초기부터 사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검색 서비스였다. 검색은 필요정보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행위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어떤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해당 정보의 양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닌 기본적인 가치와 관심분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표 IV-17〉 속성별 주요 검색 정보

	전 체	성별		지역			전교성적		
		남성	여성	강남	강북	경기	상	중	하
	(1,027)	(550)	(477)	(299)	(312)	(421)	(321)	(324)	(364)
뉴스,시사	13.4	18.0	8.2	17.1	12.2	11.6	17.8	12.0	11.3
교육및학습관련 정보	5.9	5.3	6.7	6.7	6.4	5.2	9.0	4.6	4.4
음식점,식사	0.9	1.3	0.4	1.0	0.6	1.0	0.0	1.5	1.1
공연,전시	3.1	2.9	3.4	3.7	3.8	2.1	2.2	4.6	2.2
도서,음반	14.6	16.5	12.4	13.7	16.0	14.3	15.3	17.6	10.4
의료,건강	1.0	1.3	0.6	0.3	1.9	0.7	1.9	0.6	0.5
쇼핑,가격비교	12.5	9.6	15.7	9.4	11.9	15.2	10.9	11.1	15.1
유행및패션	12.5	7.5	18.2	10.7	12.5	13.8	10.3	14.5	12.6
스포츠	11.9	21.8	0.4	12.4	10.6	12.4	12.8	9.9	12.4
인물(정치인,연예 인,스포츠스타)	24.2	15.8	34.0	25.1	24.0	23.8	19.9	23.5	29.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주로 찾아보는 정보는 어떤 영역에 속한 정보들인지를 조사해보았다.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은 인물에 대한 정보이다. 이때 인물은 정치인과 같은 사회의 주요 리더그룹에 속한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정치인 보다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영역에 있어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성적에 있어서는 상위권 학생보다는 하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뉴스와 시사, 도서 및 음반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에 비해 작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행 및 패션이나 쇼핑·가격정보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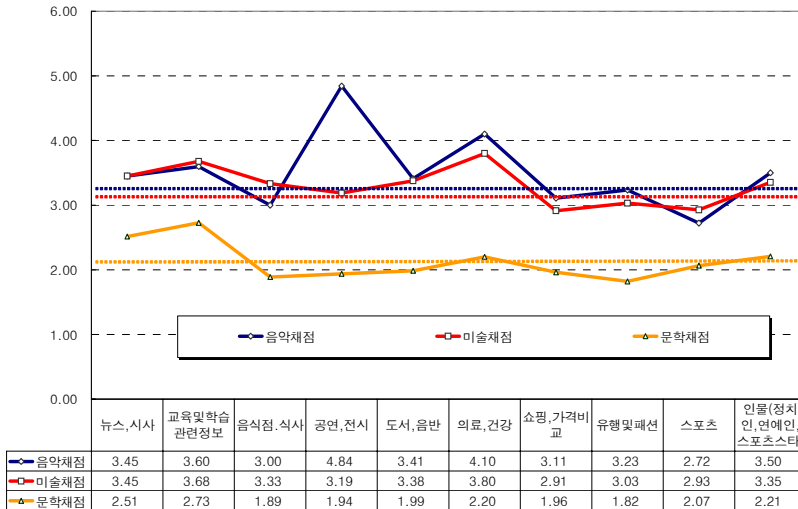
반면 기성세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빈번하게 활용되는 음식점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검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세대별로 필요정보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청소년들만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라고 할 것이다.

이를 문화적 역량의 부분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인터넷을 통해 주로 찾는 정보를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음악과 미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정도와 연결해보았다. 흥미로운 결과가 산출되었는데, 공연,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이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 시사와 교육 및 학습정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문학관련 지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행 및 패션이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에서의 정보 활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속성별로 분류, 비교해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 영화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비슷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가 두드러졌다.

각각의 속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강북과 경기에 비해 강남이, 성적에 있어서는 중위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어떠한 분야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화역

량의 강화를 도모할 때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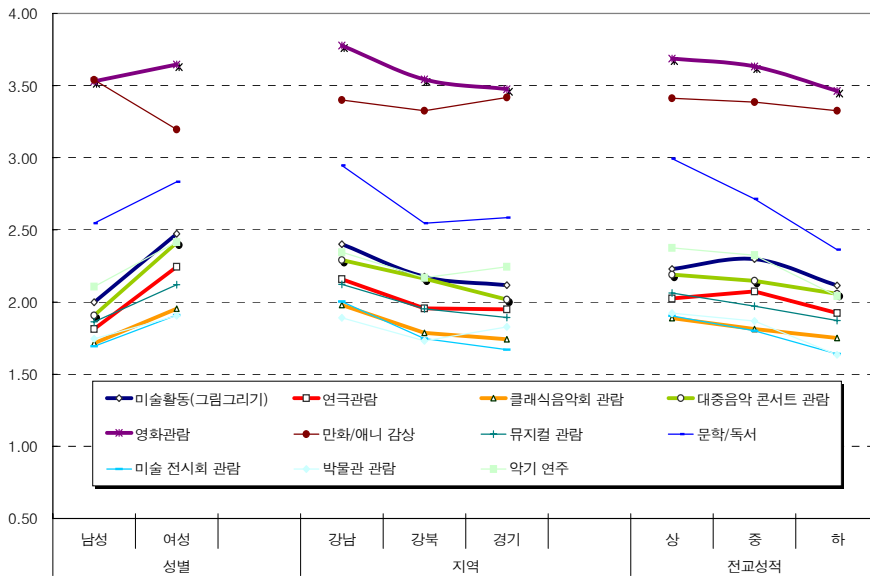


*주: 점선은 각 영역의 평균을 의미

[그림 IV-5] 속성별 주요 검색분야와 문화관련지식

다음으로는 위에서 활용한 인터넷은 주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 그림이다. 가장 두드러진 활용을 보인 서비스는 블로그/미니홈피였다. 미니홈피서비스 초기의 모델은 주로 인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적인 의미가 강했다면 현재는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일상의 기록들을 축적해 놓은 정보의 저장고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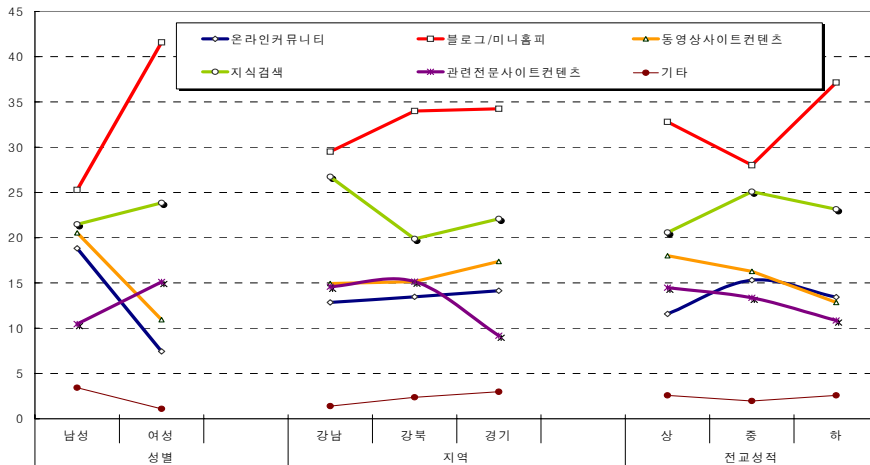
이런 차원에서 타인의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서비스는 지식검색서비스로 나타났는데 비해 관련전문사이트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용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6] 속성별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 활동 관련 정보 습득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동영상사이트의 콘텐츠나 커뮤니티 서비스는 남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에도 인터넷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청소년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문화관련 콘텐츠의 축적과 이용을 위한 전략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림 IV-7] 속성별 주요 이용 서비스

다. 사이버커뮤니티 활동과 문화자본

인터넷의 도입과 함께 제기되었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사이버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초기의 사이버 커뮤니티가 개인의 경험과 속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시 말해 기존의 알고 있었던 관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적 의미가 강했다면 현재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각자가 가진 관심에 기반하여 약하지만 다수의 관계 창출에 유리한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도 사이버 커뮤니티의 역할을 중요하다. 같은 문화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직접적인 네트워킹의 장이 되기도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학습의 장으로서도 역할하고 있다.

영역별로 커뮤니티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분야는 음악관련 커뮤니티였다. 아울러 영화/비디오 관련 커뮤니티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공연관련커뮤니티나 미술관련 커뮤니티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 만화/애니메이션 커뮤니티의 가입률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방송/연예관련 커뮤니티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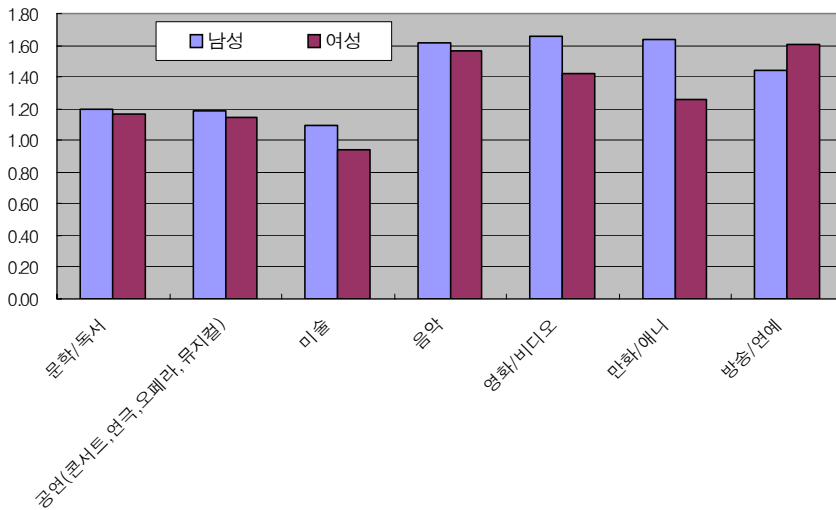
〈표 IV-18〉 속성별 사이버 커뮤니티 가입여부

		전 체	성별		지역			전교성적		
			남성	여성	강남	강북	경기	상	중	하
문학/독서	비가입	79.9	82.0	77.5	80.6	80.7	78.9	73.2	78.6	86.2
	가입	20.1	18.0	22.5	19.4	19.3	21.1	26.8	21.4	13.8
공연(콘서트, 연극,오페라, 뮤지컬)	비가입	82.2	85.8	77.8	78.5	80.7	86.1	76.8	79.8	89.0
	가입	17.8	14.2	22.2	21.5	19.3	13.9	23.2	20.2	11.0
미술	비가입	91.4	92.7	89.9	88.6	91.1	93.8	88.8	92.2	93.7
	가입	8.6	7.3	10.1	11.4	8.9	6.2	11.2	7.8	6.3
음악	비가입	40.3	42.5	37.8	35.9	39.3	44.5	39.5	40.2	41.9
	가입	59.7	57.5	62.2	64.1	60.7	55.5	60.5	59.8	58.1
영화/비디오	비가입	41.5	39.7	43.5	37.2	41.0	45.3	39.8	40.7	44.2
	가입	58.5	60.3	56.5	62.8	59.0	54.7	60.2	59.3	55.8
만화/애니	비가입	51.4	42.8	61.5	53.8	53.9	48.1	49.2	55.7	50.4
	가입	48.6	57.2	38.5	46.2	46.1	51.9	50.8	44.3	49.6
방송/연예	비가입	59.9	70.9	46.9	59.9	60.8	59.2	58.6	59.9	60.4
	가입	40.1	29.1	53.1	40.1	39.2	40.8	41.4	40.1	39.6

다음은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정도를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의 활동양상이 여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가입률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방송/연예 관련 커뮤니티에서의 여학생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정도와 문화적 소양과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른 영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한 반면, 공연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정도는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⁰⁾

20) 커뮤니티 활동 정도는 역방향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 관계의 방향을 반대로 해석해주어야 함.



[그림 IV-8] 성별/분야별 사이버커뮤니티 활동정도

<표 IV-19> 사이버커뮤니티 활동정도와 문화적 소양

		문학/ 독서	공연	미술	음악	영화/ 비디오	만화/ 애니	방송/ 연예
음악	상관계수	-0.071	-0.120**	-0.114*	-0.019	0.022	-0.017	0.015
	유의확률	0.095	0.006	0.012	0.610	0.560	0.663	0.698
미술	상관계수	-0.023	-0.070	-0.040	0.078*	0.052	0.035	0.063
	유의확률	0.595	0.110	0.376	0.031	0.164	0.361	0.111
문학	상관계수	-0.063	-0.052	-0.070	0.006	0.025	0.018	0.011
	유의확률	0.134	0.233	0.122	0.868	0.503	0.638	0.787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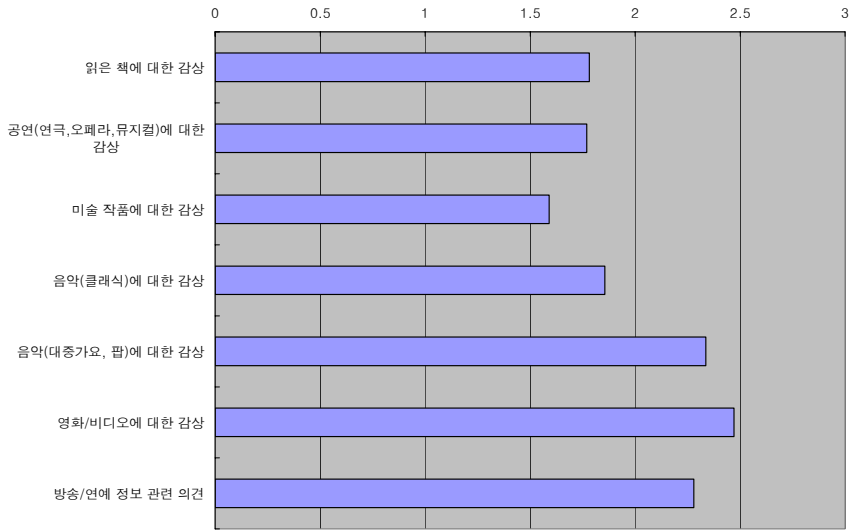
라. 개인미디어의 활용과 문화자본

개인미디어의 활용은 향후 웹2.0 환경 하에서 더욱 활발한 이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응답자 중 66.6%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부 속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적에 있어서는 중위권 학생들이 활발한 이용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0〉 속성별 개인미디어 이용현황

		사례수(명)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계
			그렇다	아니다	%
전 체		(985)	66.6	33.4	100
성별	남성	(530)	53.0	47.0	100
	여성	(455)	82.4	17.6	100
지역	강남	(294)	65.0	35.0	100
	강북	(301)	67.8	32.2	100
	경기	(395)	67.1	32.9	100
성적)	상	(312)	65.7	34.3	100
	중	(313)	71.9	28.1	100
	하	(347)	63.7	36.3	100

문화 활동의 차원에서 자신의 개인미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클래식 음악보다는 대중가요나 팝에 대한 감상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화/비디오를 보고 난 감상이나 방송/연예 정보와 관련한 의견들을 올리는 것이 읽은 책이나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의 공연에 대한 감상과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 보다 빈번한 게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9] 개인미디어 활용정도-문화관련 게시물

<표 IV-21> 개인미디어 활용과 문화관련 지식과의 관계

		음악채점	미술채점	문학채점
읽은 책에 대한 감상	상관계수	0.095**	0.086**	0.043
	유의확률	0.002	0.006	0.168
공연(연극, 오페라, 뮤지컬)에 대한 감상	상관계수	0.073	0.050	0.028
	유의확률	0.020	0.114	0.366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	상관계수	0.057	0.057	-0.006
	유의확률	0.068	0.069	0.858
음악(클래식)에 대한 감상	상관계수	0.101**	0.071*	0.049
	유의확률	0.001	0.024	0.120
음악(대중가요, 팝)에 대한 감상	상관계수	0.067*	0.061	0.024
	유의확률	0.032	0.051	0.446
영화/비디오에 대한 감상	상관계수	0.045	0.016	0.000
	유의확률	0.153	0.606	0.994
방송/연예 정보 관련 의견	상관계수	0.014	0.003	-0.004
	유의확률	0.645	0.913	0.902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이러한 개인미디어를 활용한 행위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형성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읽은 책에 대한 감상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감상, 그리고 대중가요에 대한 감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클래식에 대한 감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이용이 청소년의 문화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함의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서 인터넷 이용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학습 및 여가 활용을 위해 이용되는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성숙해짐과 함께 콘텐츠는 다양해지고 있고, 인터넷은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위한 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활발한 인터넷 이용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화적 역량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인터넷 이용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활용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대적인 인터넷 이용시간의 증가가 문화자본의 축적이나 역량의 확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인터넷에 소비하는 시간만큼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문화적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석결과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청소년들은 문화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고 개인미디어 활동이나 문화관련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 나타났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문화관련 기반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와 학습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체적인 문화 관련 콘텐츠의 생산을 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우선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좋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청소년과 대중문화

가. 대중문화소비 활동: 현재와 희망 상태

청소년들의 문화역량과 대중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향수 혹은 소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항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활동 빈도를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대중문화 소비활동이 고급문화를 포함한 다른 문화 콘텐츠의 소비활동과 같이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문화 소비활동을 파악했을 때 장점은 청소년들의 문화소비활동에서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사실이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문화소비 활동의 항목들에 대하여 각기 ‘전혀 한 적이 없다’, ‘거의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자주 한 편이다’, ‘매우 자주했다’의 범주들에서 선택하도록 질문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방식에서 조사결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하나는 5점 척도를 바탕으로 등간척도로 간주되어 분석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점 척도를 그대로 명목척도로 간주하거나 혹은 3점 척도로 축소하여 명목척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이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모두 통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적합성은 두 가지 방식 모두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등간척도로 취급이 가능한 변수들은 모두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평균, 표준편차, 척도, 왜도를 살펴보았다. 표준편차가 너무 적거나, 척도와 왜도가 너무 큰 변수들은 측정도구로서의 적합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소비 활동 경험 비교를 한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문화소비 활동에 대한 응답결과가 한 쪽으로 편향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도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없다. 하지만 영화관람, 만화/애니 감상, 문학/독서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서 왜도가 모두 정의 방향으로 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소비 활동 자체가 소수의 항목들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이 조사에서 사용했던 5점 척도의 구분이 청소년들의 문화소비 현황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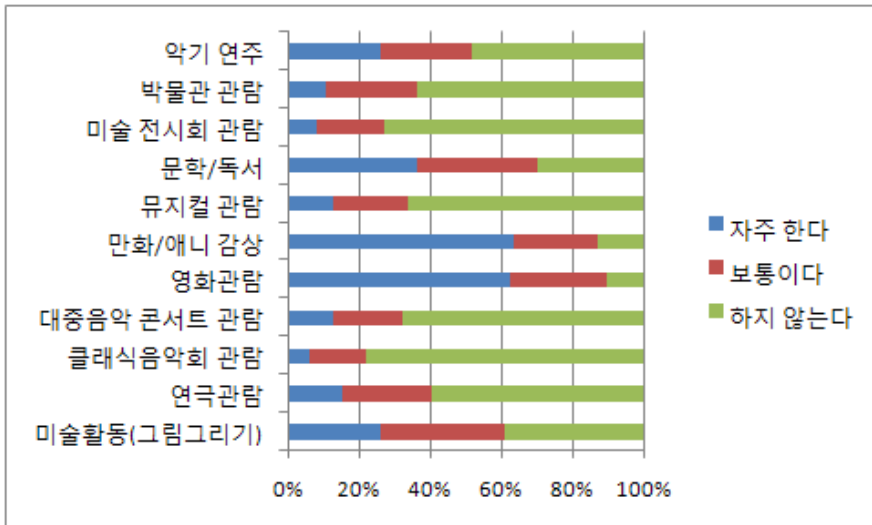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5점 척도로 측정된 범주들을 3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명목척도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자주 한 편이다’와 ‘매우 자주했다’를 ‘자주 한다’로 간주하였으며, ‘전혀 한 적이 없다’와 ‘거의 하지 않은 편이다’를 ‘하지 않는다’로 파악하였다. ‘보통이다’는 그대로 ‘보통이다’로 간주하였다.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대중문화에 해당하는 뮤지컬 관람, 만화/애니 감상, 영화관람,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등을 자주 수행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문화 활동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자주 수행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만화/애니 감상(63.5%)과 영화관람(62.3%)의 경우였다. 이 두 문화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집단의 비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만화/애니 감상과 영화 관람의 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압도적인 비율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다른 문화 예술 활동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 두 활동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 다른 공연이나 전시 관람에 비해 특히 영화 관람이나 만화/애니 감상의 활동 수행 빈도가 높은 것은 여가제약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22> 문화소비 활동 경험 비교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2.844	1.088	0.190	0.076	-0.551	0.152
연극관람	2.339	1.088	0.502	0.076	-0.477	0.152
클래식음악회 관람	1.873	0.953	1.078	0.076	0.890	0.152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2.098	1.153	0.858	0.076	-0.117	0.152
영화관람	3.746	1.012	-0.582	0.076	-0.071	0.152
만화/애니 감상	3.824	1.113	-0.657	0.076	-0.379	0.152
뮤지컬 관람	2.126	1.143	0.791	0.076	-0.224	0.152
문학/독서	3.109	1.177	-0.050	0.076	-0.767	0.152
미술 전시회 관람	1.984	1.015	0.908	0.076	0.284	0.152
박물관 관람	2.170	1.055	0.607	0.076	-0.311	0.152
악기 연주	2.652	1.293	0.303	0.076	-0.967	0.152



[그림 IV-10] 문화 활동 수행 경험의 종류별 빈도 비교

대중음악콘서트 관람의 경우 자주 한다는 비율이 높지 않다. 하지만 고급 예술에서 비교할 만한 경우인 클래식음악회 관람을 자주 한다는 비율이 6.0%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12.8%로 상대적으로 자주 수행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뮤지컬 관람의 경우 자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13.0%여서 자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5.4%인 연극 관람의 경우에 비해 낮았다. 뮤지컬 관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장료가 비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에게 여가 장애로서 비용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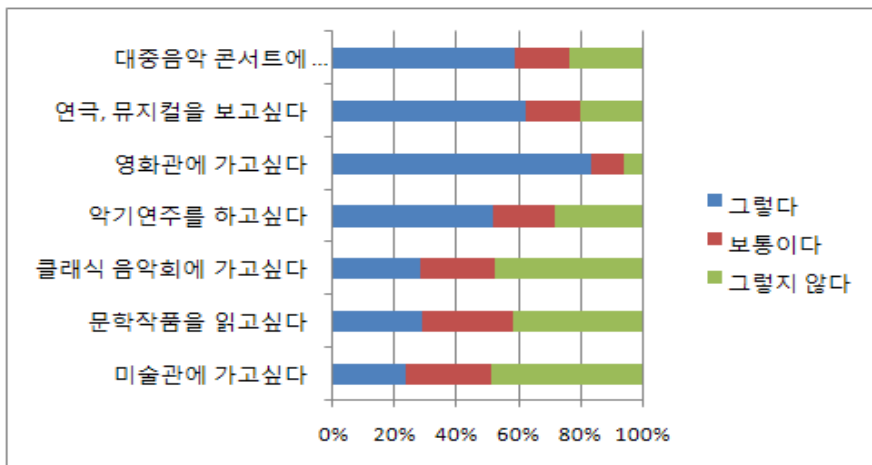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영화 관람과 만화/애니 감상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수행할 수 있는 대중문화 향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주 활동하는 빈도가 높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고급 예술에 비해 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 현황이나 활동 경험 정도에 대한 해석은 간단치 않다. 이러한 활동 현황이나 경험은 청소년들의 선호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현재 여건에서 어떠한 제약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 요인의 극복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여러 문화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수행하길 희망하는 정도를 물어 보았다. 여기에서는 모두 7가지 종류의 문화 활동들에 대하여 희망하는 정도를 물어 보았다.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화 활동들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물어 본 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가지 선택지에서 응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보면 앞서 살펴 본 문화소비 활동에 비하여 ‘영화관에 가고 싶다’를 제외하면 왜도의 크기가 대체로 줄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첨도의 크기는 대체로 커졌음을 볼 수 있다.

〈표 IV-23〉 문화 활동의 희망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미술관에 가고싶다	2.572	1.207	0.278	0.076	-0.878	0.151
문학작품을 읽고싶다	2.783	1.221	0.132	0.076	-0.916	0.151
클래식 음악회에 가고싶다	2.679	1.284	0.251	0.076	-1.027	0.151
악기연주를 하고싶다	3.333	1.364	-0.382	0.076	-1.066	0.151
영화관에 가고싶다	4.267	0.965	-1.513	0.076	2.165	0.152
연극, 뮤지컬을 보고싶다	3.698	1.322	-0.707	0.076	-0.674	0.152
대중음악 콘서트에 가고싶다	3.587	1.399	-0.598	0.076	-0.937	0.151

다음으로는 5점 척도로 조사된 항목들을 3개의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그렇다’로 합쳤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로 합쳤으며, ‘보통이다’는 그대로 두었다.



[그림 IV-11] 청소년이 희망하는 문화 활동의 종류별 비교

여기에서는 제시한 문화 활동을 모두 엄밀하게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대중음악 콘서트에 가고 싶다’와 ‘영화관에 가고 싶다’가 주로 대중문화와 연관된 문화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연극, 뮤지컬을 가고 싶다’나 ‘악기연주를 하고 싶다’의 경우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모두와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클래식 음악회에 가고 싶다’, ‘문학작품을 읽고 싶다’, ‘미술관에 가고 싶다’의 경우는 모두 고급문화와 주로 연관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영화관에 가고 싶다’나 ‘대중음악 콘서트에 가고 싶다’와 같이 대중문화와 주로 연관된 활동이나 ‘악기연주를 하고 싶다’나 ‘연극, 뮤지컬을 보고 싶다’ 등과 같이 대중문화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을 희망하는 비율이 고급문화와 연관된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클래식 음악회에 가고 싶다’, ‘문학작품을 읽고 싶다’, ‘미술관에 가고 싶다’의 경우에는 활동을 희망한다는 응답 비율이 20%대에 머물렀다. 반면 ‘대중음악 콘서트에 가고 싶다’와 ‘영화관에 가고 싶다’, ‘연극, 뮤지컬을 가고 싶다’나 ‘악기연주를 하고 싶다’의 경우 활동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모두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의 문화소비활동의 현황이나 희망 상태에서 모두 대중문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대중문화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과는 별개로 대중문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청소년들의 문화역량을 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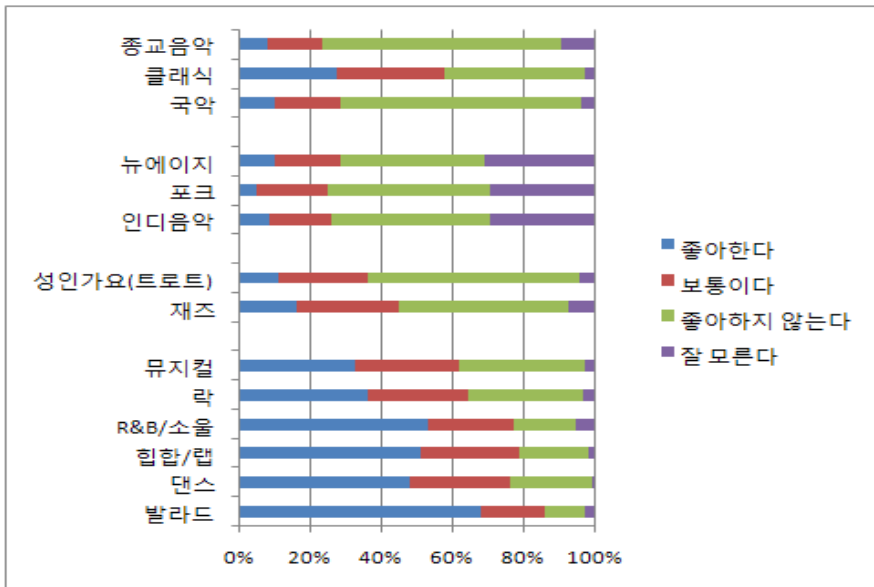
나. 대중문화 취향: 음악 취향

다음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취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14가지의 음악 장르에 대하여 각각을 선호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여기에서도 대중음악 장르와 고급음악 장르에 대한 취향을 한 질문에서 동시에 조사하였다. 각 음악장르에 대하여 응답자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이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의 선택지 중에서 골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장르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

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별도로 준 것이 앞서와 같은 등간척도 분석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응답결과는 ‘매우 좋아한다’와 ‘좋아한다’를 ‘좋아한다’로, ‘보통이다’는 그대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를 ‘좋아하지 않는다’로 ‘이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그대로 ‘잘 모른다’로 범주를 재구성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음악장르를 청소년들의 취향에 따라 4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었다.

종교음악, 클래식, 국악 등은 전통적인 고급문화로서 좋아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들 중에서 선호하는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클래식의 경우 좋아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27.8%로 나타났고, 다른 두 장르의 경우 좋아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0% 내외였다.



[그림 IV-12] 음악종류별 선호도 비교

다음으로 뉴에이지, 포크, 인디음악의 경우 좋아한다는 비율도 낮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도 높았다. 뉴에이지는 뚜렷하게 다른 장르와 구별되

는 음악적 특성이 약한 경우라 할 수 있고, 인디음악은 워낙 비주류 음악이어서 대중들에게 널리 소개되지 못한 경우이며, 포크는 대중문화가 가지는 유행성이 약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장르들이 대중적 인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잘 모르거나 좋아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성인가요와 재즈는 잘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처럼 대중들에게는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상태이나 좋아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발라드, 댄스, 힙합/랩, R&B/소울, 락, 뮤지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좋아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은 대중음악들의 장르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발라드, 댄스, 힙합/랩, R&B/소울과 같이 좋아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 보다 많은 경우였다. 최근의 대중음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락과 뮤지컬로서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응답의 비율도 비교적 높으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수준으로 높은 경우이다. 좋아하는 응답과 좋아하지 않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이상에서 봤을 때 청소년 집단의 음악에 대한 취향에서도 선호하는 음악 종류에서 대중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와 같이 음악 장르를 세분화하여 질문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응답자들이 세분화된 음악 장르의 특성과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에 대해서 본인의 선호도를 정확히 응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다수의 응답자들이 세분화된 장르간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다면 응답 결과가 신뢰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잘 모른다는 응답이 인디음악, 포크, 뉴에이지를 제외하면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인디음악, 포크, 뉴에이지의 장르에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30% 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응답자들이 장르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하여 장르별로 차별화된 응답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장르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르별로 선호도가 뚜렷하게 차이난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장르의 차이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인지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별해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 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다수의 응답자들이 대중문화, 그 중에서도 대중음악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대중문화 관련 직업군에 대한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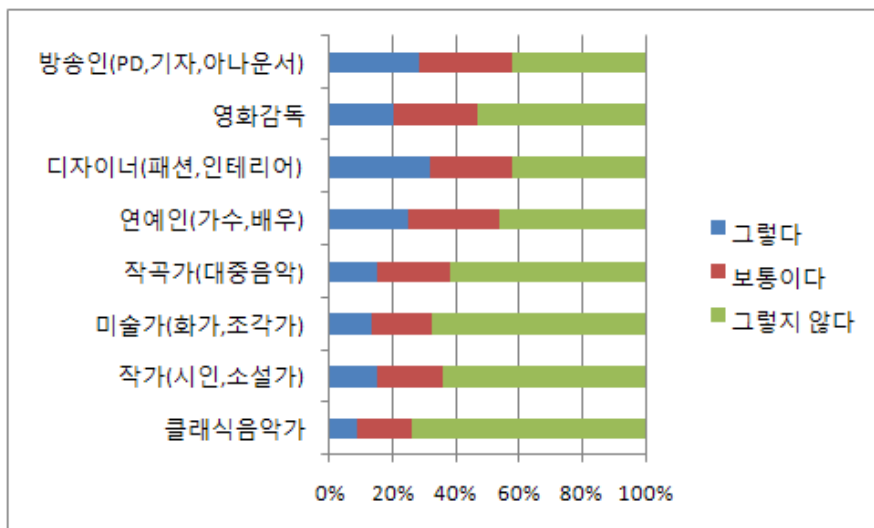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문화소비와 세계관에서 대중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에서도 반영된다. 문화 관련 직종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8가지 종류의 직업군을 제시하고 이 직업들에 대한 희망 정도를 물어 보았다. 질문은 8가지 직업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직업군에 대하여 희망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아직 구체적인 미래 직업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질문 방식이 여러 직업군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 보다 잠재적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할 수 있다.

응답자들에게 문화 관련 직업군을 제시한 후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가지 선택지에서 응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5점 척도로 조사된 항목들을 3개의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그렇다’로 합쳤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로 합쳤으며, ‘보통이다’는 그대로 두었다.

〈표 IV-24〉 장래 직업으로서 희망하는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클래식음악가	1.929	1.028	0.982	0.076	0.309	0.151
작가(시인, 소설가)	2.186	1.151	0.670	0.076	-0.484	0.151
미술가(화가, 조각가)	2.089	1.152	0.838	0.076	-0.197	0.151
작곡가(대중음악)	2.214	1.147	0.586	0.076	-0.615	0.152
연예인(가수, 배우)	2.642	1.260	0.257	0.076	-0.919	0.152
디자이너 (패션, 인테리어)	2.761	1.323	0.089	0.076	-1.144	0.151
영화감독	2.446	1.182	0.364	0.076	-0.823	0.151
방송인 (PD, 기자, 아나운서)	2.706	1.260	0.107	0.076	-1.031	0.151



[그림 IV-13] 문화관련 직업에 대한 희망 정도 비교

여기에서 미술가(화가, 조각가), 작가(시인, 소설가), 클래식 음악가 등은 고급문화와 관련된 직종이며, 영화감독, 연예인(가수, 배우), 작곡가(대중음악)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직종이다. 방송인(PD, 기자, 아나운서)과 디자이너(패션, 인테리어)는 고급문화나 대중문화의 특정 문화 영역과 배타적으로 연결되는 직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적 창의성과 상당히 관련 있는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y)의 직종이라 할 수 있다. 창의 산업의 문화적 정체성을 본다면 특정 고급문화나 대중문화의 장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잡식성(omnivore)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결과 고급문화와 관련된 직업군인 미술가, 작가, 클래식 음악가가 되겠다는 응답 비율은 15% 이하 정도였다. 반면 대중문화와 관련된 직업군인 작곡가(대중음악)가 되겠다는 응답 비율은 15.0%, 연예인(가수, 배우)이 되겠다는 응답 비율은 24.9%,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응답 비율은 20.2%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고급문화와 관련된 직업군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예인이 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자들 4명 중 1명꼴이라는 사실은 이들 직종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중문화 직업군 보다 더 높은 희망 비율을 보인 것은 창의산업 직종이었다. 디자이너(패션, 인테리어)가 되겠다는 응답 비율이 31.8%, 방송인(PD, 기자, 아나운서)이 되겠다는 응답 비율이 28.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문화적 직업군에 대한 높은 희망 비율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접근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에 대한 해석이다. 연예인, 디자이너(패션, 인테리어), 방송인(PD, 기자, 아나운서)에 대하여 되고 싶다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모두 50%를 넘지 않는다. 즉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연예인, 디자이너, 방송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문화역량에 관한 논의나 문화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가지는 의의가 매우 크다. 대중문화와 직접 연관되는 직종, 대중문화와의 접촉이 많은 직종들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희망 직업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소비는 단순히 대중문

화의 소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창작자로서 혹은 관련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라. 대중문화 창작 및 실연 활동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창작 및 실연 활동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대중문화와 관련된 8가지 항목들에 대하여 ‘할 줄 안다’, ‘하고 싶지만 할 줄 모른다’, ‘하고 싶은 마음도 능력도 없다’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할 줄 안다’는 ‘늘 하고 있다’는 응답과 ‘할 줄 알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는 응답을 합한 것이다.

‘할 줄 안다’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노래 부르기’의 비율이 7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래 부르기’가 초급교육의 단계에서부터 교육되고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여가 문화가 노래방에서 노래부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높은 응답 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DJ 보기, 만화그리기, 소설이나 대본 쓰기에 대해서 할 줄 안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고 싶지만 할 줄 모른다’를 기준으로 보면 ‘할 줄 안다’를 기준으로 파악할 때와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하고 싶지만 할 줄 모른다’에 대한 응답은 앞으로의 교육 콘텐츠가 공급되어야 할 분야를 제시한다. ‘하고 싶지만 할 줄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을 보면 ‘연주하기’와 ‘작곡이나 작사하기’가 각각 46.2%, 43.2%로 가장 높았다.

문항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창작이나 실연활동의 수준이 고르지 못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노래부르기의 경우 다양한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노래부르기의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포착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마. 대중문화 담론 참여

청소년이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문화산업과 미디어에 의해서 제공되는 대중문화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이 아니다. 청

소년에게 수용된 대중문화의 콘텐츠는 일차적인 소비 이후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담론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재차 소비된다. 이러한 소비의 과정에 대한 파악 없이 청소년의 문화역량이 축적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 사이의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의사소통과 인터넷에서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글쓰기 참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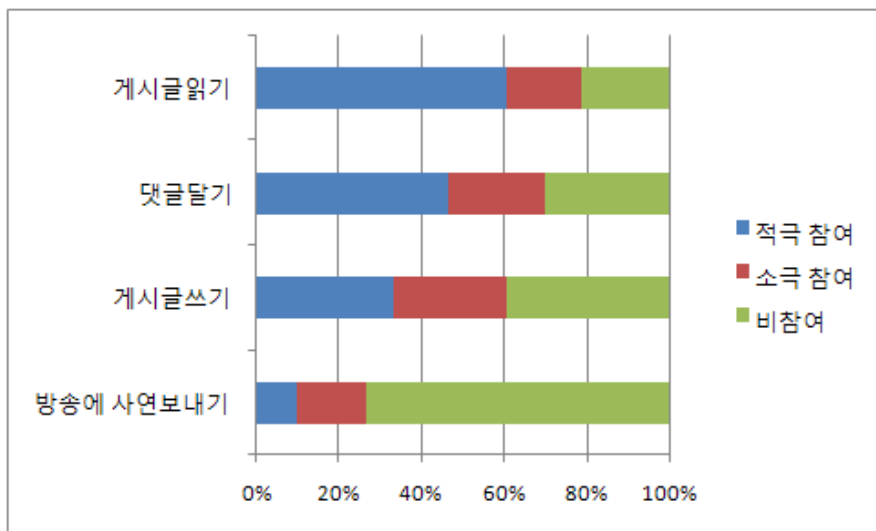
먼저 인터넷 사이트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글쓰기 참여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문화소비자로서 운영하는 매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게시글 읽기, 게시글 쓰기, 댓글 달기, TV,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사연 보내기와 같은 4가지 종류의 참여형태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응답자들은 ‘거의 매일한다’, ‘일주일에 몇 번 한다’, ‘한 달에 몇 번 한다’, ‘일년에 몇 번 한다’, ‘거의 안 한다’의 선택지에서 골라 응답하였다. 이러한 5가지의 선택지를 5점 척도로 간주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기술통계량을 얻었다.

〈표 IV-25〉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대중문화 담론 참여 활동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게시글읽기	2.568	1.485	0.614	0.076	-1.051	0.152
게시글쓰기	3.428	1.491	-0.283	0.076	-1.413	0.152
댓글달기	3.037	1.521	0.137	0.076	-1.493	0.152
TV,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보내기	4.404	1.141	-1.845	0.076	2.206	0.152

다음으로는 ‘거의 매일 한다’와 ‘일주일에 몇 번 한다’를 묶어 ‘적극적 참여’로, ‘한 달에 몇 번 한다’와 ‘일년에 몇 번 한다’를 묶어 ‘소극적 참여’로, ‘거의 안 한다’를 ‘비참여’로 간주하여 3가지 범주의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게시글 읽기 였다. 다음으로는 댓글달기, 게시글 쓰기, 방송에 사연 보내기와 같은 순서였다.

게시글 읽기나 댓글 달기의 경우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 층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게시글 쓰거나 방송에 사연 보내기와 같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내용물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참여층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IV-14]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매개활동

바. 대중문화와 친구 사귀기

대중문화의 담론화를 통한 재소비화의 과정은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친구 사귀기와 연관된다. 대중문화 담론을 통한 친구 사귀기는 문화자본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내지 유지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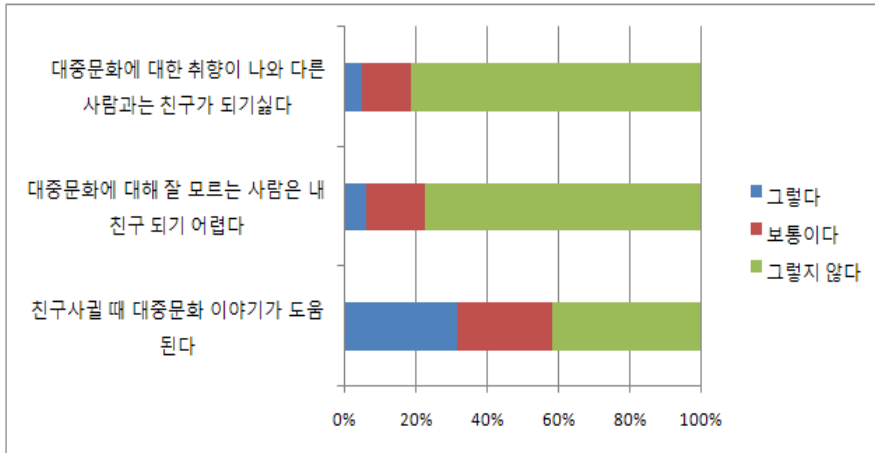
이 조사에서는 대중문화가 친구 사귀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 중에서 3

가지 경우를 골라 지문으로 제시한 각 가능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은 항목들에서 왜도와 첨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6> 대중문화와 친구 사귀기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내가 친구를 사귄 때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	3.685	1.780	0.059	0.076	-0.866	0.151
대중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친구가 되기 어렵다	2.232	1.454	1.108	0.076	0.679	0.152
대중문화에 대한 취향이 나와 다른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싫다	2.042	1.367	1.248	0.076	0.934	0.152

다음으로는 ‘중간’을 넘어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 쪽에 가까운 3가지 응답지를 ‘그렇다’로, ‘중간’을 ‘보통이다’로, ‘중간’ 아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쪽에 가까운 3가지 응답지를 ‘그렇지 않다’로 재구성하였다. 결과를 보면 친구 사귄 때 대중문화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중문화에 대한 취향의 차이나 무지가 친구 사귀기에 방해가 된다는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IV-15] 대중문화와 청소년의 친구 사귀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일단 대중문화는 긍정적인 도움의 역할을 하지만 차별이나 배제의 기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문화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평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교제 관계에 대중문화가 끼치는 영향은 이 조사에서 사용한 항목들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설문을 위해 더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

5) 연구결과 토의 및 정책제언

① 연구결과

청소년문화자본 개념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화자본 개념의 배경, 발전 그리고 논쟁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문화자본 논의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계층 사이에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차이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에도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분배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치 인적자본과 같이 개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역량이나 창의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에 강조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개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문화 취향과 행동을 주요 차원으로 본다. 이 차원은 청소년 역량/창의성과 관련이 깊다. 둘째, 한국사회 청소년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문화 활동을 주요 차원으로 설정한다. 셋째, 전통적 의미의 문화자본이 포함하고 있는 대중문화에 관한 논의를 주요 차원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함의를 파악하고자 부모 지위, 가족배경, 지역 등 다양한 배경 변수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변수는 특히 세 번째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개발 모형에 따라 문화 취향과 행동, 사이버 공간과 문화, 대중문화, 차원에 포함되는 하위 항목을 각각 선정하였다. 청소년 역량/창의력 차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취향, 직업 관련 선호도, 문화 활동 선호도, 문화 활동 빈도, 음악/미술/문학 등 각 장르별 지식을 포함시켰다.

사이버공간과 문화 차원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 사용 빈도, 시간, 선호,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 활동 등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 활동은 최근 젊은 세대의 문화 활동 특히 대중문화 활동이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중문화 활동과 같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에는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중에서 특히 포괄성이 높은 음악장르를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형태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주 사용되었던 장르를 중심으로 문화취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족배경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두 가지 형태의 가족배경 변수를 포함하였다. 먼저 청소년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의 문향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간접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에 의한 부모 문화 활동 평가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활동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활동들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를 고려하여 개별 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일차적으로 개발되고 선정된 개별지표는 설문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아울러 조사의 효율성과 자료수집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별 문항의 위치 선정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개별 항목을 수정하였다.

선정된 지표항목들의 실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값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 1,0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영역별 차이가 다소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 역량과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별 차이가 드러났다. 아울러 적어도 간접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부모의 문화 활동과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대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한준 외, 2005).

지표 체계와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문화 취향과 행동 차원에서 특히 청소년 본인의 문화자본 하위요소와 관련된 개별 문항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내적 일관성이 보인다. 문제는 정보 측면인데, 분석결과 응답자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변이가 작았다. 대규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청소년 문화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 문화자본은 청소년 본인의 문화자본과는 달리 큰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자본지표로 청소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문화 취향을 보여주는 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당도가 높은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공간과 청소년 문화자본 차원에는 개별 항목의 결과와 각종 관련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표로써 타당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 활동 전반에 인터넷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전반적인 청소년 역량 강

화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이다. 인터넷을 하나의 도구와 공간으로 이용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중문화 차원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문화 소비 현황이 지극히 낮다. 따라서 순수한 척도라는 측면에서 효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척도가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 그 중에서 음악 장르에 관한 취향도 척도로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장르별 차이에 관해서 적절하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 관련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최근 청소년들의 현황을 적절하게 나타낸 것으로 지표로써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지표는 대중문화의 가치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청소년 문화적 역량 강화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중문화창작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응답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인 문항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와 친구 사귀기 분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특별한 부정적인 영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부분에서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분석결과는 우리에게 청소년 문화자본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즉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전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청소년 세대의 문화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문화취향이나 활동이 일종의 분절화 경향을 보이는 유럽국가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사이버공간이나 대중문화 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질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적인 개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② 토의 및 정책제언

200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관련 국가기본계획이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수립·추진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포괄함으로써 ‘대한민국 청소년 정

책'의 기초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역량강화”와 “기회균등”을 핵심이념으로 ①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② 청소년 인권·복지 증진 ③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④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청소년 문화자본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에서 역량강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사회의 지배집단을 구분하는 상징으로 고급문화의 역할에 주목하는 유럽의 문화자본 논의와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자본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부르디외는 미국 학계에는 교육사회학자로 소개되었다. 즉 부르디외는 교육의 역할을 계급구조를 재생산하고 정당화시키며 사회적 구분을 능력으로서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로 규정한 최초로 규정한 학자로 알려졌다.

더욱이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유럽사회와는 다른 풍토도 문화자본 논의를 매우 실용적으로 전개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즉 취향의 가치가 양자적 논리 혹은 대립적 논리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부르디외의 논의보다는 사회적 배제를 이끄는 토대가 되는 문화자본(일종의 상징적 경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용적 흐름은 더나가 구체적인 경험조사와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60년부터 11년간 이상 지속된 ‘탤런트 프로젝트(talent project)’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1960년대 과학의 위기를 일중에 사회체제의 위기를 보고, 미국 사회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전체 재능 향상 문제에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개발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고급문화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 창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은 최근에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복지와도 관련이 깊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의 문화 활동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활동이 매우 단편적

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놀이로만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급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오프라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앞의 논의와 상당 부문 관련이 깊다. 다양한 콘텐츠의 공급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문화 활동과 취향을 지원하는 정책이 같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지표개발 자체만으로는 활용도에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보다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여 그 타당도와 함의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문화자본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차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둘째, 조사 대상자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 활동, 취향, 태도뿐만 아니라 고급문화/대중문화 활동 영역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배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문화자본의 함의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청소년 문화자본의 영향을 일종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없었다. 물론 이러한 영향은 다소 장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경우 성적 등 일종의 결과나 영향을 의미하는 변수가 이번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인 자료 분석이나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영향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른 지표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연구도 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핵심지표는 장기적인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²¹⁾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²²⁾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7년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여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前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2005년 “한국청소년개발지표연구”의 일환으로 수집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청소년행복지수를 2006년 상반기에 발표한 바 있다. 2006년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에는 한국청소년의 행복감을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지표의 개발을 도모한 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생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 지수 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연구의 이년차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행복지수라 함은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생산의 한 유형으로 이해 가능하다. 사회지표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심 및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변화를 측정·보고하는 하나의 계량적 도구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표의 역할은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

21)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의 원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

22) 행복이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호쾌한 상태(국립국어원, 1999)’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가깝게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의 행복감이란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이고 합리적 판단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 속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총합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은 다수의 심리학적 개념들, 예를 들면, 자존감(self-esteem), 우울(depression),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소외(alienation)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은 앞서 언급한 모든 심리적 상태들의 궁극적 종착지점(bottom-line finality)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단순한 감정적 행복감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보다 넓은 의미의 행복감을 사용하고자 한다.

서 변화방향을 발견하고 사회적 상태를 기술하며 사회문제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지표는 사회적 추세를 추적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목표설정과 사업의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 연구를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하여 2007년 행복지수의 개발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제시 하고자 한다²³⁾. 2007년 연구의 첫째 단계는 지수산출을 위한 세부 지표들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부지표의 개발과 확정은 지수개발의 전제조건이 된다. 다음 단계는 개념에 대한 내용타당도 확보작업이다. 내용타당도 확보 작업은 기존 자료의 분석이나 상식적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역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도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복감과 관련된 과거 연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실제 측정문항의 생산이다. 실제 문항 생산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된 것은 바로 문항의 액면타당도(face validity)이다. 측정문항이 개발되고 관련 전문가들의 액면타당도 검토가 끝난 후 실제 조사를 통해 각 문항들의 측정속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 연구결과 6개 영역 총 40개의 측정문항들은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으며 각 영역별 가중치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위 과정을 통해 개발된 지표들을 통하여 한국청소년의 행복감을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행복지수를 시계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 행복지수 산출

다음의 한국청소년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항목들이다.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계수를 통해 살펴본 지표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2006년, 2007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보다 자세한 지수개발과정은 김신영 외(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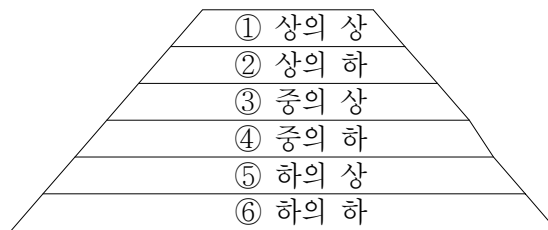
(1) 경제적 안녕(Economic Well-Being)

경제적 안녕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계층귀속감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① 계층 귀속감

계층귀속감은 객관적인 소득이나 자산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주관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계층연구의 결과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이나 이탈 등을 설명하는데 실제 소득, 교육 등을 통해 측정된 계층보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귀속감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mountain)척도를 사용하여 총 6개의 급간(6점 척도)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다. 실제 행복지수 산출과정에서는 6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사회계층을 아래와 같이 나누었을 때 귀하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②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두 문항의 응답결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이 Cronbach-alpha 값을 통해 확인되었다.

<표 IV -27>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1.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u>.928</u>	<u>.840</u>	<u>.933</u>	<u>.851</u>
	2.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u>.928</u>		<u>.933</u>	

경제적 안녕에 대한 최종 점수는 계층귀속감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하위요인으로 간주하고 주성분분석의 요인부하값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출되었다.

<표 IV -28> 경제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경제적 안녕	1. 주관적 계층귀속감(역코딩)	<u>.853</u>	<u>.866</u>
	2.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u>.853</u>	<u>.866</u>

(2) 자신에 대한 만족(Satisfaction with Self)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만족은 건강상태, 여가생활, 외모, 성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다음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전

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나는 현재의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네 개 문항의 응답결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이 Cronbach-alpha 값을 통해 확인되었다. 자신에 대한 만족의 최종 점수는 건강, 여가생활, 외모, 성격에 대한 만족을 각각의 하위요인으로 간주하고 주성분분석의 요인부하값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산출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의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29> 자신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자신에 대한 만족	1.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u>.724</u>	<u>.717</u>	<u>.728</u>	<u>.683</u>
	2. 나는 현재의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u>.758</u>		<u>.703</u>	
	3.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u>.724</u>		<u>.701</u>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u>.736</u>		<u>.731</u>	

(3) 안전(Safety)

청소년의 안전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는 생활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학교에서의 안전감과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학교에서의 안전감

학교에서의 안전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연구에서 다년간에 걸쳐 사용되어온 다음의 다섯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실제 행복지수 산출과정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나 그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뺑뺑이,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비행 청소년이 많다
내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학교에서의 안전감을 측정하는 다섯 개 문항의 응답결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이 Cronbach-alpha 값을 통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은 학교에서의 안전감이라는 단일요인으로 수렴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학교에서의 안전감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생산하였다. 이 변수는 이후 ‘안전’ 영역의 최종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 IV-30〉 학교에서의 안전감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학교에서의 안전감	1.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나 그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u>.567</u>	<u>.745</u>	<u>.450</u>	<u>.737</u>
	2.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u>.587</u>		<u>.578</u>	
	3.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뺑뺑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u>.802</u>		<u>.792</u>	
	4.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비행 청소년이 많다	<u>.816</u>		<u>.833</u>	
	5. 내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u>.789</u>		<u>.812</u>	

②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을 측정하는 문항 역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되어온 다음의 다섯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실제 행복지수 산출과정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을 측정하는 다섯 개 문항의 응답결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이 Cronbach-alpha 값을 통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다섯 개의 문항은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이라는 단일요인으로 수렴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생산하였다. 이 변수는 이후 ‘안전’ 영역의 최종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 IV-31>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	1.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u>.621</u>	<u>.735</u>	<u>.599</u>	<u>.747</u>
	2. 내가 사는 동네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u>.679</u>		<u>.697</u>	
	3. 내가 사는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u>.753</u>		<u>.760</u>	
	4. 내가 사는 동네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u>.751</u>		<u>.789</u>	
	5.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u>.676</u>		<u>.679</u>	

내적일치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학교에서의 안전감’과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이라는 두개의 새로운 변수가 생성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하여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안전’이라는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IV -32〉 안전감의 하위요인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안전	1. 학교에서의 안전감(역코딩)	.848	.827
	2. 거주지역에서의 안전감(역코딩)	.848	.827

(4)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학업성취를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목별 성적이나 반등수가 높으면 학업성취 자체는 높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것이 청소년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조사연구들에 따르면 객관적 수치로 주어지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정도와 청소년의 행복은 그리 큰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같은 수준의 학업성취가 개인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문헌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현재 자신의 학업성취 정도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5)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여섯 개의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은 세부지표가 투입되었다. 문헌검토 및 전문가 자문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주요 생활공간을 기준으로 구분가능하며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그리고 또래집단과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① 가정에서의 관계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관계를 묻는 소위 표준화된 도구들은 수없이 존재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등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또한 가정내에서의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원만함(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만)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총 다섯 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가정에서의 관계를 측정하는 다섯 개 문항의 응답결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이 Cronbach-alpha 값을 통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형제자매와의 친밀성을 묻는 문항의 요인 부하값이 다소 낮은 하나 다섯 개의 문항은 ‘가정에서의 관계’라는 단일요인으로 수렴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가정에서의 관계’라는 하나의 변수를 생산하였다. 이 변수는 이후 ‘사회적 관계’영역의 최종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 IV -33〉 가정에서의 관계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가정에서의 관계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u>.808</u>	<u>.810</u>	<u>.796</u>	<u>.810</u>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u>.836</u>		<u>.823</u>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u>.852</u>		<u>.841</u>	
	4. 부모님과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u>.728</u>		<u>.742</u>	
	5.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다	<u>.537</u>		<u>.553</u>	

② 학교에서의 관계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조사된다. 여기서는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친구관계’라고 하는 요인이 이후에 독립적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나는 학교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세 개 문항의 응답결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이 Cronbach-alpha 값을 통해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세 개의 문항은 ‘교사와의 관계’라는 단일요인으로

수렴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교사와의 관계’라는 하나의 변수를 생산하였다. 이 변수는 이후 ‘사회적관계’ 영역의 최종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 IV -34〉 학교에서의 관계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학교에서의관계	1. 나는 학교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u>.816</u>	<u>.769</u>	<u>.803</u>	<u>.773</u>
	2.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u>.807</u>		<u>.830</u>	
	3.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u>.858</u>		<u>.853</u>	

③ 친구관계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친한 친구들의 유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 다음 그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감정을 묻고 마지막으로 다음 네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나는 그 친구들(친한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친구관계’를 측정하는 네 개 문항의 응답결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이 Cronbach-alpha 값을 통해 확인되

었다. 요인분석 결과 네 개의 문항은 ‘친구관계’라는 단일요인으로 수렴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값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친구관계’라는 하나의 변수를 생산하였다. 이 변수는 이후 ‘사회적관계’ 영역의 최종 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 IV -35> 친구 관계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친구 관계	1.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u>.844</u>	<u>.820</u>	<u>.856</u>	<u>.818</u>
	2.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u>.874</u>		<u>.883</u>	
	3.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u>.774</u>		<u>.730</u>	
	4.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u>.730</u>		<u>.750</u>	

내적일치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가정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그리고 ‘친구관계’등의 새로운 변수가 생성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하여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세 개의 하위요인들은 ‘사회적 관계’라는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IV -36> 사회적 관계의 하위요인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사회적 관계	1. 가정에서의 관계	<u>.768</u>	<u>.765</u>
	2. 학교에서의 관계	<u>.759</u>	<u>.728</u>
	3. 친구관계	<u>.619</u>	<u>.565</u>

(6) 정서적/정신적 안녕(Emotional/Psychological Well-Being)

청소년의 정서적 안녕은 주관적 행복감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브래드번의 표준화된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특징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각각 다섯 문항씩 균형있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Likert 척도 형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한 다른 문항과는 달리 여기서는 ‘(1) 예 (2) 아니오’ 응답으로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측정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이 도구는 과거 수 많은 행복감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내적일치도나 요인구조 측면 또한 검증은 이미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 후 표에 제시되어 있다시피 이 연구에서의 응답 결과 또한 매우 우수한 측정속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예 (2) 아니오’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실제 행복지수 산출과정에서는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최근 2주간 특별히 어떤 일에 흥미나 재미를 느낀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내가 해 냈던 일에 대해 기뻐했던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많은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

<표 IV-37> 긍정적 정서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긍정적 정서	1. 최근 2주간 특별히 어떤 일에 흥미나 재미를 느낀 적이 있다	<u>.614</u>	<u>.633</u>	<u>.601</u>	<u>.665</u>
	2. 최근 2주간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다.	<u>.670</u>		<u>.683</u>	
	3. 최근 2주간 내가 해 냈던 일에 대해 기뻐했던 적이 있다	<u>.716</u>		<u>.735</u>	
	4. 최근 2주간 기분이 최고조에 달한 적이 있다	<u>.599</u>		<u>.628</u>	
	5. 최근 2주간 많은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	<u>.585</u>		<u>.617</u>	

②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1) 예 (2) 아니오’의 응답지로 측정하였다.

최근 2주간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안절부절 한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매우 외롭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

<표 IV-38> 부정적 정서의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부정적 정서	1. 최근 2주간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안절부절 한 적이 있다	<u>.569</u>	<u>.666</u>	<u>.578</u>	<u>.625</u>
	2. 최근 2주간 매우 외롭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u>.747</u>		<u>.726</u>	
	3. 최근 2주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u>.573</u>		<u>.596</u>	
	4. 최근 2주간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u>.754</u>		<u>.761</u>	
	5. 최근 2주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	<u>.625</u>		<u>.484</u>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이후 역코딩)’를 각각 하나의 단일 변수로 생산하여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는 ‘정서적 안녕감’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표 IV -39〉 정서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영역	문 항	중학생	고등학생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정서/정신적 안녕감	1. 긍정적 정서(역코딩)	.722	.728
	2. 부정적 정서	.722	.728

최종 행복지수는 델파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연구대상에 친화적인 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조사 자료를 활용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이 활용되었다. 주성분분석은 복수의 지표나 영역이 하나의 주성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각 지표나 영역에 부여된 요인 부하값을 각각의 지표나 영역이 하나의 주성분에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전체 세 개의 문항이 하나의 공통된 요인으로 묶어질 수 있다면 첫 번째 문항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첫 번째 문항의 요인부하값/ 세 개 문항 요인부하값의 합

산식으로 표현하면,

$$\frac{\text{factor loading of } X_i}{\sum_{i=1}^n (\text{factor loading of } X_i)}$$

으로 산출 가능한 것이다.

주성분분석을 통한 가중치 방법과 최종지수값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편차 방법론(standard deviation method)²⁴⁾

24) 표준편차 방법론에 의한 원점수 표준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조사대상이 각 응답에 반응한 빈도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다음으로 누적백분율을 구한다. 다음으로

을 사용하여 개별지표들의 원 점수를 표준화 시킨 후 복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공통요인에 미치는 각 개별문항들의 영향력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통합변수를 산출한다. 만약 복수의 지표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된다면 개별지표들의 요인부하값들은 회귀모형에서 표준화 회귀계수, 즉 하나의 요인에 기여하는 상대적 효과의 크기로 이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여섯 개 영역을 대표하는 각각의 변수들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된 여섯 개의 각 하위영역 점수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것들이 행복이라는 공통요인으로 수렴되는지를 확인한 후 그것들의 요인 부하값(factor loadings)을 상대적 가중치로 간주하여 최종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행복지수값은 다시 표준화 점수로 환산된 후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모두 양수로 전환시킨 다음 평균을 구한 후 마지막으로 100점 만점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하였다.

3) 조사결과²⁵⁾

(1)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가중치 및 전체행복지수

40개의 세부지표들은 총 6개의 영역을 대표하는 여섯 개 변수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최종 생산된 6개의 영역변수들은 최종 행복지수의 산출을 위하여 재차 요인분석을 거쳤다.

최종행복지수값은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6개 변수의 요인부하값의 상대적 크기를 백분율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산출된 최종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누적백분율의 중앙치를 구한다. 누적백분율의 중앙치란 주어진 응답항목의 바로 이전 항목 누적백분율과 주어진 응답항목의 누적백분율의 반을 더한 값이다. 마지막으로 정규분포곡선표에 따라 누적백분율의 중앙치에 해당하는 점수(면적비율)가 바로 표준점수가 되는 것이다.

25) 표집대상 및 조사 과정은 앞의 한국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을 참조하기 바람.

〈표 IV -40〉 2007,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의 6개 영역변수 요인부하 값과
가중치(괄호안)

하위영역	중학생		고등학생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경제적 안녕	.649(.18)	.378(.11)	.678(.19)	.383(.11)
자신에 대한 만족	.689(.19)	.788(.23)	.651(.18)	.772(.23)
안전	.321(.10)	.372(.10)	.426(.12)	.399(.12)
학업성취	.780(.21)	.510(.15)	.741(.21)	.463(.14)
사회적 관계	.699(.19)	.716(.21)	.623(.18)	.666(.20)
정서/정신적 안녕	.475(.13)	.699(.20)	.449(.12)	.695(.21)

최종 행복지수 산출과정에서 2007년, 2008년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는 영역은 ‘자신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하게 연도별로 비교해 보자면, 중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2007년에는 ‘경제적 안녕’과 ‘학업성취’가 높은 가중치를 보였던 반면 2008년에는 가중치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효과크기의 변화는 고등학생들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의 가중치 크기 변화는 흥미로운 사후가설(ad-hoc hypothesis)을 가능케 한다. 가중치의 크기를 최종행복지수값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의 크기로 전제하였을 때,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들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업성취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 한국사회의 과열된 학업경쟁이 더 이상 고등학생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암시한다.

반대로 청소년들의 총체적 행복감의 정도에 낮은 기여를 보이고 있는 영역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안전’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결과는 ‘정신/정서적 안녕’에서 나타났다.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소년 모두에서 ‘정서/정서적 안녕’의 가중치 크기가 2007에 비해 2008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생애집단 효과(cohort-effect)가 실재하고 있음의 증거인지 아니면 조사대상집단의 통제불가능한 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현재의 연구설계로는 확실하게 규명해내기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고등학생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의 변화가 있음을 감안하자면, ‘정서/정신적 안녕’의 상대적 중요성이 분명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개 영역 총 40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산출된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50.28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그리 행복감을 느끼지도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느끼지도 않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의 행복지수 점수인 53.08에 비해선 약간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1> 전체 행복지수

	2007년	2008년
평균	53.08	50.28
N	5,951	4,670

(2) 한국청소년행복지수 하위영역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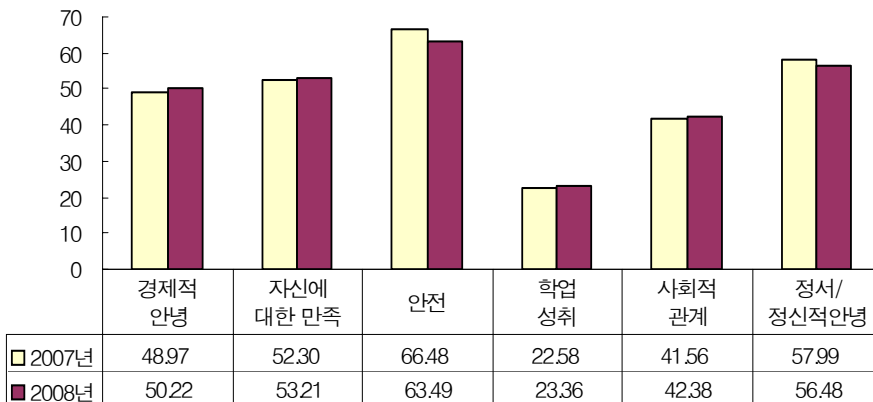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매우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감’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66.46(2007년)과 63.49(2008년)으로 여섯 개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은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22.58(2007년)과 23.36(2008년)에 그치고 있다²⁶⁾.

26) 영역별 점수의 직접적 비교는 결과해석에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최종 행복지수의 산출에는 각 영역별 점수에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역별 점수의 수평적 비교는 가능하지만 한 영역의 점수의 높고 낮음이 최종 행복지수의 산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표 IV-42> 2007, 2008 행복지수 하위영역별 점수

하위영역	평균		N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경제적 안녕	48.97	50.22	5623	4626
자신에 대한 만족	52.30	53.21	5749	4629
안전	66.48	63.49	5432	4739
학업성취	22.58	23.36	4786	4321
사회적 관계	41.56	42.38	5390	4450
정서/정신적 안녕	57.99	56.48	5132	4780

(단위: 점)



[그림 IV-16] 전체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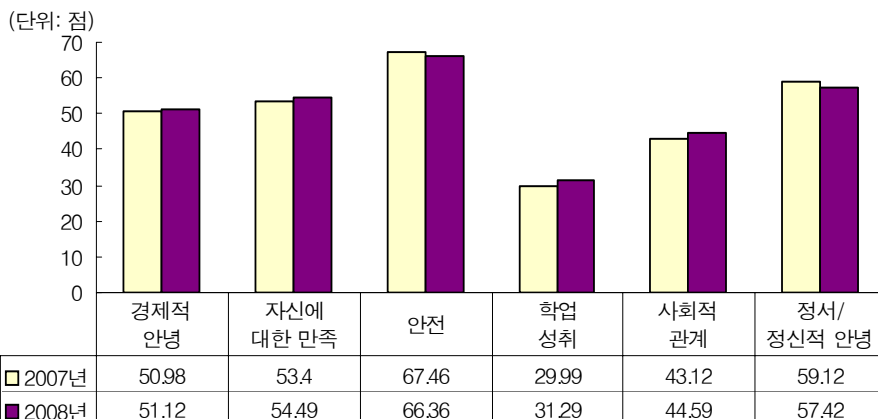
다음은 전체집단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중학생 청소년들의 2008 행복지수 점수는 평균 48.3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의 51.77점과 비교할 때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 보면, ‘안전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67.46, 66.36), ‘학업성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29.99, 31.29)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정서/정신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등이었다.

〈표 IV-43〉 중학생 청소년의 행복지수

	2007년	2008년
평균(SD)	51.77(16.45)	48.34(15.74)
N	3104)	2,206

〈표 IV-44〉 중학생 청소년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하위영역	평균		N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경제적 안녕	50.98	51.12	3109	2209
자신에 대한 만족	53.40	54.49	2999	2387
안전	67.46	66.36	3111	2458
학업성취	29.99	31.29	2092	2207
사회적 관계	43.12	44.59	2987	2390
정서/정신적 안녕	59.12	57.42	3003	2456



[그림 IV-17] 2007, 2008 중학생 청소년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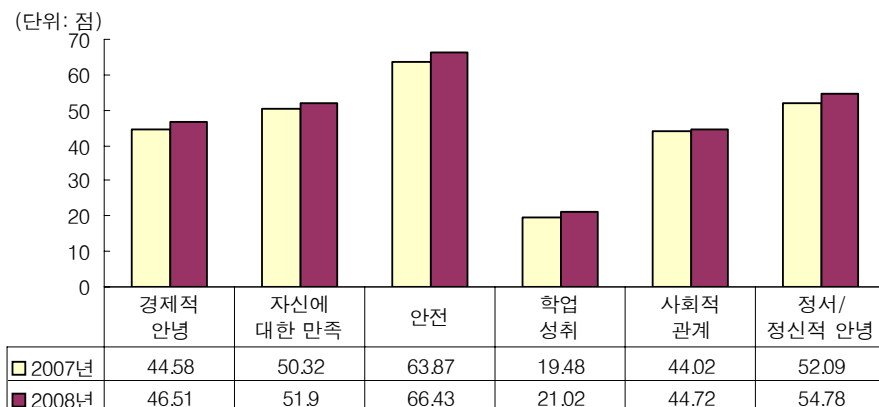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2008 행복지수 점수는 평균 52.2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의 55.35와 비교할 때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청소년들 역시 ‘안전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63.87, 66.43), ‘학업성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19.48, 21.02)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정서/정신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 등이었다.

<표 IV-45> 고등학생 청소년의 행복지수

	2007년	2008년
평균(SD)	55.35(14.87)	52.23(13.40)
N	2987	2464

<표 IV-46> 고등학생 청소년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하위영역	평균		N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경제적 안녕	44.58	46.51	3001	2464
자신에 대한 만족	50.32	51.90	2958	2502
안전	63.87	66.43	3049	2390
학업성취	19.48	21.02	2764	2486
사회적 관계	44.02	44.72	2999	2576
정서/정신적 안녕	52.09	54.78	2986	2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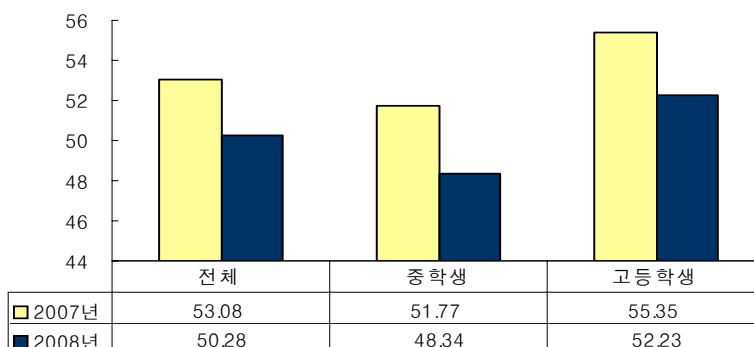


[그림 IV-18] 고등학생 청소년 행복지수의 하위분야별 점수

중학생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성별, 계층귀속감, 학업성적 등 주요 배경 변수별로 나눠 살펴보았다. 주관적 계층귀속감은 원래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의 6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상, 중, 하로 리코드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성적 변수는 전년도 2학기 과목별 성적으로 합산하여 0-33.3%=상, 33.4-66.6%=중, 66.7-100.0%=하로 리코드하여 분석하였다.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학생이 51.49점, 여학생이 48.62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조금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귀속감별로 행복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63.44,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50.32,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31.19점으로 나타나 주관적 계층귀속감과 최종행복지수 값과의 강한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학업성적별로 나눠 살펴보면, 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53.73점, 중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48.11점, 하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42.32점으로 나타나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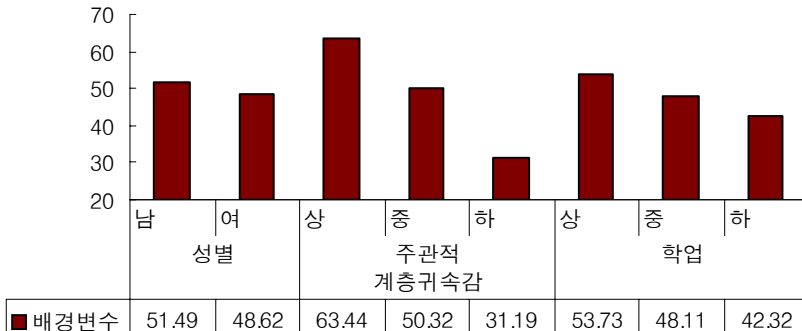
[그림 IV-19] 한국청소년행복지수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표 IV-47〉 2008 배경변수별 중학생 청소년 행복지수

		평균	표준편차	N	F
성별	남	51.49	14.92	1072	F=10.72 ^{**}
	여	48.62	15.21	1136	
주관적 계층귀속감	상	63.44	15.32	432	F=91.43 ^{***}
	중	50.32	15.36	1390	
	하	31.19	13.39	384	
학업 성적	상	53.73	15.84	605	F=12.30 ^{***}
	중	48.11	13.91	932	
	하	42.32	16.44	669	

* p < .05, ** p < .01, *** p < .001

(단위: 점)



[그림 IV-20] 2008 배경변수별 중학생 청소년 행복지수

다음으로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성별, 주관적 계층귀속감, 학업 성적, 전공계열 등 주요 배경변수별로 나눠 살펴보았다. 역시 중학생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귀속감은 원래 6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상, 중, 하로 리코드하여 분석하였으며, 학업성적 변수는 전년도 2학기 과목별 성적으로 합산하여 0-33.3%=상, 33.4-66.6%=중, 66.7-100.0%=하로 리코드하여 분석하였다.

성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57.14점, 여학생이 44.6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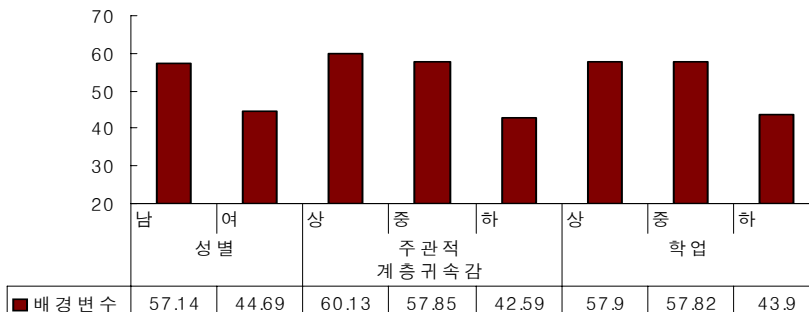
으로 중학생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귀속감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층이 60.13점, 중간층이 57.85점, 하층이 42.59점으로 나타나 역시 중학생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귀속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상인 청소년들이 57.90점, 중인 청소년들이 57.82점, 하인 청소년들이 43.90점으로 나타나 역시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48> 2008 배경변수별 고등학교 청소년 행복지수

		평균	표준편차	N	F
성별	남	57.14	13.04	1225	F=10.11**
	여	44.69	13.49	1239	
주관적 계층귀 속감	상	60.13	12.93	456	F=21.49***
	중	57.85	12.40	1532	
	하	42.59	13.55	476	
학업 성적	상	57.90	12.09	327	F=11.47***
	중	57.82	14.77	1532	
	하	43.90	13.25	405	

* p < .05, ** p < .01, *** p < .001

(단위: 점)



[그림 IV-21] 2008 배경변수별 고등학교 청소년 행복지수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주관적 계층귀속감이 상층이고 남학생인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통계적 유의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주관적 계층귀속감’과 ‘학업성취도’의 경우 중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고등학생 청소년들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계층귀속감’ 및 ‘학업성취’와 전체적인 행복감과의 관련 정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오히려 연령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 경제적 상황이나 학업 등이 그들의 삶에 더욱 중요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논의

지금까지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의 조사 결과를 2007년 결과와 비교하여 요약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지니는 의미는 복합적이다. 연구의 전반부에는 40개 세부지표 및 6개 하위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수의 개발과 발표의 의도가 다분히 독자들의 흥미유발에 있음을 감안 할 때 초반 부분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다소 지루함을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하여 필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세부지표 및 최종지수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산된 지표나 지수가 얼마나 양질의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작업은 더욱더 중요하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발된 지표나 지수가 얼마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측정속성들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청소년행복지수’의 40개 세부지표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이 연구가 지니는 다른 의미는 국내최초로(적어도 필자가 알기로는) 한국 청소년들이 행복감에 대한 연구자료가 시계열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패널 연구설계가 아님으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엄밀한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가용한 자원을 고려하였을 때 확률표집에 의한 전국

규모의 조사자료를 연도별로 축적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진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단체와 기관들에서는 해마다 광범위한 내용들에 대하여 많은 양의 청소년 관련 조사 결과들을 발표해 오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의 일관되지 못함, 조사설계의 미진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조사도구의 문제점, 다시 말해 측정문항들의 지표나 지수로서의 통계적 속성에 대한 검토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귀중한 조사 자료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학이나 심리학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의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정책적 개입의 결과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수의 개발이란 ‘원천적 불가능에의 끊임없는 도전’이다. 이는 완벽한 측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측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재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3년간의 연구결과가 청소년 관련 학자나 정책전문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V. 청소년 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1.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의
필요성
2. 청소년통계의 현황
3. 청소년통계의 개선방향
4. 청소년종합통계체제의 체계화 및
구축방안(To-Be Architecture)
5. 시사점

V. 청소년 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1.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의 필요성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의 목적은 각 기관에서 생성중인 청소년관련 통계자료의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통계현황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올바른 청소년정책입안 및 청소년관련 분야연구를 위한 기반이 되는 청소년통계의 종합시스템 구축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위치는 향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보호와 관심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와 청소년관련 정책입안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관적인 방향성 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청소년분야의 기생성중인 통계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각 통계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통계의 영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통계의 분류체계를 수립한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분야의 기생성중인 통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중인 청소년발달지표조사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발간하는 청소년백서, 청소년통계혁신방안, 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청소년통계를 주요조사 대상으로 선정 후 각각 지표 및 지표가 산출된 원천통계자료에 대하여 가능한 전수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과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 중인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함께 조사 분석하여 각 영역에 대한 중복을 제거한 후 전체적인 아동청소년통계영역을 설정하였다. 아동과 청소년분야의 대표적인 조사통계인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분류체계에 청소년분야를 보강하여 아동·청소년통계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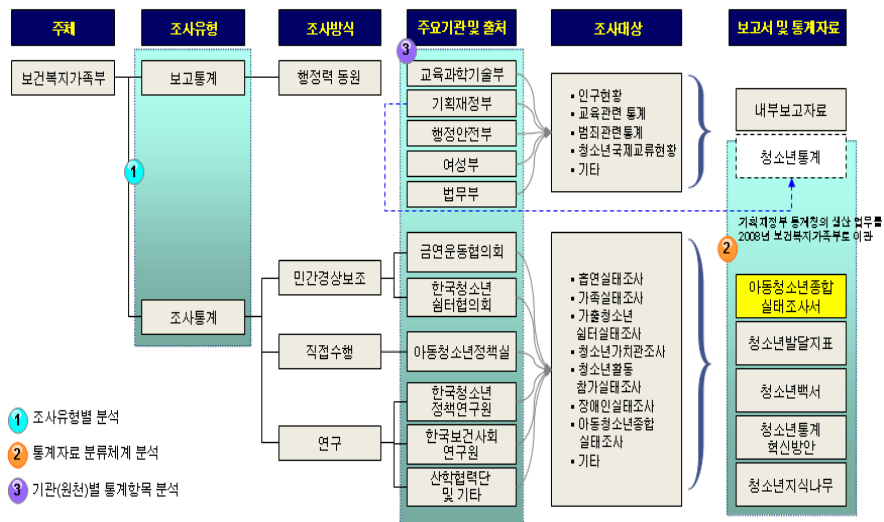
로 다양한 기관에서 각 기관의 활용목적에 따라 생성되어지는 통계의 중복 생산을 방지하고 생성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통계의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통계를 실시할 조직구축에 대한 안까지 제시하였다.

2. 청소년통계의 현황

1) 청소년통계항목 분석

(1) 분석 절차

청소년관련 통계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를 주축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생산 중에 있다. 현황분석을 위하여 첫째 조사유형에 따른 통계 현황, 둘째 통계자료의 분류체계 및 기관별 생산중인 통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V-1] 통계항목 분석 개요

위 [그림 V-1]는 청소년 통계 현황을 주제, 조사 유형, 조사영역, 주요기관 출처, 조사대상,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2) 통계항목 현황분석

① 조사유형별 통계현황 분석

가. 보고통계(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보고통계로서 <표 V-1>과 같은 지표를 생산 중에 있으며 보고통계는 행정통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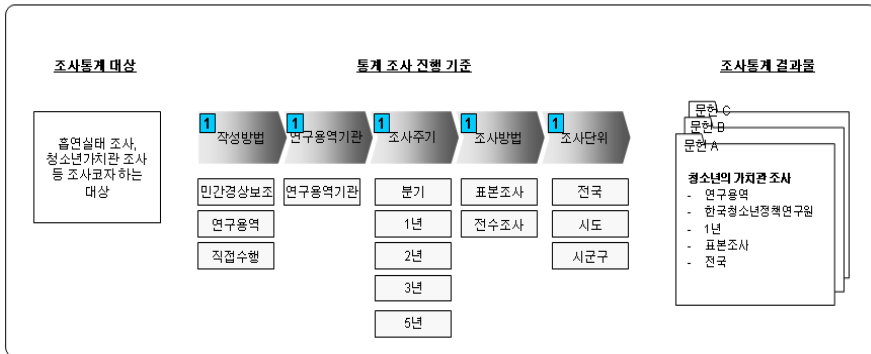
<표 V-1> 보고통계 현황

생산 및 수집 부서	항목	지표수
아동청소년 활동관	정책	18
	권리	8
	교류	7
	역량	14
아동청소년 복지관	복지·시설	42
	상담·자활	15
	보호	28
	성보호	33
	매체환경 팀	20

아동청소년 활동관에서 생산되는 보고통계 지표는 총 47개 이며, 복지관에서 생산되는 지표는 138개이다.

나. 조사통계(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 중인 조사통계 진행방법과 현황은 [그림 V-2]와 같다.



[그림 V-2] 조사통계 진행방법 및 통계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통계는 작성방법선정, 연구 용역기관 선정, 조사주기 결정, 조사 방법의 결정, 조사단위의 설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조사통계 현황(보건복지가족부)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 분야의 조사통계 현황은 [그림 V-3]과 같다.

통계명	작성방법			연구용역기관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단위		
	민간	연구	직접		분기	1년	2년	3년	5년	기타	표본	전수	전국	시도	시군구
흡연실태조사	●			금연운동협의회	●								●		
가족실태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			●			
노인실태조사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		●	
저희 노인 실태 조사		●		서울대학교병원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보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복지 설계비 계속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청소년의 가치관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서울대산학협력단				●							
가출청소년실태조사	●	●		한국청소년정책협의회		●					●	●	●	●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청소년유치환경질향상종합실태조사		●		현대저지 연구원		●						●			
국민건강강화실태조사		●		한국건강보건의료연구원				●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장애인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정신질환실태 의학조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			
인수공통전염병위험요인조사		●		통계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퇴원 손상환자조사			●							●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			●	
전국장애인실태조사		●		한국건강관리협회				●				●			
국민건강영양조사			●							●	●		●		
영아사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특수환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환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가치관조사와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를 수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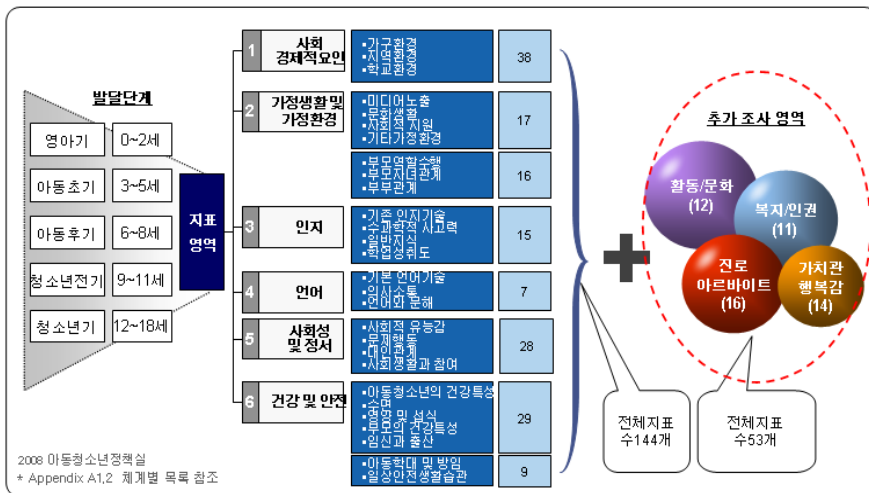
[그림 V-3] 조사통계 현황(보건복지가족부)

조사통계는 대부분 연구용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주기는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조사단위의 경우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통계자료 분류체계 분석

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아동청소년정책실)

금년 실시중인 본 조사는 아동, 청소년지표를 5개 연령별 발달단계와 6개의 지표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청소년 지표의 4개 영역을 추가조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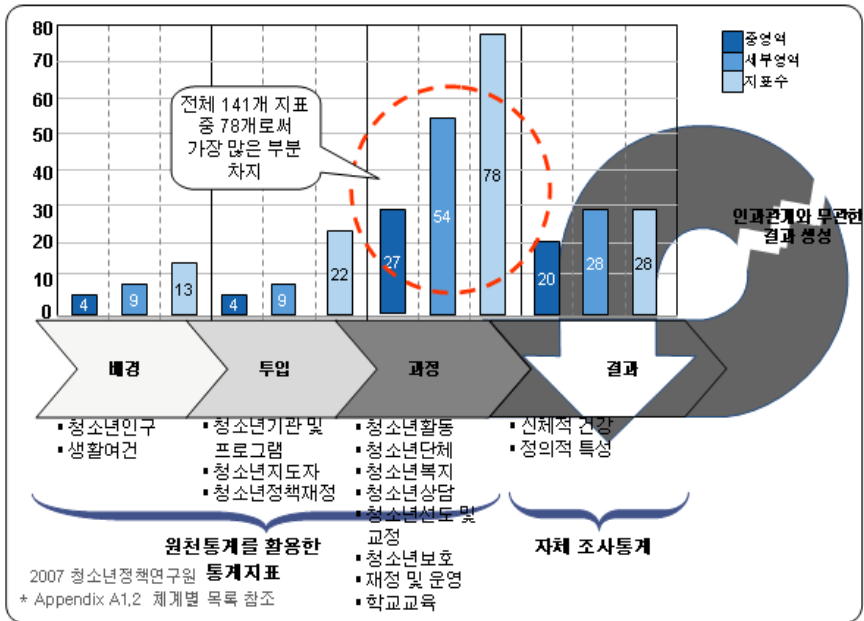


[그림 V-4]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분류체계

발달단계에 따라 기본 사회/경제적요인, 가정생활 및 가정환경,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정서, 건강 및 안전의 6개 영역과 활동/문화, 복지/인권, 진로/아르바이트, 가치관/행복감 등 4개 영역을 합하여 10개 영역의 대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나. 청소년발달지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생성 원천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발달 종합지표의 분류체계 및 지표항목을 배경, 투입, 과정, 결과 영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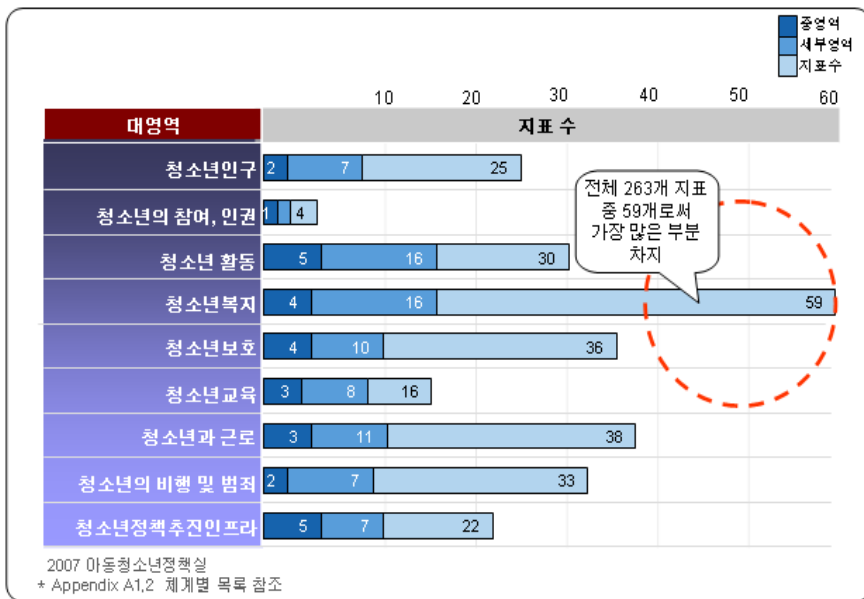
[그림 V-5] 청소년발달지표의 분류체계

총 5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4개의 대분류, 20개의 대영역, 48개의 중영역, 100개의 지표, 14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제시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타 기관(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발달지표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발달지표의 항목별 통계 Meta Data Inventory(조사기관, 출처,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를 매년 구축하고 있다.

다. 청소년백서(아동청소년정책실)

청소년백서는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주요정책,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 청소년 관련자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V-6] 청소년백서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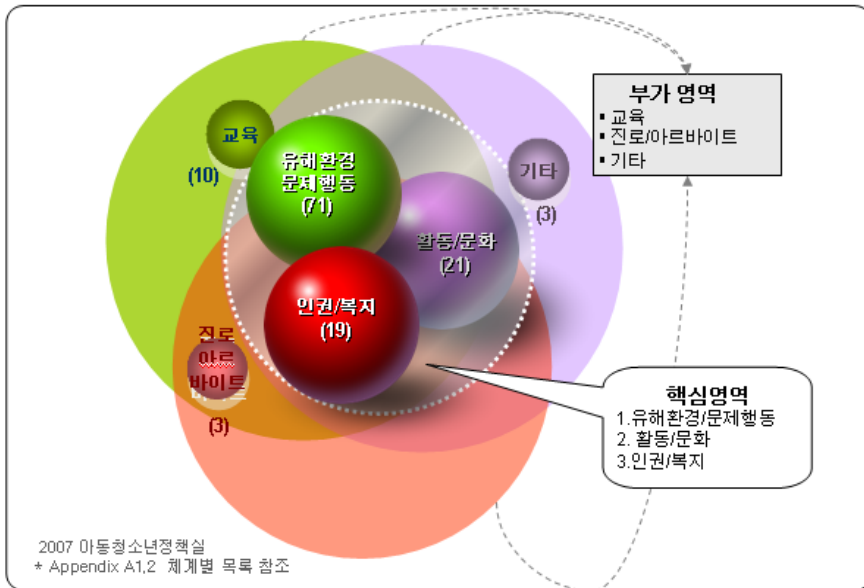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의 대영역, 30개의 중영역, 87개의 지표, 26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항목을 청소년 인구, 청소년 참여·인권,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고, 제시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타 기관(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중에 있다. 통계지표뿐만 아니라 국내외 청소년 정책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다. 청소년통계 혁신방안(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통계 혁신방안은 청소년정책의 과학적 추진을 위한 조사통계, 청소

년통계종합정보DB시스템 구축 및 통계조사와 종합정보DB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소년통계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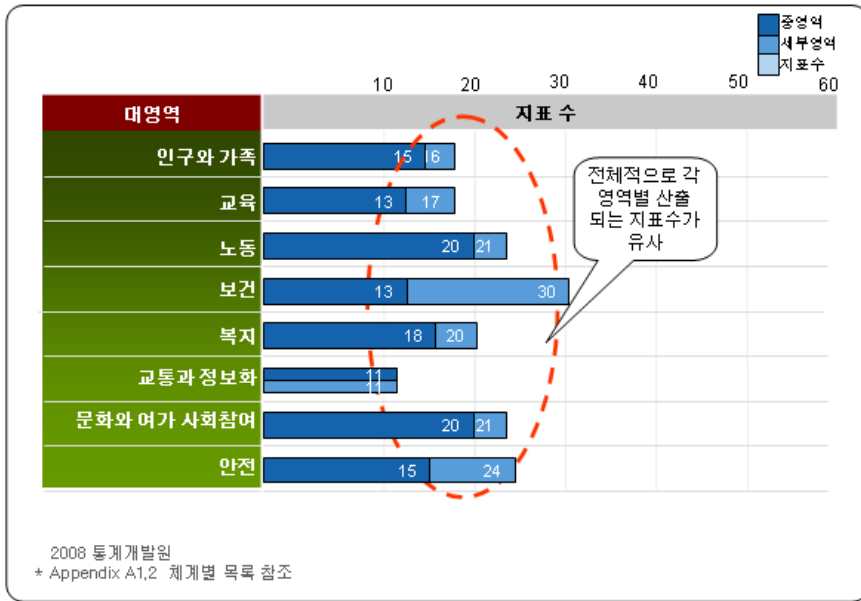
[그림 V-7] 청소년통계 혁신방안 분류체계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영역과 127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항목을 교육, 유해환경·문제행동, 인권·복지, 활동·문화 등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고, 제시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타 기관(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중이다. 신규로 생성이 필요한 통계 항목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소년통계(통계개발원)

통계청에서는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2002년 이후 매년 청소년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청소년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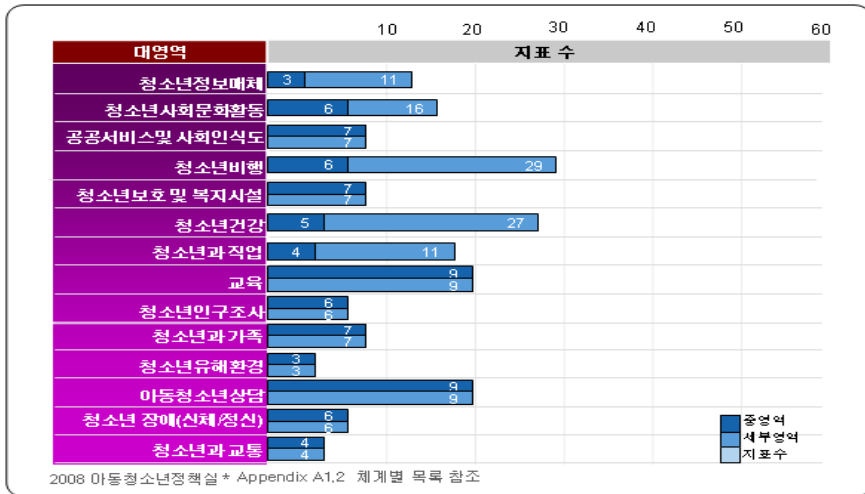


[그림 V-8] 청소년통계 분류체계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정보 중 청소년분야의 통계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총 3단계(대 영역, 세부영역, 지표수)로 구성되고 그 중 일부는 중 영역을 포함하는 혼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영역, 16개의 중간지표, 16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소년지식나무(아동청소년정책실)

청소년지식나무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부정책, 제도, 활동, 수련, 상담, 통계 등 지식을 모아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V-9] 청소년지식나무 분류체계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의 영역, 86개의 지표, 169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항목을 청소년정보매체, 청소년 사회 문화 활동, 청소년비행, 청소년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건강, 청소년과 직업 등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고, 제시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타 기관(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중에 있다.

2) 청소년 통계체계 구축관련 인터뷰 조사

(1) 내부관계자 인터뷰 분석

① 개요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부관계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하였다.

첫째,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전략 및 향후 발전 방향

둘째,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주요 현안

셋째, 핵심 업무 및 연계기관의 협업관계 주요 현안

○ 인터뷰 대상 및 내용

〈표 V-2〉 내부관계자 인터뷰 대상 및 내용

구 분	내 용	대 상	일 시
기획본부장	1.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전략 및 향후 발전 방향	기획본부장	2008. 7. 11
내부 관계자		통계관련 실장	2008. 7. 11
박사A	2.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주요 현안	박사A	2008. 7. 14
박사B, C		박사B, C	2008. 7. 11
	3. 핵심 업무 및 연계기관의 협업관계 주요 현안		

② 현안 및 고려사항

- 아동청소년 종합통계 센터 구축
 - 전국적인 아동청소년 통계 네트워크가 없다.
 - 정책담당자, 학계/연구진, 현장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전혀 없다.
 - 바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통계정보 생산 및 수합기능이 미흡하다.
 - 학계/연구진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학문적 기여가 미흡하다.
 - 아동 청소년 현황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
- 청소년 종합통계 센터 성공요인
 - 통계수합을 위한 수합방안 표준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
 - 통계 분류체계 및 신규통계 수요조사 등에 대한 내부의 조사가 부족하다.
 - 정부부처 통폐합 등으로 조직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 효율적인 통계수합방안의 부재
- 청소년통계 생산체계의 문제점
 - 소규모 저예산으로 인해 통계 생산 체계가 없으며, 자체조사 또한 많지 않다.
- 기생성 통계에 대한 현황파악과 신규통계에 대한 수요파악 필요
- 통계조사 품질제고 방안 부재 : 공시항목 선정기준의 부재
- 청소년통계 체계화 목록화 부족

③ 시사점

- 아동청소년종합통계센터를 구축한다(통계 시스템, 포탈 등).
- 통계수합표준화방안을 도출한다.
- 통계수합에 필요한 협약 및 법제화를 추진한다.
- 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 연구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조직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체계를 구축한다.
- 통계 생산 체계 및 통계조사 품질평가방안 수립체제를 구축한다(공시 항목평가기준으로 활용한다).
- 정책기관의 아동·청소년 통계에 대한 관심제고전략을 수립한다.
-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 아동·청소년통계 분류체계 안을 수립한다(발달지표 연구를 참조한다).

(2) 외부관계자 인터뷰 분석

① 개요

외부관계자 인터뷰 조사 역시 아래와 같은 분야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구축 전략 및 향후 발전 방향

둘째,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주요 현안

셋째, 핵심 업무 및 연계기관의 협업관계 주요 현안

- 인터뷰 대상 및 내용

〈표 V-3〉 외부관계자 인터뷰 대상 및 내용

구 분	내 용	대 상	일 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 통계조사관리 총괄기획)	1.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성 2. 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주요 현안 3. 핵심 업무 및 연계기관과의 협업관 계 주요 현안	통계 담당자	2008년 7월 16일

② 현안 및 고려사항

- 청소년종합통계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 정책부서의 통합으로 청소년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이 통합된 통계조사 및 조사보고서가 없다.
- 아동·청소년통계를 생산할 주도적인 주체(기관)및 인력이 부족하다.
- 정부주도 실태조사의 규모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통계의 대표성은 확보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조사는 다소 미흡하다.
- 행정통계 생성이 미흡하고, 조사통계 생성기관 및 생성방법의 체계화가 미흡하다.
- 조사통계 생성 시 정책기관의 용역으로 이루어져 정부 정책,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외부(민간)기관에서 생산한 아동·청소년 통계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수합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8)는 민간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민간주도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③ 시사점

- 아동과 청소년 분야를 통합한 아동·청소년종합통계체제를 구축해야한다.
- 2008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한다.
- 아동·청소년통계를 생산할 전담기관을 지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하고, 인력확보 방안을 수립한다.
- 통계전담기관의 아동청소년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 통계전담기관의 주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 방안을 수립한다.
- 행정통계(정책기관), 조사통계(통계전담기관)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자체 생산하고,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중요도가 적은 내용을 위주로 외부데이터를 수합한다.
- 차후 아동청소년실태조사를 통계전담기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전문가 심층 조사

(1) 전문가 심층 조사 개요

① 설문 목적

아동청소년 종합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를 심층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ISP(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 첫째, 청소년 종합통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 통계의 주요 현안
 둘째, 신규통계 수요조사
 셋째, 향후 청소년 종합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

② 조사 대상

<표 V-4>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대 상	설문내용
전문가A	1. 청소년종합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 통계의 주요 현안 2. 신규통계 수요조사 3. 향후 청소년 종합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
전문가B	
전문가C	
전문가D	

(2) 현안 및 시사점

① 현안사항

- 청소년통계항목 목록화/체계화 방안
 - 각 보고서 내의 분류 항목을 4개의 자료형태로 구분하여 3개의 큰 대

- 분류(배경, 정책적 투입, 청소년 전문 지표)로 취합한다.
- 중복항목 제거를 병행한다.
 - 항목 분류체계 구상 안 의견 수렴
 - 전문가A 교수 : 3개의 대분류로 구분 각각의 하위분류를 두어 구분한다.
 - 전문가B 교수 : 청소년통계 분류체계를 활용한다.
 - 전문가C 소장 : 4개의 대분류로 구분 각각 하위분류를 두어 구분한다.
 - 전문가D : 발달지표III를 위한 분류체계 연구 결과에 따라 분류체계 구분/미 교육부 산하 분류체계를 활용한다.
 - 효율적인 청소년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계 수합방안
 - 운영위원회설치→통계정보제공 업무협약 / 법제화 체결 → DB네트워크 구성
 - 향후 수요자 만족도향상방안
 - 발달지표 결과부문 설문지 수정 및 충분한 연구기간과 예산을 투입한다.
 - 원천데이터 이용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수요자 요구 및 시의성을 반영한다.
 -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 향후 청소년통계와 관련한 일괄조사 시 조사영역설정 및 설문지개발 시 중요한 사안
 - 조사 영역을 설정한다.
 - 조사영역구분이 미흡한 것은 영역을 재설정 한다.
 - 조사 설문지를 개발한다.
 - 조사 설문지에 대한 품질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연구기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설문지를 작성한다.
 - 청소년통계조사 신뢰도 부족
 - 현재 청소년 통계 생산관리 및 생산 후 통계 Data관리가 미흡하므로 생산주기에 따른 통계 분산조사, 생산된 통계의 관리를 전담기관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청소년통계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및 국제 비교가 부족하므로 국제기구/외국과의 조사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통계비교가 필요하다.

- 설문지 작성 및 표집방법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 청소년통계 생성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그 기관에서 생성한 통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므로 청소년통계 조사주체의 일원화와 보고/조사 통계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 차별화된 정체성이 부족하며, 목적/ 의도/대상의 명확한 정의로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일관성, 지속성,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론적 근거를 둔 지속적인 조사시행이 필요하다.
- 예산 확보 및 정책기관의 관심제고가 필요하다.
- 청소년통계 전담기관 및 통계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 통계품질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행정통계 양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 각 조사보고서 분류체계의 장단점
 - 발달지표Ⅱ : 체제론적 구성으로 포괄하는 범위와 내용이 많지만 각 세부 지표의 인과적 연계가 없다.
 - 청소년 백서 : 정책적 이슈에 대한 분류체제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은 사항은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 청소년통계 : 사회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국민들의 관심영역을 잘 대변해 주지만 대분류 분류체계에 포함된 개별통계들은 피상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 신규로 생성이 필요한 통계항목 및 통계지표를 수렴하여야 한다.
- 기존 생산 지표 중 현재로서 가치는 떨어지나 향후 정책을 위하여 중요한 통계자료 의견을 수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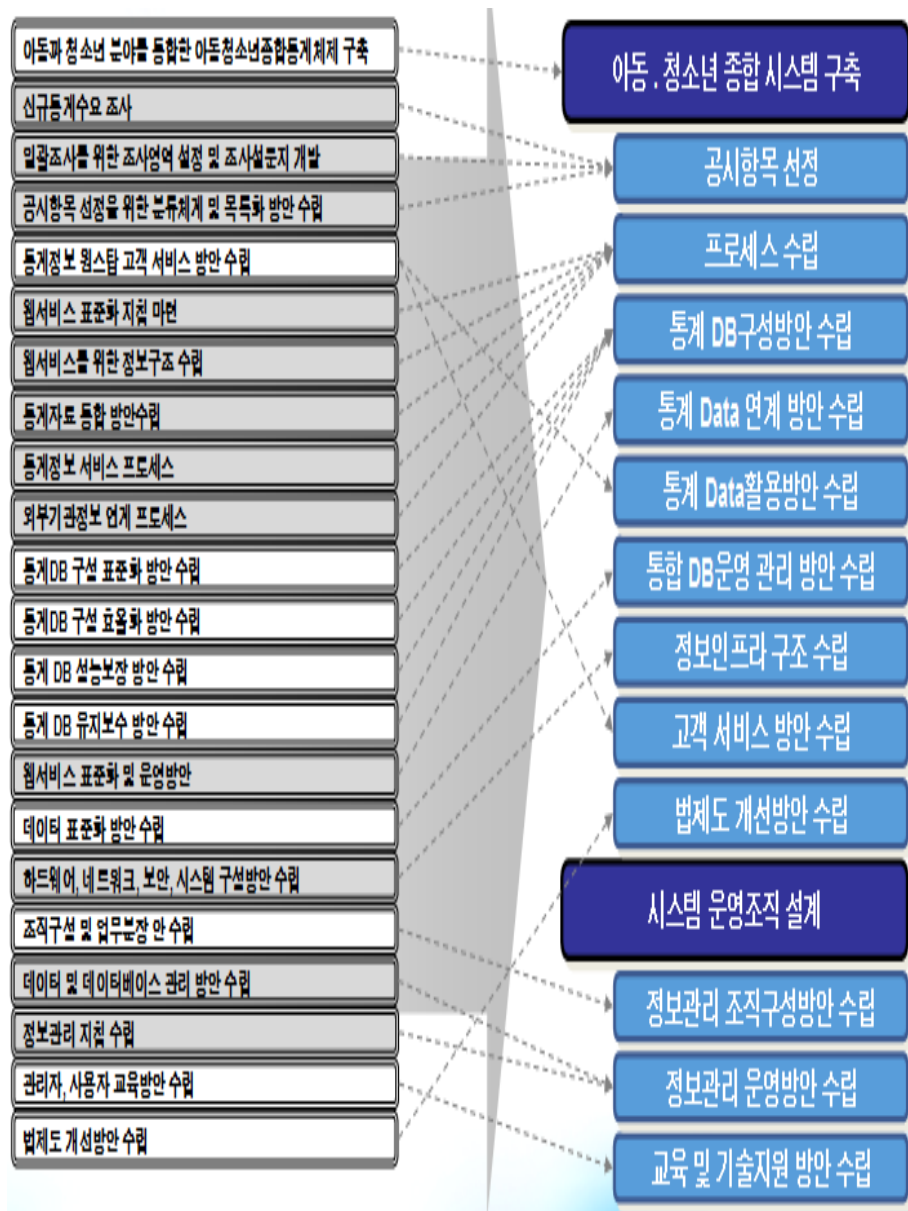
② 시사점

- 아동·청소년통계 분류체계 수립 필요(목록화, 체계화 방안 포함)
- 통계수합 표준화 방안 수립 필요
- 통계수합을 위한 협약 및 법제화 필요

- 종합통계시스템구축(DB Network)이 필요
- 수요자 만족방안을 활용한 To-Be모델 수립 필요
- 아동·청소년 분류체계 수립 필요
- 통계조사 설문에 품질제고방안 수립 및 종합통계시스템 공시 기준으로 활용 필요
- 청소년통계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 아동·청소년통계 전담기관을 수립(청소년정책연구원)등 이론적 연구, 주기 별 통계조사, 품질평가 방법 연구 등 체계적 추진이 필요
- 예산확보가 필요
- 보고통계의 양적인 확보(신규 통계 수요조사) 필요
- 자체생산통계의 양과 질 확보 필요
- 각 조사보고서의 분류체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효율적인 분류체계 수립 필요
- 신규통계 수요조사를 통한 보고통계, 조사통계에 대한 양적 확보 필요

3. 청소년통계의 개선방향

주요 개선 항목을 통해 각 개선 대상 영역별 최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최종 개선 방향은 아동·청소년 종합 시스템 구축 영역의 개선항목은 9개, 시스템 운영조직 설계 영역의 개선항목은 3개가 도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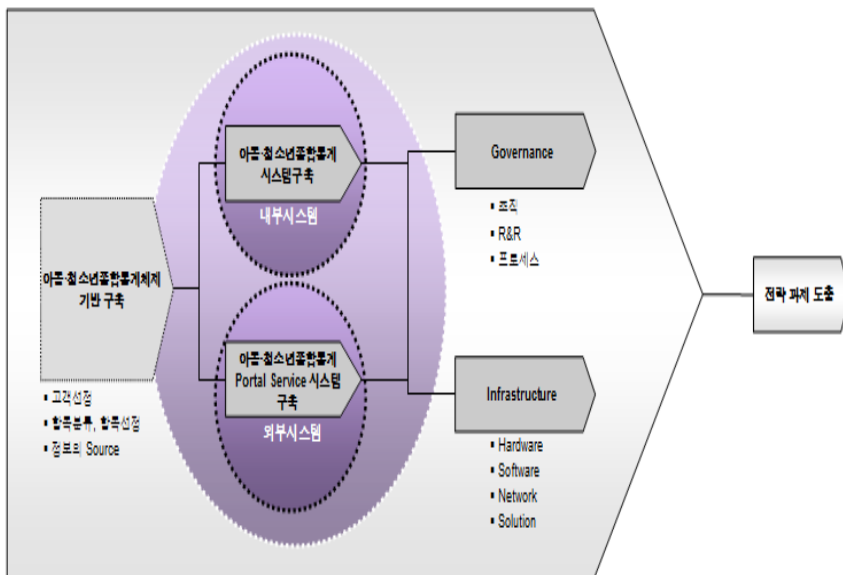
[그림 V-10] 최종 개선방향 도출

4. 청소년종합통계체제의 체계화 및 구축방안(To-Be Architecture)

1) 개요

(1) To-Be 설계절차

미래모형 수립 단계에서는 청소년종합통계체제기반 구축, 청소년종합통계 시스템 구축, Portal Service 시스템구축, Infrastructure 구축, Governance Model 구축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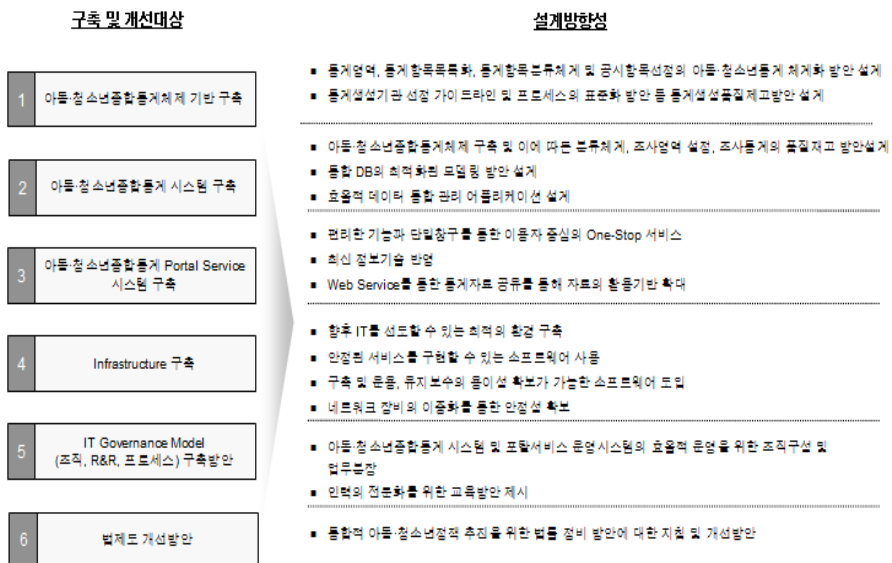


[그림 V-11] To-Be 설계절차

To-Be 설계는 아동·청소년종합통계체제 기반구축, 아동·청소년 통계 시스템 구축, Portal Service 구축, Governance 모델 구축, Infrastructure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2) To-Be 설계 방향성

To-Be Architecture의 구축 및 개선대상에 대한 설계방향성은 현황분석 단계에서 나타나는 구축 및 개선사항을 대상으로 각각의 설계 방향성을 [그림 V-12] 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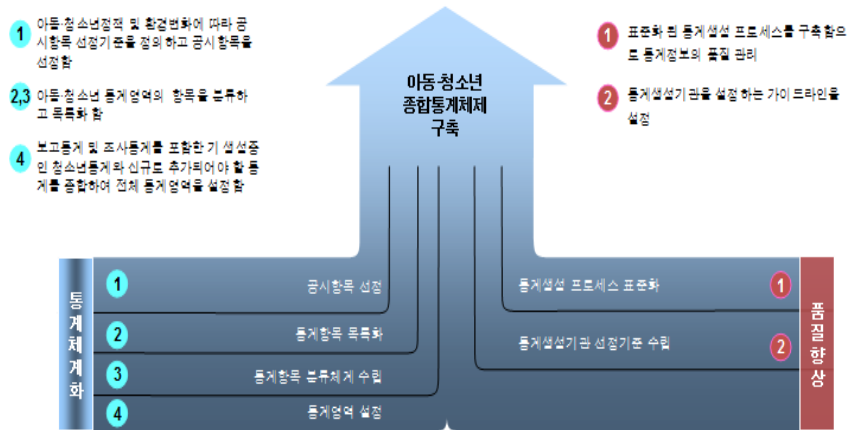


[그림 V-12] To-Be 설계 방향성

2) 청소년종합통계체계제 기반구축

(1) 개요

청소년종합통계체계제 기반구축은 통계영역을 설정, 통계항목 분류체계를 수립, 아동·청소년 통계 체계화, 통계생성기관 선정기준설정과 통계생성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통계생성품질 제고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림 V-13]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기반구축 개요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고통계목록 2008년

(2) 청소년 통계 체계화

① 통계영역 설정

통계영역은 통계생산 방식에 따라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나누어 설정하며, 기생성 된 통계영역과 향후 필요한 통계의 신규수요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통계영역을 설정하였다.

○ 보고통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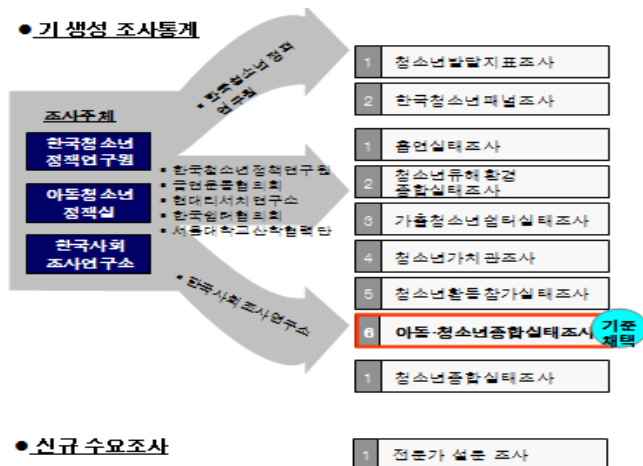
보고통계의 경우 정책, 권리 등 9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부 영역은 조사통계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 조사통계 영역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 3년 주기로 조사 실시 예정인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 생성중인 조사통계와 신규수요조사통계의 영역을 Matrix 분석하여 조사통계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표 V-5> 보고통계로 활용되는 조사통계

보고통계영역	보고통계로 활용되는 조사통계
정책	
권리	○ 청소년단체 외 청소년자원봉사현황
교류	
역량	
복지·시설	○ 청소년 비만 실태 ○ 청소년 정신건강 질환 실태 현황(중병을 앓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 위기청소년 현황
상담·자활	○ 싱글맘 현황 ○ 위기청소년 현황(유형별)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청소년 니트 현황 ○ 은둔형 외톨이 현황
보호	○ 신변중 청소년유해환경 연도별 생성 현황 ○ 아동학대보호시설 현황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별 활동실적 ○ 청소년 인터넷이용 실태 현황
성 보호	○ 십대출산현황
매체환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실시현황 ○ 사이버윤리교육실시 현황



[그림 V-14] 기생성 조사통계 영역분석

기생성조사통계와 신규수요조사의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기생성 조사통계의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서 생산중인 조사통계 보고서와 전문가설문조사를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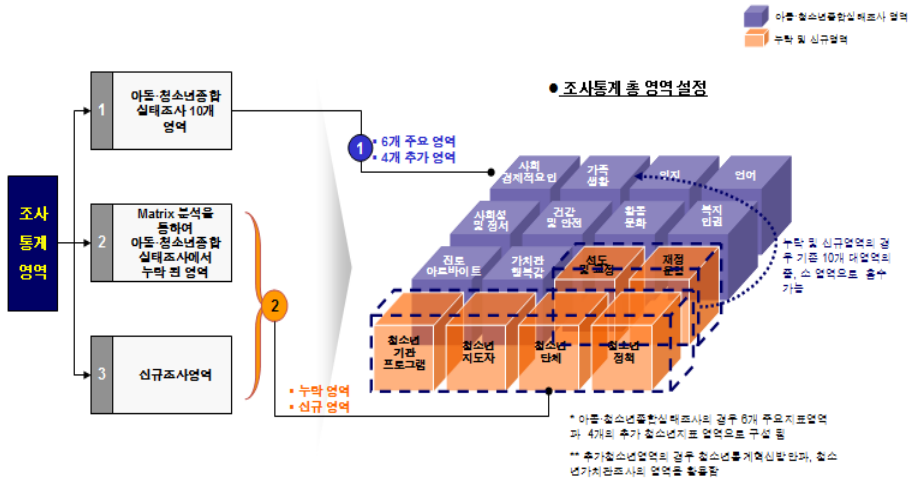
영역 구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영역									
	신규조사 영역	기초 영역	학업 영역	문화 영역	사회 영역	건강 영역	환경 영역	복지 영역	안전 영역	기타 영역
청소년인구	●									
성별여건	●									
청소년기본 실태조사										
청소년지표 조사										
청소년영양 실태조사										
청소년활동							●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		
청소년안전								●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청소년범죄										
국민의식 조사										
학교교육										
신체건강 실태조사								●		
영양건강 실태조사										●

[그림 V-15] 영역 Matrix를 통한 중복영역 제거

Matrix분석은 기생성 조사통계의 분류체계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각각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누락된 영역을 찾아내었다.

- 조사통계 영역설정

조사통계영역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10개 영역과 Matrix 분석을 통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누락된 6개영역과 신규조사영역을 포함하여 그림 [V-16]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V-16] 조사통계 영역설정

Matrix분석을 통해 누락된 영역과 신규 조사 영역은 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선도 및 교정, 재정 운영, 청소년 단체, 청소년 정책영역이다.

- 조사통계 최종 영역설정

조사통계 총 설정된 영역의 Leveling과 Grouping을 통하여 최종 10개 영역 [그림 V-17]과 같이 설정하였다.

주요 변경 내역은 사회성 정체 영역과, 가치관/행복감 영역을 통합하였으며, 선도 및 교정영역을 복지·인권으로 포함하고, 청소년 기관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영역은 활동·문화 영역으로,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재정 영역은 정책 및 재정영역으로 신규 생성해 포함하였다.

② 통계 분류체계

분류체계의 경우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나누어서, 보고통계의 경우 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정책실에서 사용 중인 분류체계를 사용하며 조사통계의 경우 기생성중인 분류체계의 우선순위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분류체계를 정하였다.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보고통계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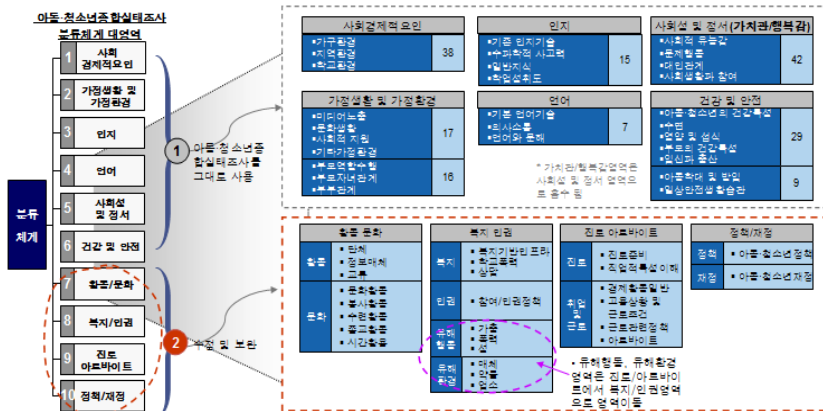
보고통계의 분류체계는 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정하며 다음 [표 V-6]과 같다.

〈표 V-6〉 보고통계 분류체계

생산 및 수집부서	항목	기생성 및 확보중인 지표수	신규생성예정 지표수	총 지표수
아동청소년 활동관	정책	18	5	23
	권리	8	3	11
	교류	7	1	8
	역량	14	5	19
아동청소년 복지관	복지·시설	42	14	56
	상담·자활	15	24	36
	보호	28	5	33
	성보호	33	1	34
	매체환경 팀	20	4	24

○ 조사통계 분류체계 안

조사통계 분류체계 안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분류체계에 청소년 분야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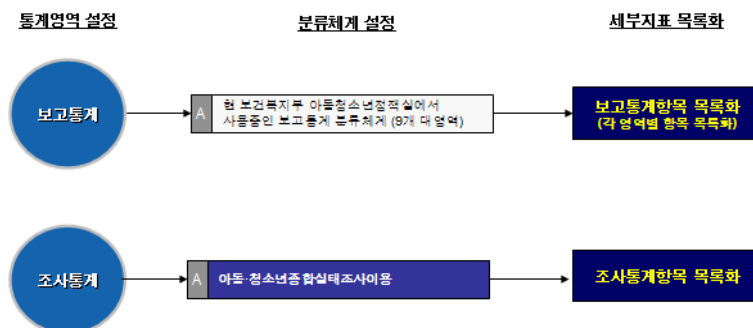


[그림 V-19] 조사통계 분류체계 안

분류체계는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분류체계의 영역을 기준으로 청소년 분야를 강화했고, 기존 유해행동, 유해환경 영역은 진로·아르바이트 영역에 속해 있었으나 이를 복지·인권 영역으로 이동하여 포함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였다.

③ 통계 목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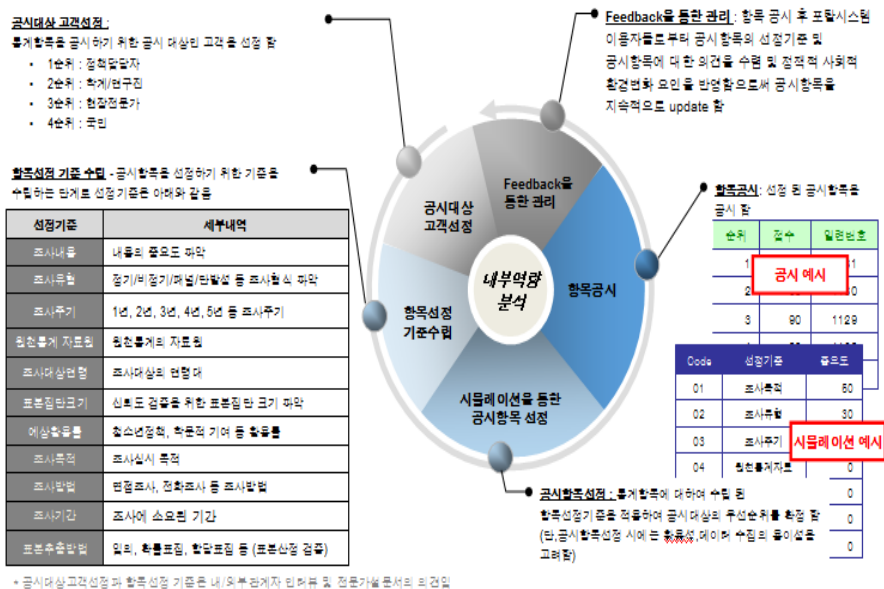
앞서 설정 된 보고통계와 조사통계 영역별 통계항목을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그림 V-20]과 같은 방법으로 목록화 하였다.



[그림 V-20] 통계목록화 방안

④ 공시항목 선정

포탈시스템에 공시할 항목을 공시대상 고객 선정, 항목선정 기준(selecting criteria)선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시항목 선정, 항목공시, Feedback을 통한 권리의 과정을 거쳐 다음 [그림 V-21]과 같이 선정하였다.



[그림 V-21] 공시항목 선정 절차

3) 청소년종합통계 시스템 구축방안

(1) 통계 Database 구조 및 구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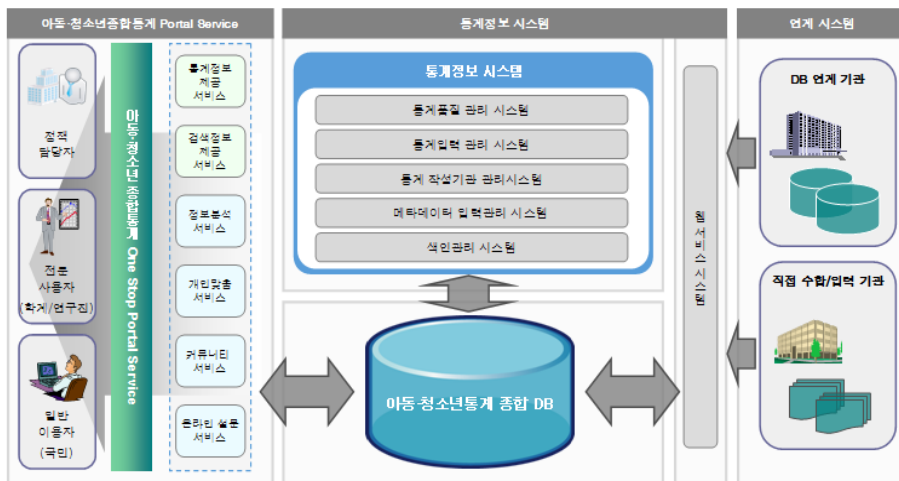
청소년통계 DB시스템의 체계를 정의하고 DB구성방안, 통계정보시스템 구성방안, 통계데이터 연계방안, DB 운영관리 방안, 데이터 활용방안의 미래 모형을 제시하였다.

- DB 구성방안 : 메타데이터 모델 및 수치데이터 설계
- 정보시스템 구성방안 : 통계 자료의 입력 및 검색 관련 정보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데이터 연계방안 : 웹서비스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적재 및 활용방안 제시
- DB운영 관리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적재 및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활용방안 : 웹서비스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공동 활용 방안 및 단계별 발전 방향제시

(2) 통계 종합 Database 설계방향

통계 종합 데이터베이스는 포털 서비스, Application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설계하였고, 개념도는 다음 [그림 V-22]와 같다.



[그림 V-22] 청소년 종합통계 시스템 체계도

4) 청소년 통계 Portal Service 구축방안

(1) 개요

국내외 기생성 통계와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청소년통계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통합된 청소년통계정보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청소년통계 Portal Service 시스템의 미래모형을 수립하였다.

① 서비스 방안

-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통계자료 제공
- 청소년통계 Portal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통합된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
- 통계생산자와 수요자간 교류 확대의 창구로서의 역할
- 개인맞춤 서비스를 통해 통계이용자의 저변 확대
- 통계정보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강화를 통해 통계에 대한 관심 제고

(2) 설계 방향 및 목표

① 설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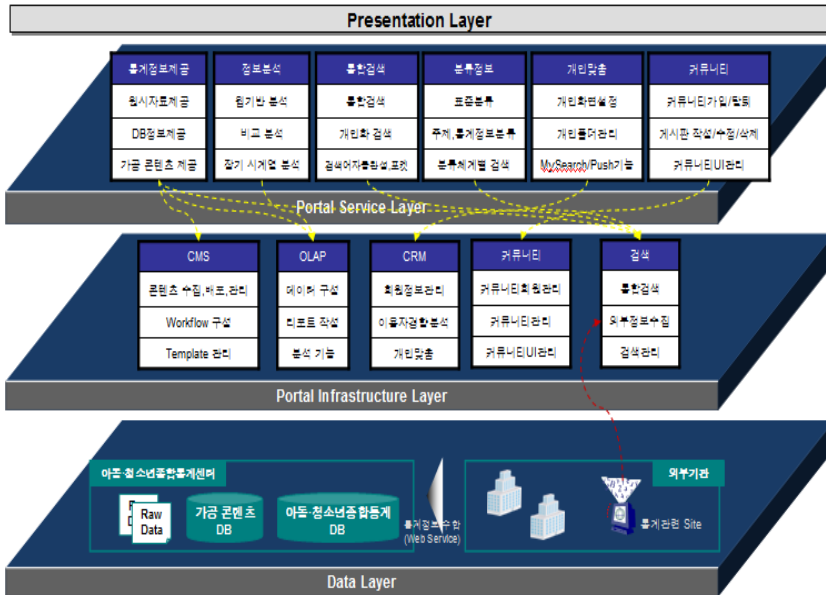
청소년통계 Portal서비스의 주 예상고객인 청소년관련 정책입안자, 관련 연구자 등을 위한 통계정보 One-Stop 서비스와 통계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② 목표

통계정보 수요자에게 통합된 청소년통계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통계 Portal서비스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3)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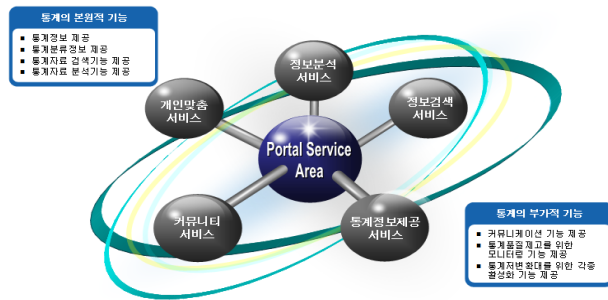
4계층(Presentation Layer, Service Layer, Infrastructure Layer, Data Layer)으로 나누어 계층별 연관관계를 다음 [그림 V-23]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림 V-23] Portal Service 개념도

(4) 서비스 모델

청소년통계 포털 서비스 시스템의 서비스분야는 정보 분석 서비스, 정보 검색서비스, 통계정보제공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 개인맞춤서비스 등 5개 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V-24] Portal Service 서비스 모델

5) Infrastructure 구축방안

(1) 개요

정보인프라 구조는 청소년 통계 DB 시스템의 운영, 관리, 서비스를 위한 기반체계로서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DB를 위한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통계 정보서비스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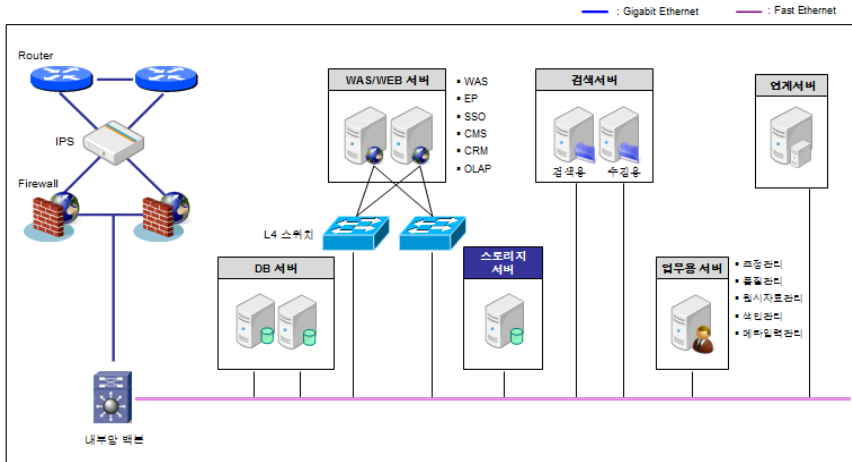
둘째, 통계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통계서비스 제공자와 수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체계를 구성한다.

(2) 하드웨어 구축방안

① 하드웨어 구성도

○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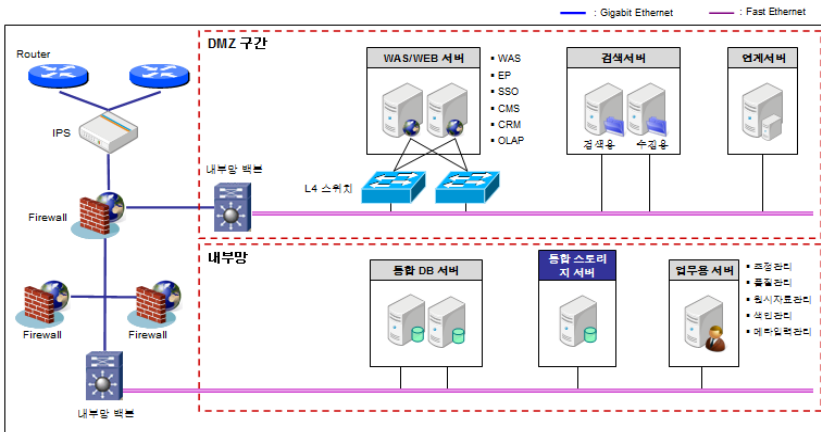
하드웨어 구성도 1안은 Firewall 2개를 활용한 보안 대책과, 1개의 내부망 백본을 둔 네트워크 구축, WAS/WEB 이중화를 위한 2개의 L4스위치를 구성한다.



[그림 V-25] 하드웨어 구성도 (1안)

○ 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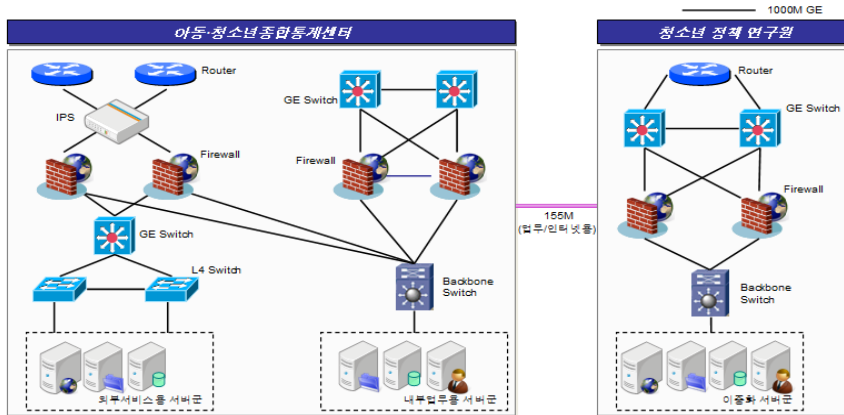
하드웨어 구성도 2안은 대용량 Transaction을 고려한 DMZ구간과 내부망 구간 각각의 내부망 백본을 구성하고, 3개의 Firewall을 구성한 보안대책, WAS/WEB서버 이중화를 위한 2개의 L4스위치를 구성한다.



[그림 V-26] 하드웨어 구성도(2안)

(3) 네트워크 구축방안

향후 아동·청소년종합통계 시스템 사용량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네트워크 Bandwidth가 트래픽 볼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연계기관과의 데이터 교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림 V-27] 네트워크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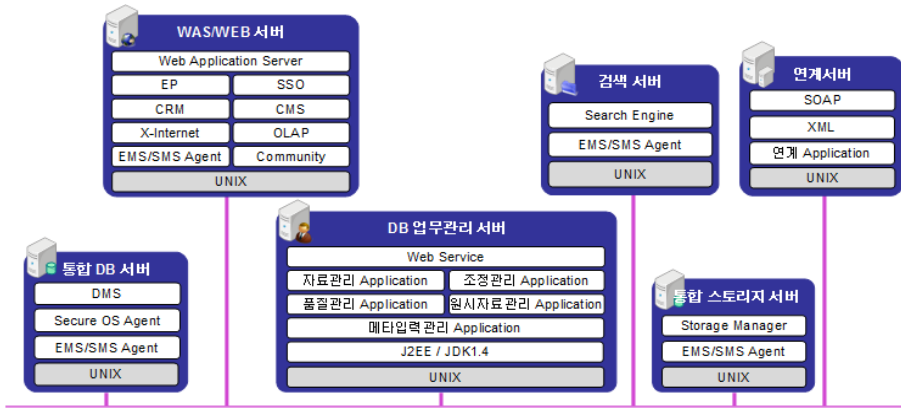
(4)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방안

청소년종합통계 Portal Service 및 통계 DB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은 대용량 Transaction의 처리를 위한 WAS(Web Application Server) 및 DBMS 기술, One-Click Service를 위한 SSO(Single Sign On)기술, 통합된 통계정보의 활용을 위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기술 등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① 고려사항

- 소프트웨어의 업무 효율성
- 호환성 및 상호 안정성
- Portal Service 및 정보관리 조직 필요
- 유지보수의 용이성

② 소프트웨어 구성도



[그림 V-28]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WAS, 및 DBMS, SSO기술, OLAP기술 등을 포함하며, 각 서버의 호완성 및 안정성, 업무 효율의 향상, 정보관리의 용이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대상으로 하여 도출하였다.

(5) 기타 솔루션 구축방안 : On-Line설문 시스템 구축방안

패널리스트 및 사이트방문자를 응답대상자로 설문작성, 설문응답, 결과분석, 테이블보고서가 온라인으로 가능한 인터넷설문 솔루션 이다. 패널설문은 고객, 회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인터넷설문 솔루션을 이용한 웹 조사 또는 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신뢰성 높고 신속, 경제적인 전문조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Governance Model 구축방안

(1) Governance Model 구축 방향성

청소년 통계 Governance Model 구축 방향성은 조직, R&R, Process 부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① 구축 방향성

- 조직
 - 청소년통계 체계연구, 공시항목 연구 조직 구성
 - 전략/기획 조직 구성
 - 청소년통계센터운영 조직 구성
 - Portal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조직 구성
- R&R
 - 핵심 업무 정의를 통한 조직 역할 및 업무정의
 - 업무기능 별 업무 분장
- Process
 - Plan → Do → Check → Act 로 이루어지는 표준 업무 프로세스 정립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 청소년통계 체계 및 공시항목 연구를 위한 프로세스 정립
 - IT 운영 프로세스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IT 관리 정립

(2) 조직 구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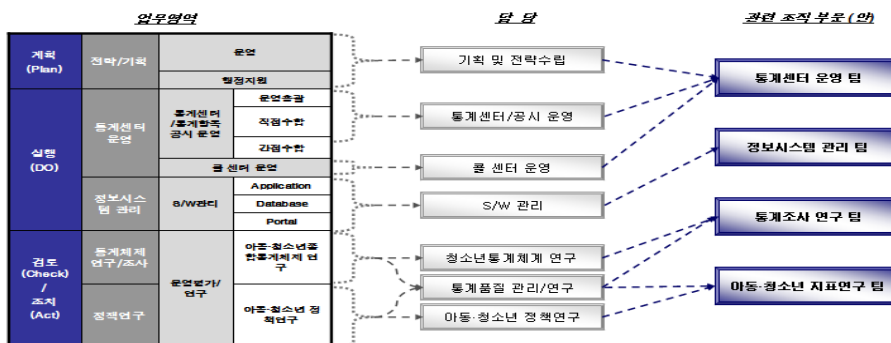
① 조직 설계 원칙

- 통계조사 연구 조직 구성
 - 통계영역 설정 및 항목 목록화/체계화 연구를 통한 청소년 통계 체계를 관리한다.
 - 청소년 지표를 개발/점검한다.
- 청소년 지표 연구조직 구성
 - 청소년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결정,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청소년 지표에 대한 정책적합성, 품질 평가 등을 통한 점검을 실시한다.
 - 사회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제고한다.

- 통계센터 운영팀 구성(전략/기획팀포함)
 -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통계센터 운영 팀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 체계적인 전략/기획을 통해 청소년종합통계센터의 위상을 강화한다.
 - 연계기관 협의체 구성,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연계 체제를 수립한다.
- 정보시스템 관리팀 구성
 -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관리 팀을 신설한다.
 - 통계 통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② 조직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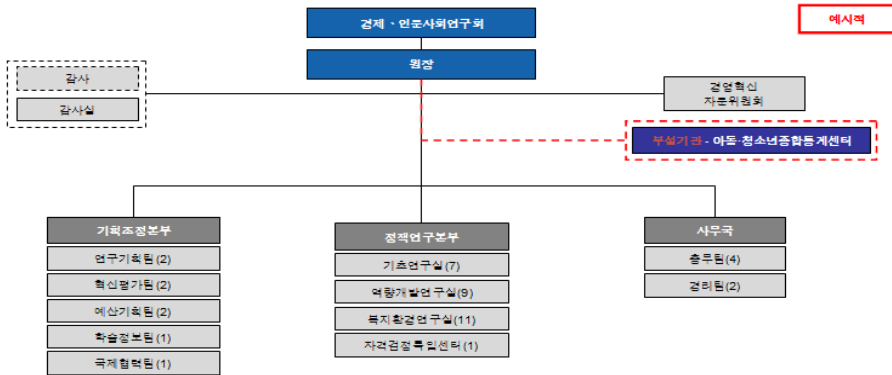
조직 설계 구성 전략은 업무 Cycle인 Plan(계획), DO(실행), Check(검토), Act(조치)의 4가지 기능을 축으로 끊임없는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V-29] 업무영역별 담당정의

③ 조직 구성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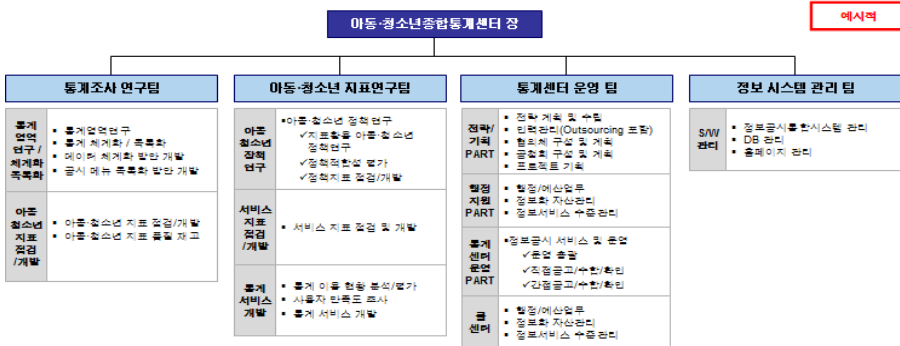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구성(안)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 부설기관으로 설립한다.



[그림 V-30]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도(안)

○ 청소년종합통계센터 To-Be 조직 구성(안)

정보시스템 관리 팀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 시스템과 연계한 청소년종합통계 체제관리를 위한 연구팀 및 청소년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한다.



[그림 V-31] 청소년종합통계센터 조직구성도(안)

7) 전략과제 도출

설계방향에 따라 설계 된 TO-BE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주요 업무 및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과제를 다음 [그림 V-32]와 같이 정의하였다.



[그림 V-32] 전략과제 정의서

정의된 추진과제는 종합통계체계 기반구축, 시스템 구축, 조직구축으로 구분되며, 그 중 시스템 구축과제는 종합적 아동·청소년 통계 시스템구축 (Application), 사용자 지향적 포털 서비스 구축으로 구분된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청소년종합통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였다. 즉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통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면밀

히 함으로써 본 연구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과 바람직한 통계체제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개선방향의 기초로 삼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비록 금년 추진 중에 있는 조사연구이긴 하지만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란 정부조직개편 하에 최초로 시도되는 통합조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초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청소년종합통계를 체계화하여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설계하는 것은 청소년통계체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확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단계이다. 본 연구의 의미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수집·가공·생산·관리되는 각종 청소년통계의 전체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 정리하고 통계활용의 극대화를 현실화 시키는 방향과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청소년통계의 정비와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자세한 연구결과는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의 결론 및 정책제언
2. 청소년 종합통계 구축방안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배경, 투입, 과정 부문

청소년발달 지표조사(3차년도)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100개 지표항목에 대한 청소년발달지표의 생산과 Meta Data Inventory 구축이다. 이는 83개 지표항목의 객관적 지표와 17개 지표항목의 주관적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타당성과 신뢰성 뿐 아니라 가독성 있는 지표생산을 위하여 지표용어개념과 자료조사과정, 편집 틀에 이르기까지 총 100개 양적 지표의 발달 및 시계열적 축적의 최종 집약물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발달 지표의 분류체계 및 지표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이다. 현재 체계적 접근에 의한 배경, 투입, 과정, 결과의 지표체계를 재검토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발달지표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위한 기반으로서 청소년통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발달 지표가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청소년 관련 행정통계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통계 생산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청소년발달지표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발달지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요구되는 지표를 생산할 수 있다.

셋째, 시계열적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청소년발달 지표조사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청소년지표조사는 기초연구부터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약 6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에는 3차년도 자료가

확보 되었다. 하위지표들을 활용한 청소년 행복지수의 생산도 이처럼 누적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가능한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통합적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발달 지표는 3차년동안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생산해왔으며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양질의 청소년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발달 지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지수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총100개 지표항목의 청소년발달 지표 중에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청소년지수개발에 활용한다면 그동안 생산되어온 지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 지표와 지수생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각 지표 항목별로 매년 Meta Data Inventory의 작성, 주관적 지표의 측정 속성 검증, 용어개념의 해설 등은 지표연구의 내용적 방법론적 엄정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표생산의 방법론적 신뢰성과 내용의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정부부처의 협력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결과부문

이 절에서는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에 대한 연구결과의 논의와 함께 지표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2008년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의 하위과제로 수행한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은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진로 및 직업적 역량 등 5개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총 17개의 세부영역과 62개의 지표항목으로 나누어진다.

2008년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 연구는 2006년도 지표 타당화 작업을 거쳐 개발된 지표에 대한 3년차 연구이다. 그러나 2006년도 지표 개발 당시 지표 타당화 작업에 사용된 조사대상자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중1부터 고3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도 지표조사 결과 값과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2007도와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결과부문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발달지표의 결과부문 5개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결과부문의 하위영역에서 인지적 특성과 진로·직업적 역량은 71.66점으로 다른 하위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시민적 특성(66.54점)과 정의적 특성(65.14점), 사회적 역량(61.59점)은 이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지적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 즉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직업적, 시민적 측면에서의 역량개발에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와 해결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발달지표의 결과부문 5개 하위영역에 대한 학년별 변화추이를 보면 인지적 특성은 중학교 1학년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사회적 역량과 직업·진로역량, 시민적 역량은 학년증가에 따른 변화추이가 전혀 없으며, 정의적 특성은 중학교 1학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발달이란 상승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증대, 진보, 향상 등의 진화적 변화를 말한다(이현림·김영숙, 2006). 물론 인간발달의 변화과정이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달이 진행되는 방향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즉, 발달의 이전단계는 그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 보다 높은 차원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구조와 기능이 정밀해지고 유능화되는 질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 이에 기초해볼 때 학년별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인간발달의 기본적인 원리와 상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발달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보다 고차원적인 형태로의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적 경험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는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유전적 소인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적 결손이 심하다면 그의 유전적 소인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현림·김영숙, 2006).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시민적 직업적 역량들이 연령증가에 따라 보다 전문적으로 분화되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발달지표의 결과부문 5개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점수가 지역별, 계열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계열별에 따라서는 실업계고 학생들이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직업적, 시민적 측면 모두에서 인문계고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정의적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광역시와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이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실업계고 학생들과 서울이외의 광역시나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총 17개의 청소년발달 지표 가운데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참여의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17개의 지표 중 평균 70점 이상은 진로선택의 주도성, 인권의식, 국제화의식, 창의성, 건전소비의식, 직업특성이해 등 6개 지표이며, 평균 60점 이상~70점

미만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목표지향성, 국가에 대한 태도, 자아개념, 행복감, 친사회적 기술, 공동체의식,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신뢰 등 9개 지표이다. 그리고 평균 60점미만의 점수를 보인 지표는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참여의식 등 2개 지표이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이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참여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 17개 청소년발달 지표 가운데 성별, 지역별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자아개념, 행복감, 문제해결능력의 지표에서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진로선택의 주도성, 인권의식, 사회참여의식에서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역량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남자청소년에게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진로선택의 주도성, 인권의식, 사회참여의식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자 청소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아개념, 행복감, 문제해결능력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시군지역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친사회적기술, 사회적 신뢰, 직업적 특성이해, 진로준비행동, 국제화의식, 공동체의식, 사회참여의식, 건전소비의식에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시군지역이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친사회적 기술, 사회적 신뢰, 직업적 특성이해, 진로준비행동, 국제화의식, 공동체의식, 사회참여의식, 건전소비의식 등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계열별로는 진로준비행동과 국가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영역 모두에서 실업계고 학생들이 인문계고 학생들보다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고교계열별 차이에 기초한 차별화된 접근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결과부문 지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먼저 기존의 지표체계는 배경→투입→과정→결과로 이어지는 순환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과 산출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배경, 투입, 과정에 해당되는 지표항목들의 경우 원자료(raw data)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즉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이 개별 연구과제의 목적에 따라 임의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추가지표 개발이 된다면,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결과부문 지표의 경우 청소년들의 의식과 태도만을 조사하여 측정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들의 주관적 의식과 실제 나타나는 행위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의식과 함께 실제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의 결과부문 지표들의 경우 청소년 발달의 이상적 모형을 설정하여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낮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대상 조사를 한 결과 인권지표, 유해환경접촉지표, 정신건강지표, 신체건강지표, 사교육참여지표, 자립역량지표, 다문화 수용성지표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시급하며,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지표의 추가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지표와 추가 개발되는 지표에 대한 일관적이며,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즉 계속성(consistency)있어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 관련 지표들의 경우 1·2회의 단발적인 조사로 그치거나 조사목적에 따라 지표항목의 수시 조정 및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된다. 따라서 기 개발된 지표와 추가 개발되는 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개발과 2007년도에 기 개발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개발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문화자본의 개념을 개관 하였고,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개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문화 취향과 행동을 주요 차원으로 본다. 이 차원은 청소년 역량/창의성과 관련이 깊다. 둘째, 한국사회 청소년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문화 활동을 주요 차원으로 설정 하였다. 셋째, 전통적 의미의 문화자본이 포함하고 있는 대중문화에 관한 논의를 주요 차원으로 설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함의를 파악하고자 부모 지위, 가족배경, 지역 등 다양한 배경 변수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발 모형에 따라 문화 취향과 행동, 사이버 공간과 문화, 대중문화, 차원에 포함되는 하부 항목을 각각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역량/창의력 차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취향, 직업 관련 선호도, 문화 활동 선호도, 문화 활동 빈도, 음악/미술/문학 등 각 장르별 지식을 포함시켰다. 이후, 선정된 지표항목들의 실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값을 검토하였다.

지표 체계와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문화 취향과 행동 차원에서 특히 청소년 본인의 문화자본 하위요소와 관련된 개별 문항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내적 일관성이 보인다. 문제는 정보 측면인데, 분석결과 응답자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변이가 작았다. 대규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청소년 문화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 문화자본은 청소년 본인의 문화자본과는 달리 큰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자본지표로 청소년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문화 취향을 보여주는 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타당도가 높은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공간과 청소년 문화자본 차원에는 개별 항목의 결과와 각종

관련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표로써 타당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 활동 전반에 인터넷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전반적인 청소년 역량 강화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이다. 인터넷을 하나의 도구와 공간으로 이용하여 청소년 문화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중문화 차원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문화 소비 현황이 지극히 낮다. 따라서 순수한 척도라는 측면에서 효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척도가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 그 중에서 음악 장르에 관한 취향도 척도로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장르별 차이에 관해서 적절하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 관련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최근 청소년들의 현황을 적절하게 나타난 것으로 지표로써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지표는 대중문화의 가치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청소년 문화적 역량 강화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중문화창작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응답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인 문항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와 친구 사귀기 분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특별한 부정적인 영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부분에서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개발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고급문화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 창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은 최근에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복지와도 관련이 깊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의 문화 활동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활동이 매우 단편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놀이로만 머물고 있다는 점

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급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오프라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앞의 논의와 상당부분 관련이 깊다. 다양한 콘텐츠의 공급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문화 활동과 취향을 지원하는 정책이 같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이호영 외, 2006).

물론 지표개발 자체만으로는 활용도에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보다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여 그 타당도와 함의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문화자본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차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둘째, 조사 대상자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 활동, 취향, 태도뿐만 아니라 고급문화/대중문화 활동 영역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배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문화자본의 함의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청소년 문화자본의 영향을 일종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없었다. 물론 이러한 영향은 다소 장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경우 성적 등 일종의 결과나 영향을 의미하는 변수가 이번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인 자료 분석이나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영향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른 지표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청소년 문화자본지표 연구도 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핵심지표는 장기적인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의 연구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는 한국청소년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을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행복지수를 시계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도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6개 영역 총 40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산출된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50.28점으로 2007년의 행복지수 점수인 53.08에 비해선 약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2007년과 2008년 모두 매우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감’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66.46(2007년)과 63.49(2008년)으로 여섯개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은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22.58(2007년)과 23.36(2008년)에 그치고 있다.

다음은 연령별 비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안전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업성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주관적 계층귀속감이 상층이고 남학생인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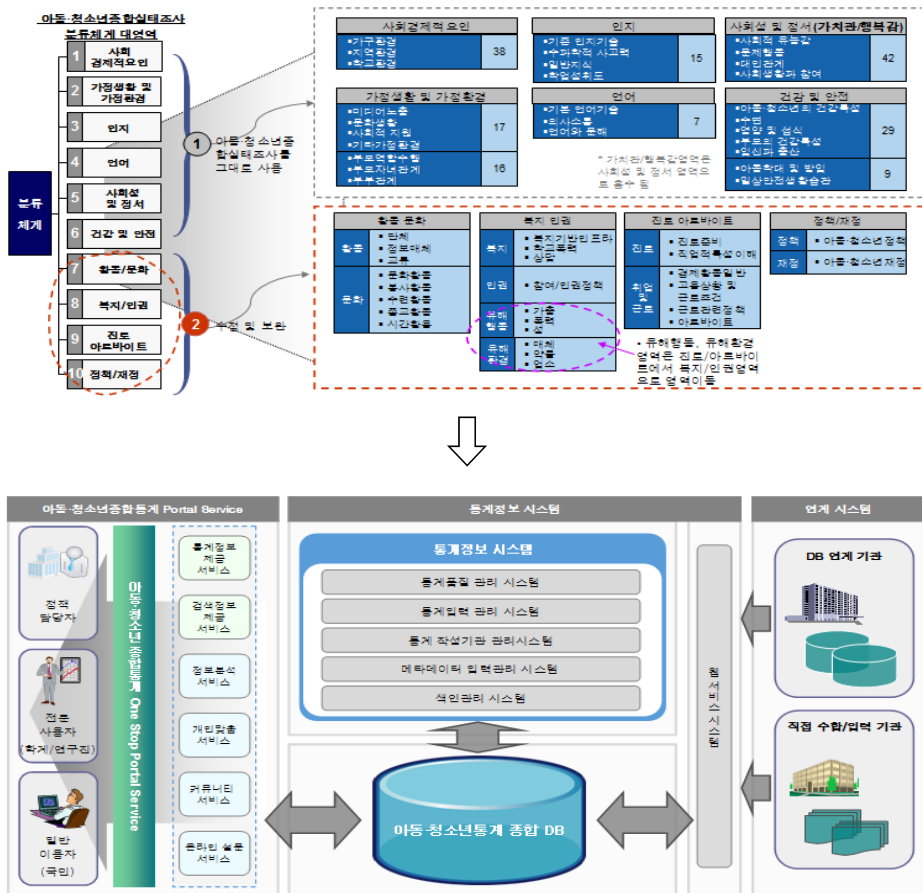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지수의 생산에 있어 세부지표 및 최종지수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산된 지표나 지수가 얼마나 양질이나 하는 것을 검증하는 작업은 더욱더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발된 지표나 지수가 얼마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가 물론 패널 연구설계가 아님으로 인해 조사결과에 대한 엄밀한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가용한 자원을 고려하였을 때 확률표집에 의한 전국규모의 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축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측정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이 조사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청소년 종합통계 구축방안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우선 청소년종합통계의 분류체계를 금년 추진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영역을 기초로 하여 10개 대영역과 18개 중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다. 또한 이는 IT를 이용한 통계시스템으로 설계한 것이며, 다음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청소년종합통계체제와 이에 대한 시스템 체계도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부터 도출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통계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청소년통계를 적절히 체계화시킨다하여도 이를 꾸준히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정을 통해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대를 넘어 유일무이한 통계체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통계의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연구와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련 정책연구의 축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아동통계와 청소년통계의 유기적 연계와 공조이다. 현 정부에서 정부조직상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한 것은 통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와는 상관없이 당면한 정책적 현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계에 있어서도 아동통계와 청소년통계의 연합과 공조가 통계의 조사계획, 수집, 가공, 생산의 각 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통계 생산 기관간의 전략적 연계이다. 본 연구의 곳곳에서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청소년통계는 여러 기관에서 각자의 조사목적 하에 생산되고 있다. 통계의 중복을 배제하고 기준시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주체간의 연계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각 조사기관간의 전략적 제휴는 MOU 등을 통해 확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통계 항목의 지속적 발굴이다. 청소년들의 특성과 문화의 변화는 새로운 통계적 수요를 창출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분석적 연구를 통해 신규통계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정확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통계 수집·가공·생산의 제도화이다. 교육통계의 경우는 기본통계를 매년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매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매우 기본적인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고 있다. 청소년 통계 역시 통계 조사와 조사 주체에 대한 법제화가 뒤따른다면 통계중복의 문제나 통계 데이터의 신뢰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통계를 통한 국가 청소년 지수 개발과 국제비교연구 확대이다. 통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연구적 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표 연구와 지수 개발 연구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통계항목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로서 사회현상의 개념화와 집중화, 그리고 국가적 아젠다 등을 설정할 때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통계의 질 제고를 위한 조사예산의 적정선 확충이다. 통계는 기본적으로 적정 규모의 표집과 적절한 표집방법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적정한 규모의 표집을 위해서는 소규모, 임의적 표집을 배제해야 하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조사예산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조사연구에서 조사예산을 부실하게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로운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사예산의 확충이 매우 절실하다.

여덟째, 청소년종합통계의 신뢰성 있고 효율적 관리·운동을 위한 국책기관에의 전담조직 신설이다. 조사주체의 난립은 동일한 통계에 대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제시하는 난센스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안정적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다. 개인 연구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조사통계가 아닌 국책기관의 지속가능한 질 관리가 있을 때 국가통계 등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여덟 가지 정책적 제언들은 본 연구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당위성과 연구목적과 매우 밀접히 관련된 것들이다. 이미 통계의 정책적 활용은 기본이 되다시피한 시대에 살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역시 신뢰받을 수 없다는 필연적 결과를 생각할 때, 청소년정책의 질 제고와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청소년통계의 체계화와 안정적 운영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 청소년백서.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 국승희(2001).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질 모델 개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일남·김혁진·오해섭(2007).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2007). 청소년 사교육 이용실태 및 효과에 대한 종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설(2003). 한국 남녀의 삶의 질 차이에 관한 연구.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5-236.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2002 한국 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김상옥, 김신영, 박승호, 유성렬, 임지연, 최지영(2006).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신영(2007). 2007한국청소년행복지수조사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신영, 백혜정, 이경상(2006). 한국청소년행복·역량지수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권일남·주동범(2007). 신중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신중 및 변중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의철, 박영신(2001).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정오, 조명환(1993). 정보화와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3), 1-33.
- 김현옥. 2002. “가족주의 의식의 구성과 변화-한국사회에서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 3-30.
- 김현철·김은정·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Ⅱ: 부모자녀관

- 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방란, 이해영, 김미란, 김성식, 김지숙. 2006.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개발 및 교육격차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신, 김의철(1999).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학연구*, 37(3), 139-172.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중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2000).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2008).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 기본법, 복지법, 활동진흥법을 중심으로.
- 부르디외. 1995a. 『구별짓기 上』. 최종철역. 새물결.
- 부르디외. 1995b.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역. 동문선.
- 부르디외. 1996. 『구별짓기 下』. 최종철역. 새물결.
- 성윤숙(2007).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정로. 1991. “계급구조와 재생산 이론: 부르디외의 이론”.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40-52.
- 윤진상, 국승희, 이무석(1998). 한국판 스미스클라인 비참 ‘삶의 질’척도에 관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7(2), 280-294.
- 이경상·김기현·임희진(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명진. 2006.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삼성경제연구소.
- 이미리(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93-209.
- 이정화(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은(1995). 스트레스와 지원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2007).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림·김영숙(2006). 인간발달과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이혜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훈구(1998). 행복의 심리학: 주관적 안녕. 서울: 법문사.
- 임성택(2004).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환경론. 서울:교육과학사.
- 임지연·김신영·김정주(2007).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발달지표 종합부분,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1):223-251.
- 장현섭. 1993.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9.
- 전신현(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63-82.
- 정윤선(1993).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행복·불행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명한, 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서울: 집문당.
- 조명한, 최명, 이천표, 김상균, 김정오(1993).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중앙일보(2004년 7월 16일자). 한국 ‘삶의 질’ 세계 28위.
- 최경희(1995). 욕구충족과 주관적 안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셋별. 2002b.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자본의 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4(3): 113-144.
- 최요원(2002). 정서인식이 행복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준식역(2007). 느끼는 뇌. 서울:학지사.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통계청(2006). 사회통계조사.
- 하중원, 백옥인. 1998.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 현황과 전망.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세계사, 1998.
- 한국교육개발원(1997). 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교육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8). 교육지표의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 한국사회조사연구소(2004).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 한국사회조사연구소(2004). 청소년생활통계연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인적자원 지수 및 지표개발.
-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Ⅱ.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Ⅱ-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6).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Ⅰ: 청소년발달종합지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Ⅱ: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Ⅱ: 발달지표 종합부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한국청소년발달지표 현황과 과제 워크숍 자료집.
- 한남제. 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 한준, 한신갑, 신동엽, 구자숙. 2007. “한국인의 문화적 경계와 문화적 위계구조.” 문화와 사회 봄호.
- 한준, 한신갑. 2005. “한국 문화취향의 계층화: 음악취향과 Omnivore가설.”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대회발표논문.
- 현택수 외. 1998. 『문화와 권력』. 나남.
- 현택수. 1994. “문학의 장과 아비투스.” 『사회비평』11: 92-117.
- 현택수. 2001. “아비투스과 문화자본의 사회학.” 김호기 엮음.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 서울: 한울.
- 홍성민. 2000.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
- 홍성민. 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이론과 현실의 비교정치학』살림.
- 황진구·유지열(2007).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책방안 III-2: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bbey, A. & Andrews, F. M.(1986). Modeling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In A. Andrews(Ed.).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University of Michigan.
- Achterberg, Peter & Houtman, Dick. 2005. “The Politics of Omnivores: Cultural Capital, Multicultural Capital, and Political Tolerance”. In Annu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Stockholm.

- Adorno, T. 1984. *Aesthetic Theory*. London: Routledge and K. Paul.
- Andrews, (1981). Objective social indicators,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account systems. In F.T. Juster & K.C. Land(Eds.), *Social accounting systems*(pp.377-419). New York: Academic Press
- Andrews, F. & Withn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Argyle, M. (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Methuen.
- Arnold, M. 1960 [1875]. *Culture and Anarch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aumont, G., Stoker, M. J., & Dunbar, G. C.(1993). Value of the SBQOL in assessing quality of life in anxious and depressed patients treated in general practice. In J. Mendlewicz, N. Brunello, S. Z. Langer, & Recagni, G.(Eds.) *New pharmacological approaches to the therapy of depressive disorders: inaugural workshop and inaugural session of the European decade of brain rese*. Basel, Switzerland: Karger.
- Beck, A. T. & Beamesderfer, A.(1974). Assessment of depression: The depression inventory. In P. Pichot and R. Oliver-Martin(Eds.). *Psychological measurements in psychopharmacology*. Basel, Switzerland: Karger.
- Beisel, N. 1990. "Constructing a Shifting Moral Boundary: Literature and Obscenity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in *Frontiers of Social Theory: The New Synthesis*, edited by George Ritz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nson, P. L., and Pittman, K. J.(2001).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 realities and challenge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enson, P. L., and Satio, R. N.(2001).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youth development*. In P. L. Benson and K. J. Pittman(Eds.),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 realities and challenge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ernstein, B. 1977. "Social Class, Language and Socialization." pp. 473-486 in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1977*, edited by Karabel and Halsey. Oxford University Press.
- Blum, R. & Rinehart, P. (1998). *Reducing the risk: Connections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youth* (Monograph). (Available from Division of General Pediatrics and Adolescent Health, University of Minnesota, Box 721, 420 Delaware St. S.E., Minneapolis, MN 55455)
- Bourdieu, P. & J. Passeron.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Sage Publication.

- Bourdieu, P. 1979. *The Inheritors: French Students and their Relation to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urdieu, P. 1984. *Distinctions: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4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1986*,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Greenwood Press.
- Bourdieu, P. and J. Passeron,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Sage Publication.
- Bowles, S. & H.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yson, B. 1996. "Anything but Heavy metal: Symbolic Exclusion and Musical Tas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 645-679.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s*, 2, 117-124.
- Campbell, A., and Converse, P. E.(1972).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 Y.: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ntril, H.(1967)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ducation of Young Adolescents. Washington, DC:Author.
- Carrabine, E. & Longhurst, B. 1999. "Mosaics of Omnivorousness: Suburban Youth and Popular Music." *New Formations* 38: 125-140.
- Cassidy, T. (1996). All work and no play: A focus on leisure time as a means for promoting health.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9(1), 77-90
- Cereseto, S. & Waitzkin, H.(1986). Capitalism, socialism and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6, 643-659.
- Cherlin, A., & Reeder, L. G.(1975). The dimens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4, 189-214

- Collins, R. 1971. "Functional and Conflict Theories of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December): 1002-1019.
-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New York: Academic Press.
- Conrad, D.(1980). The differential impact of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 on second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0).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1, 919.
- Costa, P. T., Jr., & McCrae, R.R.(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Davis, J.A. (1984). New Money, an old man/lady, and "two's company" : Subjective welfare in the NORC General Social Surveys, 1972-1982.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4), 319-350
- De Graaf, Nan, Paul De Graaf, and Gerbert Kraaykamp.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 92-111.
- Diener, E. & Emmons, R. A.(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Maggio, P. & J. Mohr,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231-60.
- DiMaggio, P. 1979. "Review Essay: On Pierre Bourdieu."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6): 1460-1474.
- DiMaggio, P. 1982a. "Cultural Entrepreneurship in Nineteenth-Century Boston." *Media, Culture, and Society* 4: 33-50.
- DiMaggio, P. 1982b.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89-210.
- DiMaggio, P. 1992. "Cultural Boundaries and Structural Change: The Extension of the High Culture Model to Theater, Opera, and the Dance, 1900-1940." pp. 21-57 in

-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1992, edited by M. Lamont. and M. Fourni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Maggio, P. and J. Mohr, 199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al Capital",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14: 167~199.
- Dishion, T., Patterson, G., Stoolmiller, M., & Skinner, M. (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72-180.
- Downs, C. (1990). The social biological constructs of social competence. In T. Gullotta, G. Adams, and R. Montemayor (Eds.),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pp. 43-94). Newbury Park, CA: Sage.
- Dunbar, G. C., Stoker, M. J., Hodges, T. G. P., & Beaumont, G.(1992). The development of SBQOL - A unique scale for measuring quality of life. *British Journal of Medical Economics*, 2, 65-74.
- Eicher, J., and A. Mingat, 1975, "Educaion et Egalite", pp. 202~292 in *Education, Inequality, and Life Change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Emmison, M. 2003. "Social Class and Cultural Mobility: Reconfiguring the Cultural Omnivore Thesis." *Australian Journal of Sociology* 39: 211-230.
- Emmons, R. A. & Diener, E. (1985a). Factors predicting satisfaction judgements: A comparative examin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2), 157-168
- Erickson, Bonnie H. 1996. "Culture, Class, and Conn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217-251.
- Gallup, G.H. (1976). Human needs and satisfaction: A global survey. *Public Opinion Quarterly*, 40, 459-467
- Gans, H. 1974.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Goldberg, D. P.(1972). *The detection of psychiatric illness by questionnai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ll JR. 1992. ""The Capital of Cultures : A Nonholistic Approach to Status Situation: Class, Gender, and Ethnicity." *Cultivating Differences*, edited by Lamont, Michele and Marcel Fournie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le, D. J. 1992. "The Audience for Abstract Art: Class, Culture and Power."

- Cultivating Differences, edited by Lamont, Michele and Marcel Fournie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31-151.
- Heady, B., Holstrom, E. & Wearing, A. (1984a). Well-being and ill-being: Different dimen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2), 115-140
- Heady, B., Holstrom, E. & Wearing, A. (1984b). The impact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omain satisfaction on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3), 203-228
- Hills, P. & Argyle, M.(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71-1082.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brook, B., Michael, W., and Habick John. 2002. "Disentangling Effacement: Omnivore, and Distinction Effects on Consumption." *Marketing Letters* **13**: 345-357.
- Hox, J. J. (1986). *Het gebruik van hulptheorieën by operationalisering*[Using auxiliary theories for operationalization: A study of the construct 'subjective well-being'].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msterdam, Department of Education
- Huebner, A. J.(2003).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role of competence. In F. A. Villarruel and others(ed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policies, and practic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Inglehart, R., & Rabier, J. R. (1986). Aspirations adapt to situation-but why are the Belgians so much happier than the French? In F.M. Andrews(Ed.), *Research on the quality of the lif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Jencks, C.M., Smith, H., Acland, M.J., Bane, D., Cohen, H., Gitis, B., and Michelson, S. 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s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Johnston, J. N.(1981). *Indicators of educational system*. London: Kogan Page.
- Kalmijn, M., 1994, "Assortive Mating by Cultural and Economic Occupational Stat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422~425.
- Kalmijn, Matthijs, and Gerbert Kraaykamp.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69**: 22-34.
- Kammann, R. & Flett, R. (1983). *Affectometer 2: A scale to measure current level of*

- general Happiness. *Austrian Journal Psychology*, **35**, 259-265
- Kammann, R., Farry, M., & Herbison, P. (1984). The analysis and measurement of happiness as a sense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2), 91-116
- Kane, D. 2003. "Distinction worldwide?: Bourdieu's theory of taste in international context." *Poetics* 31: 403-421.
- Katz-Gerro, T. & Oriel Sullivan. 2005. "The Omnivore Thesis Revisited: Voracious Cultural Consumers."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hiladelphia, PA.
- Katz-Gerro, T. 2002. "Highbrow Cultural Consumption and Class Distinction in Italy, Israel, West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81(1): 207-229.
- Katz-Gerro, T. and Y. Shavit, 1998, "The Stratification of Leisure and Taste: Classes and Lifestyles in Israel",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4, No. 4: 369~386.
- Kelly, G. A.(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Kurth-Schai, R. (1998). Collecting the thoughts of children: A Delphic approach.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1, 53-59.
- Lamont, M. & R. Wuthnow. 1990. "Betwixt and Between: Recent Cultural Sociolog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ages 287-315 in *Frontiers of Social Theory: The New Synthesis*, edited by George Ritz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mont, M. & Virag Molnar, 2002, "The Study of Boundari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167-195.
- Lamont, M. 1992. *Money, Morals, and Manners: The Culture of the French and the American Upper-Middle Cl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d, Kenneth C., Vicki L. Lamb, and Sarah Kahler Mustilio (2001).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1975-1998: Some Findings from a New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December),:241-320
- Larson, R. (2000). Toward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5(1), 170-183.
- Larson, R.(1989). Beeping children and adolescences: A method of studying time use and daily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11-530.
- Levine, L. W. 1988. *Highbrow/Lowbrow: The Emergence of Cultural Hierarchy in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evine, S. & Croog, S. H.(1984). What constitutes quality of life? - A conceptualization

- of the dimensions of life quality in health populations and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In N. K. Wegner(Ed.).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in clinical trials of cardiovascular therapy*. New York: Le Jacq.
- Liu, B. C.(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S metropolitan areas*. New York: Praeger.
- López-Sintas, Jordi & García-Álvarez, Ercilia. 2002a. "Omnivores Show up again: the Segmentation of Cultural Consumers in Spanish Social Spac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 353-368.
- López-Sintas, Jordi, Katz-Gerro, and Tally, 2005, "From Exclusive to Inclusive Elitists: Twenty Years of Omnivorosity and Cultural Diversity in Arts Participation in the USA", *Poetics* 33: 299~319.
- Lynes, Russell. 1954. *The Tastemakers*. Harper, New York.
- MacDonald, D. 1959. "A Theory of Mass Culture." in *Mass Culture: The Popular Arts in America 1959*, edited by B. Rosenberg. and D.W. White. Illinois: Free Press.
- MacRae, D. J.(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North Carolina: N.C. University Press.
- Maggs, J., Schulenberg, J., & Hurrelmann, K. (1997). Developmental transitions during adolescence: Health promotion implications. In J. Schulenberg, J. Maggs, & K. Hurrelmann (Eds.), *Health risk and developmental transitions during adolescence* (pp.522-54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use, Herbert. 1977. *Reason and Revolution: Hegel and the Rise of Social Theory*. Routledge.
- Mason, R., & Falkenberry, G. D.(1978). aspirins, achievement,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 133-150
- Masten, A., Coatsworth, J., Neemann, J., Gest, S., Tellegen, A., & Garmezy, N. (1995). The structure and coherence of competenc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635-1659.
- McCall, S.(1975).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 229-248.
- McKenna, A. C., Atkinson, T., & Andrews, F. M. (1980). Structural constancies in surveys of perceived well-being. In A. Szalai & F.M. Andrews(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pp.111-128). London : Sage
- Michalos, A. (1980). Satisfaction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 385-422
- Michalos, A. (1983).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a rural northern resource commun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 225-252

- Michalos, A.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4
- Morris, D. M.(1979). *Measuring the conditions of the world's poor: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New York: Pergamon Press.
- Murphy, R. 1988. *Social Closure: The Theory of Monopolization and Exclusion*. Oxford, England: Clarendon.
- Myers, D. G.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an Dirk De Graaf, Paul M. De Graaf, and Gerbert Kraaykamp, 2007,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 *sociology of education*vol. 73.
- Nettles, S. (1991). Community contributions to school outcomes of African-American student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25**, 132-147.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Parducci, A. (1968). The Relativism if absolute judgement. *Scientific American*, **219**(6), 84-89
- Peterson, R. & R. M. Kern. 1996.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900-907.
- Peterson, R. 1997a. "The Rise and Fall of Highbrow Snobbery as a Status Marker." *Poetics* **25**: 75-92.
- Peterson, R. 2002. "Snob to Omnivore: the Implications of Shifting Tastes for Arts and Culture Industries." In Janssen, Susanne, Halbertsma, Marlite, Ijdens, Teuis, Karlijn, Ernst (Eds.), *Trends and Strategies in The Arts and Culture Industries*. Barjesteh Press, Rotterdam, pp. 281-292.
- Peterson, R. 2005. "Problems in Comparative Research: The Example of Omnivorousness." *Poetics* (33): 257-282.
- Peterson, R. and A. Simkus. 1992.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pp. 152-186 in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edited by Michelle Lamont and Marcel Fourni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ttman, K. J., and Irby. M.(1996). Preventing problems or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Baltimore: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 Pittman, K. J., and Irby, M.(1996). Preventing problems or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Baltimore: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 Robinson, J. P.(1969).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J.P. Robinson & P.R. Shaver(Eds.),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pp.11-41).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Robinson, R. V. & M. A. Garnier. 1985. "Class Reproduction among Men and Women in France: Reproduction Theory on Its Home Groun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50-280.
- Rojewski,J,&Hill,R (1999). Influence of gender and academic and academic risk behavior on career decision making and occupational choice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student Placed At Risk (JESPAR)*, 3(3), 265-287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069-1081.
- Scales, P., and Leffert, N.(1999). Developmental assets: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on adolescent development.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Shaver, P. & Freedman, J.(1976). The pursuit of happiness. *Psychology Today*, 10, 26-32.
- Stock, W. A., Okun, M.A. & Benin, M.(1986).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 91-102.
- Swartz, D., 1977, "Pierre Bourdieu: The Cultural Transmission of Social Inequ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November): 545~554.
- Van Eijck, K. & Van Rees, K. 2000. "No More Need for Snobbism: Highbrow Cultural Participation in a Taste Democrac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5).
- Vander Stichele, A. & Laermans, R. 2003. "Cultural Omnivores and Univores in the Flemish Public for the Performing Arts." In Annual Meeting of the ESA Research Network for the Sociology of the Arts, Rotterdam, The Netherlands.
- Veenhoven, R. (1984a). *Conditions of happiness*. Dordrecht, Holland: Reidel.
-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Wacquant, Loic. J. D., 1989, "Toward a Reflexive Sociology a Workshop with Pierre Bourdieu", *Sociological Theory* 7: 26~64.

- Warr, P., Barter, J., & Brwonbridge, G.(1983). On the independ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644-651.
- Weber, William M. 1976. Music and the Middle Class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New York: Holmes and Meier.
- Werner Georg, 2004, "Cultural Capital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life cours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0, no. 4.
- Wood, V., Wylie, M. L., & Sheafer, B.(1969). An Analysis of a short self-report measure of life satisfaction: Correlates with rater judgement. *Journal of Gerontology*, 24, 465-469
- Youniss, J, McLellan, J, & Yates, M. (1997). What we know about engendering civic ident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620-631.
- Zuckerman, M. & Lubin, B.(1965).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San Diago: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publishers.



부 록

부 록 1.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2008 청소년발달지표조사

안녕하세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청소년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묻는 조사를 의뢰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진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담당 연구자:	최인재 박사 (02-2188-8876)	담당연구자:	김상욱 교수 (02-760-127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전화) 02-2188-8876
(팩스) 02-2188-8829 jae713@nypi.re.kr <http://www.nypi.re.kr>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전화) 02-760-1270
(팩스) 02-744-6169 src@dragon.skku.ac.kr <http://www.src.re.kr>
<http://www.kgss.re.kr>

1.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지금 무엇이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학생이 미래의 진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1) 나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나는 지난 1년 동안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3)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①	②
4) 나는 지난 1년 동안 방과 후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3.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기를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제해결 후 문제의 해결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여러분의 미래 진로와 직업에 관한 글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이외의 생활에 관한 다음의 각 활동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참여한 적 없다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가끔 참여해 보았다	자주 참여해 보았다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①	②	③	④
2)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①	②	③	④
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①	②	③	④
5)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캠프나 박물관 견학 등)	①	②	③	④

6. 다음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문항의 내용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에게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들과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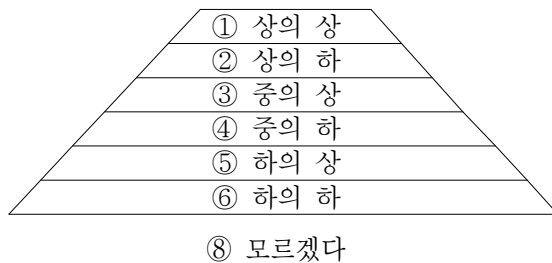
7. 학교 이외의 생활에 관한 다음의 각 활동에 실제로 얼마나 참여해 보았는지
해당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참여한 적 없다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가끔 참여해 보았다	자주 참여해 보았다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①	②	③	④
2)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①	②	③	④
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①	②	③	④
5)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캠프나 박물관 견학 등)	①	②	③	④

8. 다음은 사회적 의식에 관한 진술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 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계층을 아래와 같이 나누었을 때 귀하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
세요? 해당되는 곳의 번호를 써 주세요()



10.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1)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1) 나의 현재 건강상태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의 현재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1) 내가 다니는 학교나 그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우리 학교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우리 학교에는 썰매,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우리 학교에는 비행 청소년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우리 학교 주변에는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적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다음 과목의 지난 학기(2007년 2학기) 기말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신의 성적이 해당되는 곳에 V표기 해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잘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영역	①	②	③	④	⑤
5) 과학영역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①	②	③	④	⑤

15. 여러분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 표기를 해주세요.

_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_ ② 별로 그렇지 않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다소 그렇다	___ ⑤ 매우 그렇다	

16.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 표기를 해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은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기를 해주세요.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1)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다음 문항은 지금부터 최근 2주간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대로 솔직하게 각 문항의 해당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예	아니오
---	-----

- | | | |
|--|---|---|
| 1) 최근 2주간 특별히 어떤 일에 흥미나 재미를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 2) 최근 2주간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다 | ① | ② |
| 3) 최근 2주간 내가 해 냈던 일에 대해 기뻐했던 적이 있다 | ① | ② |
| 4) 최근 2주간 기분이 최고에 달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5) 최근 2주간 많은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 6) 최근 2주간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안절부절
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7) 최근 2주간 매우 외롭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 8) 최근 2주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 9) 최근 2주간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 10) 최근 2주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 | ① | ② |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20. 학생의 성별은?

- ① 여학생 () ② 남학생 ()

21. 학생의 학년은?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22. 학생의 거주 지역은?

- ① 서울 () ② 서울외의 광역시 () ③ 시/도 지역 ()

23. 학생의 종교는?

- ① 기독교 () ② 불 교 () ③ 천주교 () ④ 기 타 ()

24. 부모님 결혼관계 상황 (한 항목만 선택)

- ① 함께 살고 계심 () ② 별거 중 () ③ 이혼하심 ()
④ 한 분 사망 () ⑤ 두 분 모두 사망 ()

25.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계열은? 📖 고등학생만 응답하십시오.

- ① 인문계 () ② 실업계 ()

※ 아래의 조사원 성명과 면접일시는 기입하지 마세요.

조사원 성명		면접일시	_____년 ____월 ____일 _____시
--------	--	------	------------------------------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 록 2.

학교번호:

--	--	--

개인번호:

--	--	--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해 참여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7월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조사 일시	2008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SQ1. 지 역	(____)특별시/광역시/도 (____)시/군/구 (____)동/읍/면
SQ2.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SQ3. 연 령	언제 출생하였는지요? ____년 ____월
SQ4. 학 년	① 중학생(____학년) ② 고등학생(____학년)

본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질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응답해 주십시오.
2. 질문 앞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응답표기 예시]

올바른 응답표기

①	②✓	③
---	----	---

 잘못된 응답표기

①	②	③✗
---	---	----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각 질문의 형식에 알맞게 응답해 주세요.

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요?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화적 소양이 깊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졌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물질적 부보다 문화적 소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방송연예 흐름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다음의 문화 관련 직업을 얼마나 가지고(하고) 싶은지요?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클래식 음악가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작가(시인, 소설가 등)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미술가(화가, 조각가 등)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작곡가(대중음악)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연예인(가수, 배우 등)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디자이너(패션, 인테리어 등)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방송인(PD, 기자, 아나운서 등)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문화 활동들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요?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미술관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학작품을 읽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클래식 음악회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악기연주를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영화관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연극, 뮤지컬을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중음악 콘서트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 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항 목	전혀 한 적이 없다	거의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자주 한 편이다	매우 자주했다
(1) 미술활동(그림 그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연극 관람	①	②	③	④	⑤
(3) 클래식 음악회 관람	①	②	③	④	⑤
(4)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①	②	③	④	⑤
(5) 영화 관람	①	②	③	④	⑤
(6) 만화/애니 감상	①	②	③	④	⑤
(7) 뮤지컬 관람	①	②	③	④	⑤
(8) 문학/독서(책, 시 등)	①	②	③	④	⑤
(9) 미술 전시회 관람	①	②	③	④	⑤
(10) 박물관 관람	①	②	③	④	⑤
(11) 악기 연주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①	②	③	④	⑤

5-1. <음악> 다음의 보기에서 작가와 해당 작품을 연결 지으세요.

작 가		작 품
비발디	. .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슈베르트	. .	<사계>
요한 스트라우스 2세	. .	<송어>
드보르자크	. .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	. .	<신세계>
쇼팽	. .	<피가로의 결혼>
바흐	. .	<메시아>
헨델	. .	<운명>
베토벤	.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모차르트	. .	<죽음환상곡>

5-2. <미술> 다음의 보기에서 작가와 해당 작품을 연결 지으세요.

작 가		작 품
보티첼리	. .	<해바라기>
미켈란젤로	. .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 빈치	. .	<만종>
고흐	. .	<천지창조>
밀레	. .	<모나리자>
샤갈	. .	<절규>
마네	. .	<아비뇽의 아가씨들>
몽크	. .	<키스>
클림트	. .	<피리부는 소년>
피카소	. .	<눈내리는 마을>

5-3. <문학> 다음의 보기에서 작가와 해당 작품을 연결 지으세요.

작 가		작 품
황순원	. .	<토지>
최인훈	. .	<감자>
박경리	. .	<메밀꽃 필 무렵>
조정래	. .	<광장>
이문열	. .	<소나기>
김동인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효석	. .	<장길산>
이범선	. .	<태백산맥>
이청준	. .	<오발탄>
황석영	. .	<당신들의 천국>

뉴스와 방송과 관련하여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6. 귀하는 최신 뉴스를 어떻게 접하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신문 ② 인터넷 포털 기사 ③ TV뉴스 프로그램
④ 주위 사람들로부터 ⑤ 기타 (_____)

- 6-1. 신문, 인터넷 포털 기사, TV뉴스 프로그램으로부터 접하는 최신 뉴스 각각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반드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의 합이 100점이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응답예시] 만약 최신 뉴스를 신문과 TV뉴스 프로그램으로부터 각각 반반을 얻는다면

신문 50 인터넷포털기사 0 TV뉴스 프로그램 50

신문 _____ 인터넷포털 기사 _____ TV뉴스프로그램 _____

7. 귀하는 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 ① 거의 매일 본다. ②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본다.
③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본다. ④ 일주일에 한번 미만 본다.
⑤ 전혀 안 본다.

8. 귀하의 집에서는 신문을 정기구독 하십니까?

- ① 그렇다. (8-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문항 9번으로)

- 8-1. (신문을 정기구독 하신다면) 어떤 신문을 보십니까? (복수응답)

- ① 조선일보 ② 중앙일보 ③ 동아일보 ④ 한겨레신문 ⑤ 경향신문
⑥ 한국일보 ⑦ 문화일보 ⑧ 국민일보 ⑨ 세계일보 ⑩ 기타 ()

- 8-2. 귀하는 신문의 어느 면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 ① 사회면 ② 정치면 ③ 경제면 ④ 스포츠면 ⑤ 연예면
⑥ 문화면 ⑦ 기타 (_____)

9. 귀하는 TV를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보십니까?

_____ 시간 _____ 분

9-1. (TV를 본다면)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 ① 뉴스, 시사 ② 연예, 오락 ③ 연속극 ④ 교양, 다큐
⑤ 기타 (_____)

귀하의 음악취향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10. 귀하는 다음의 음악장르를 각각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항 목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이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국악	①	②	③	④	⑤	⑥
댄스	①	②	③	④	⑤	⑥
힙합/랩	①	②	③	④	⑤	⑥
락	①	②	③	④	⑤	⑥
R&B/ 소울	①	②	③	④	⑤	⑥
포크	①	②	③	④	⑤	⑥
성인가요(트로트)	①	②	③	④	⑤	⑥
인디음악	①	②	③	④	⑤	⑥
재즈	①	②	③	④	⑤	⑥
뉴에이지	①	②	③	④	⑤	⑥
클래식	①	②	③	④	⑤	⑥
뮤지컬	①	②	③	④	⑤	⑥
종교음악(가스펠, 찬불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발라드	①	②	③	④	⑤	⑥

문화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가정 분위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11. 다음은 귀하의 가정 내 문화적 분위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하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집안에 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집안에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물품 (악기, 클래식음악 CD, 오디오, 화구 등과 같은 예술도구 등)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중 한분)께서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중 한분)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중 한분)께서는 외국어로 잡지나 신문을 읽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의 부모님(중 한분)은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한 적이 없다	거의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자주 한 편이다	매우 자주했다
(1) 미술활동(그림 그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연극 관람	①	②	③	④	⑤
(3) 클래식 음악회 관람	①	②	③	④	⑤
(4)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①	②	③	④	⑤
(5) 영화 관람	①	②	③	④	⑤
(6) 만화/애니 감상	①	②	③	④	⑤
(7) 뮤지컬 관람	①	②	③	④	⑤
(8) 문학/독서(책, 시 등)	①	②	③	④	⑤
(9) 미술 전시회 관람	①	②	③	④	⑤
(10) 박물관 관람	①	②	③	④	⑤
(11) 악기 연주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	①	②	③	④	⑤

대중문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13. 대중문화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 하세요.

	전혀 그렇 지 않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내가 친구를 사귄 때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대중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친구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대중문화에 대한 취향이 나와 다른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귀하는 대중문화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동호회나 팬클럽, 아고라 등의
게시판, TV 드라마나 방송 연예물 프로그램의 게시판)와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항 목	거의 매일 한다	일주일에 몇 번 한다	한달에 몇 번 한다	일년에 몇 번 한다	거의 안 한다
(1) 게시글 읽기	①	②	③	④	⑤
(2) 게시글 쓰기	①	②	③	④	⑤
(3) 댓글 달기	①	②	③	④	⑤
(4) TV,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사연 보내기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는 대중문화와 관련된 다음의 활동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각각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늘 하고 있다	하고 싶지만 할 줄 모른다	할 줄 알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하고 싶은 마음도 할 능력도 없다
(1) 집, 노래방 등에서 노래부르기	①	②	③	④
(2) 동호회, 밴드 등에서 연주하기	①	②	③	④
(3) 작곡이나 작사하기	①	②	③	④
(4) DJ 보기(인터넷 음악방송 포함)	①	②	③	④
(5) 음악 앨범 편집하기 (CD, 온라인 포함)	①	②	③	④
(6) 연기하기	①	②	③	④
(7) 만화그리기	①	②	③	④
(8) 소설이나 대본 쓰기	①	②	③	④

인터넷이용과 관련 문화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16. 귀하는 평일과 주말에 하루 평균 얼마나 인터넷을 이용하십니까?

구 분	주 중	주 말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____ 시간 ____ 분	____ 시간 ____ 분

17. 귀하는 인터넷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래의 응답 보기를 참고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응답 보기>		
① 정보검색	② 쇼핑 / 예약	③ 오락(게임포함)
④ 메일/메신저/채팅	⑤ 음악/영화파일등 자료 다운로드	
⑥ 카페/동호회활동	⑦ 개인홈페이지/블로그/미니홈피활동	
⑧ 학습	⑨ 기타(_____)	

1순위: ()

2순위: ()

18. 귀하는 인터넷에서 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십니까? 아래의 응답 보기를 참고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응답 보기>		
① 뉴스, 시사	② 교육 및 학습관련정보	③ 음식점, 식사
④ 공연, 전시(미술관, 영화관, 음악회 등)	⑤ 도서, 음반	
⑥ 의료, 건강	⑦ 쇼핑, 가격비교	⑧ 유행 및 패션
⑨ 스포츠	⑩ 인물(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1순위: () 2순위: ()

19.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이용했습니까?

항 목	전혀 한 적이 없다	거의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자주 한 편이다	매우 자주했 다
(1) 미술활동(그림 그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연극 관람	①	②	③	④	⑤
(3) 클래식 음악회 관람	①	②	③	④	⑤
(4)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①	②	③	④	⑤
(5) 영화 관람	①	②	③	④	⑤
(6) 만화/애니 감상	①	②	③	④	⑤
(7) 뮤지컬 관람	①	②	③	④	⑤
(8) 문학/독서(책, 시 등)	①	②	③	④	⑤
(9) 미술 전시회 관람	①	②	③	④	⑤
(10) 박물관 관람	①	②	③	④	⑤
(11) 악기 연주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 ()	①	②	③	④	⑤

19-1. (위의 활동을 했다면) 관련된 내용은 주로 어떤 형식의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까?

- ① 온라인 커뮤니티 ② 블로그/미니홈피 ③ 동영상사이트 콘텐츠
 ④ 지식검색 ⑤ 관련 전문 사이트의 콘텐츠 ⑥ 기타 ()

20. 귀하는 다음과 같은 문화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만일 가입하고 계시다면 아래 각각의 온라인커뮤니티 분류항목에 귀하의 가입여부를 모두 표시하여 주시고, 가입한 커뮤니티의 경우 참여정도를 1~5점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정도 응답 보기>				
온오프라인 모두 적극참여	온오프라인 모두 가끔참여	게시물/댓글 을 올린다	눈으로 보기만함	활동안함
①	②	③	④	⑤

종 류	가입여부	활동정도
(1) 문학/ 독서	① 비가입 ② 가입	① ... ② ... ③ ... ④ ... ⑤
(2) 공연 (콘서트, 연극, 오페라, 뮤지컬)	① 비가입 ② 가입	① ... ② ... ③ ... ④ ... ⑤
(3) 미술	① 비가입 ② 가입	① ... ② ... ③ ... ④ ... ⑤
(4) 음악	① 비가입 ② 가입	① ... ② ... ③ ... ④ ... ⑤
(5) 영화/비디오	① 비가입 ② 가입	① ... ② ... ③ ... ④ ... ⑤
(6) 만화/애니	① 비가입 ② 가입	① ... ② ... ③ ... ④ ... ⑤
(7) 방송/연예	① 비가입 ② 가입	① ... ② ... ③ ... ④ ... ⑤

21.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2.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게시물로 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올리십니까?

종 류	전혀 한 적이 없다	거의하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자주 한 편이다	매우 자주 했다
(1) 읽은 책에 대한 감상	①	②	③	④	⑤
(2) 공연(연극, 오페라, 뮤지컬)에 대한 감상	①	②	③	④	⑤
(3)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	①	②	③	④	⑤
(4) 음악(클래식)에 대한 감상	①	②	③	④	⑤
(5) 음악(대중가요, 팝)에 대한 감상	①	②	③	④	⑤
(6) 영화/비디오에 대한 감상	①	②	③	④	⑤
(7) 방송/연예 정보 관련 의견	①	②	③	④	⑤

마지막으로 귀하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3.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V 표 하시고 국내외 여부도 표시해주세요.

	아버지	장소	어머니	장소
① 초등학교	_____	① 국내 ② 국외	_____	① 국내 ② 국외
② 중학교	_____	① 국내 ② 국외	_____	① 국내 ② 국외
③ 고등학교	_____	① 국내 ② 국외	_____	① 국내 ② 국외
④ 2년제 대학교	_____	① 국내 ② 국외	_____	① 국내 ② 국외
⑤ 4년제 대학교	_____	① 국내 ② 국외	_____	① 국내 ② 국외
⑥ 대학원 이상	_____	① 국내 ② 국외	_____	① 국내 ② 국외

24. 귀하의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하와 장래의 배우자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퇴직하셨거나 돌아가신 경우 가장 주된 직업을 적어 주십시오. 아래의 직업 범주를 참조하십시오.)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 ③ 나의 희망직업 ④ 배우자의 희망직업

《 직업 분류표 》

【전문직】

- | | |
|-------------------|-------------|
| 11. 의사 | 15. 약사 |
| 12. 변호사·판사·검사·회계사 | 16. 대학교수 |
| 13. 작가·예술가 | 17. 언론인·방송인 |
| 14. 종교인 | |
| 19. 기타 전문직(무엇:) | |

【관리직】

- | | |
|--------------------------|----------------------|
| 21. 중소기업체 사장(5인 이상 고용) | 24. 대기업·은행 간부(부장 이상) |
| 22. 고급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 | 25. 사회단체 간부(부장 이상) |
| 23. 군인(영관급 이상)·경찰(경정 이상) | |
| 29. 기타 관리직(무엇:) | |

【반(半)전문·기술직】

- | | |
|------------------|----------------|
| 31. 교사·학원강사 | 34. 간호사 |
| 32. 건축사 | 35. 엔지니어(무엇:) |
| 33. 연구원 | |
| 39. 기타 기술직(무엇:) | |

【사무직】

- | | |
|----------------------|-------------------------------|
| 41. 중간관리직 회사원(차장·과장) | 45. 일반사무직 회사원
(계장·대리·평사원) |
| 42. 중간관리직 은행원(차장·과장) | 46. 일반사무직 은행원
(대리·행원) |
| 43.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 | 47. 일반공무원
(5급 사무관 이하) |
| 44. 전화교환수·집배원 | 48. 군인(위관급·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
| 49. 기타 사무직(무엇:) | |

【판매직】

- | | |
|-------------------------|-----------------------|
| 51. 도·소매 상점주인(5인 미만 고용) | 54. 백화점·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직원 |
| 52. 소규모 상점 점원 | 55. 외판원 |
| 53. 부동산 중개인 | 56. 행상·노점상 |
| 59. 기타 판매직(무엇:) | |

【서비스직】

- | | |
|-----------------------------|--------------------|
| 61. 음식점·여관 등의 주인(5인 미만 고용) | 64. 음식점·여관 등의 종업원 |
| 62. 이·미용실, 세탁소 주인(5인 미만 고용) | 65. 이·미용실, 세탁소 종업원 |
| 63. 청소부·파출부 | 66. 수위·경비원 |
| 67. 기타 서비스직(무엇:) | |

《 직업 분류표 》

【생산직】

- | | |
|-------------------|---------------------|
| 71. 생산감독(주임·반장) | 75. 공장근로자(숙련공·기능공) |
| 72. 공장근로자(반숙련공) | 76. 공장근로자(견습공·비숙련공) |
| 73. 막노동자·단순노무자 | 77. 고용 운전자(자동차·중장비) |
| 74. 개인 택시·화물차 운전자 | 78. 광원 |
| 79. 기타 생산직(무엇:) | |

【농어민】

- | | |
|------------------------------|-----------------|
| 81. 부농(2정보=6,000평 이상) | 85. 농업노동자·품일꾼 |
| 82. 중농(1~2정보=3,000~5,999평) | 86. 선주 |
| 83. 소농(0.5~1정보=1,500~2,999평) | 87. 축산·낙농업자 |
| 84. 빈농·소작농(0.5정보=1,500평 미만) | 88. 어부, 수산·양식업자 |
| 89. 기타 농어민(무엇:)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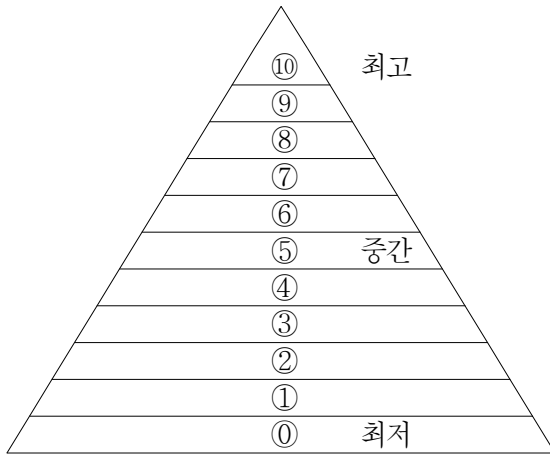
【미취업】

- | | |
|--------------------|-------------|
| 91. 학생 | 94. 주부 |
| 92. 의무복무 군인(사병·전경) | 95. 무직(실업자) |
| 93. 정년퇴직·연금생활자 | |
| 98. 기타(무엇:) | |

25. 귀하 가족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50만원 미만 | ② 50~99만원(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
| ③ 100~149만원 | ④ 150~199만원 |
| ⑤ 200~249만원 | ⑥ 250~299만원 |
| ⑦ 300~399만원 | ⑧ 400~499만원 |
| ⑨ 500만원 이상 | |

26. 귀하 가족의 현재 생활수준은 한국의 다른 가족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사다리에서 골라 주십시오.



27. 귀하가 50대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니까? 위 사다리에서 골라 주십시오.

28. 귀하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적	상	중상	중중	중하	하
학급 성적	①	②	③	④	⑤
전교 성적	①	②	③	④	⑤
(가장 최근의) 전국규모 모의고사 성적	①	②	③	④	⑤

이제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 및 자문진 ◆

(가나다 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 교수
김정주 모든학교체험활동연구소 · 소장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배 영 숭실대학교 ·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
이지연 통계청 · 사무관
최섯별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 연구보조원 ◆

배은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 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융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북섬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 강태중 · 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 김영한 · 박철웅 · 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 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 김영지 · 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 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 김경준 · 김영지 · 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 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 · 김경준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

- 총괄보고서 -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734-5(93330)

978-89-7816-733-8(세트)